

# 臺灣企業 中國投資의 現況과 波及效果

政策研究 93-28

金時中  
1993. 12.



對外經濟政策研究院

# 臺灣企業 中國投資의 現況과 波及效果

金 時 中

1993. 12.



對外經濟政策研究院



## 序 言

오늘날의 世界는 冷戰時代가 종말을 고하고, 經濟的 世界主義(globalism)와 地域主義(regionalism)가 공존하는 새로운 國際經濟 秩序가 형성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데, 그 중의 대표적인 것이 과거 정치적 이유로 經濟關係가 단절되었던 지역간의 經濟交流가 급속하게 증대하고 있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中國을 포함한 이른바 ‘北方圈’과의 經濟交流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그 例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中國·臺灣간의 經濟交流 活性化이다.

中國과 臺灣은 1980년대 중반이후 公式的·政治的 敵對關係가 유지되는 상태하에서도 民間의 經濟交流가 급속하게 증대하는 독특한 관계를 형성해 왔다. 특히 많은 臺灣의 民間企業들이 제3국을 경유하여 다량의 資本을 中國에 投資하고 있는데, 이미 中國은 臺灣의 제1위 海外投資 對象國이 되고 있으며, 臺灣은 中國의 제2위 外國人投資 提供國이 되고 있다. 이 현상은 우리에게 南北韓 經濟關係 형성, 우리기업의 對中國 投資, ‘中華經濟圈’의 형성여부 및 그 실체 등 여러 측면과 관련하여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현상이 갖는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體系的 研究는 현재까지 전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臺灣企業 中國投資의 現況과 特徵을 분석하고 그 波及效果와 앞으로의 展望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示唆點을 정리하고 있는 本 研究의 출간은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本 研究가 海外直接投資 一般 및 對中國 投資에 관심이 있는 政府·學界·業界의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本 研究 報告書는 本院의 金時中 博士가 집필하였으며, 著者는 좋은 논평을 통하여 내용을 개선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준 經濟企劃院의 金斗

鉉 博士와 本院의 白權鎬 博士, 그리고 本 論文 작성을 위한 자료 제공과 토론을 통하여 많은 도움을 준 中華經濟研究院(臺灣)의 高長, 金克宜, 鍾琴, 陳麗瑛 氏에게도 감사를 표하고 있다. 또한 本 論文을 작성하는 데 資料整理 및 原告打字에 도움을 준 李有美 研究員, 朱宰佑 研究員, 鄭美善 研究助員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本 報告書에 제시된 모든 내용과 견해는 著者 개인의 책임하에 쓰여진 것이며, 本 研究院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3年 12月  
對外經濟政策研究院  
院 長 柳 莊 熙

## 〈目 次〉

I. 序 論	9
II. 兩岸關係의 性格과 兩側의 制度	11
1. 兩岸關係에 대한 兩側의 基本立場과 經濟交流에 대한 接近方式	11
1.1 兩岸關係에 대한 兩側의 基本 立場	11
1.2 兩岸 經濟交流에 대한 兩側의 接近方式	15
2. 臺灣의 大陸投資에 대한 兩側의 制度的 裝置	17
2.1 大陸의 臺灣投資 誘致制度	17
2.2 臺灣의 大陸投資에 대한 制度的 裝置	20
III. 臺灣企業 大陸投資의 現況과 特徵	25
1. 臺灣의 海外直接投資 推移	25
2. 臺灣의 對大陸 投資 推移	29
3. 臺灣企業 大陸投資의 全般的 特徵	36
3.1 投資動機	36
3.2 投資規模	38
3.3 投資業種	41
3.4 投資地域	44
3.5 投資形態	47
3.6 홍콩의 役割	49
IV. 大陸內 臺灣投資企業의 運營狀況	51
1. 生産活動	51
1.1 機械·設備의 購入	51
1.2 原料·部品の 購入	53

1.3 勞動生產性	54
1.4 製品的品質	56
2. 販賣活動	58
3. 財務管理	60
3.1 運營資金 調達	60
3.2 臺灣資金的 送金方式	61
4. 經營損益	62
5. 隘路事項	64
6. 展望 및 向後 計劃	64
7. 大陸側の 經濟制裁 可能性에 대한 對應	66
8. 兩側 政府의 兩岸經濟關係 處理方法에 대한 見解	67
V. 臺灣·中國 經濟에 대한 波及效果	69
1. 臺灣經濟에 대한 波及效果	69
2. 中國經濟에 대한 波及效果	79
VI. 展望과 示唆點	85
1. 展望	85
2. 示唆點	90
參考文獻	95
〈附 錄〉	101
[附錄1] 中國·臺灣의 交易關係	101
[附錄2] 臺灣同胞 投資獎勵에 관한 國務院 規程	107
[附錄3] 大陸地區 投資·技術合作 項目의 審査原則	
〈臺灣 經濟部 投資審議委員會〉	111

## 〈表 目 次〉

〈表 Ⅲ-1〉 臺灣의 海外直接投資 推移	25
〈表 Ⅲ-2〉 臺灣의 主要 巨視經濟指標 推移	27
〈表 Ⅲ-3〉 臺灣 海外直接投資의 地域別 分布 推移	28
〈表 Ⅲ-4〉 臺灣의 對中國 및 東南亞 直接投資 推移	29
〈表 Ⅲ-5〉 臺灣企業의 對中國 投資推移	31
〈表 Ⅲ-6〉 主要國의 對中國 直接投資 推移(Ⅰ) (契約基準)	34
〈表 Ⅲ-7〉 主要國의 對中國 直接投資 推移(Ⅱ) (實行基準)	35
〈表 Ⅲ-8〉 臺灣企業의 大陸投資 動機	37
〈表 Ⅲ-9〉 臺灣企業 大陸投資의 業種別 分布(Ⅰ)	42
〈表 Ⅲ-10〉臺灣企業 大陸投資의 業種別 分布(Ⅱ)	43
〈表 Ⅲ-11〉臺灣企業 大陸投資의 地域別 分布	45
〈表 Ⅳ-1〉 投資業種別 機械·設備의 購入原 分布	52
〈表 Ⅳ-2〉 投資業種別 原料·部品の 購買原 分布	54
〈表 Ⅳ-3〉 投資業種別 大陸工場의 勞動生産性 評價	55
〈表 Ⅳ-4〉 投資業種別 大陸生産品 品質評價	57
〈表 Ⅳ-5〉 業種別 運營資金 調達方法	60
〈表 Ⅳ-6〉 業種別 經營損益 狀況	63
〈表 Ⅳ-7〉 業種別 向後 投資計劃	65
〈表 Ⅴ-1〉 臺灣 製造業部門의 構造變化 (1986-1992)	71
〈表 Ⅴ-2〉 臺灣 大陸投資의 臺灣經濟에 대한 波及效果	76
〈附表 1〉 中國·臺灣의  홍콩경유 間接交易의 推移	102
〈附表 2〉 臺灣의 對中國 輸出品目 構造의 推移	105
〈附表 3〉 臺灣의 對中國 輸入品目 構造의 推移	106





## I. 序 論

中國과 臺灣은 여전히 정치적인 대립관계를 지속하고 있지만, 經濟的인 측면에서는 1980년대 중반이후 臺灣海峽 兩岸間的(즉 中國-臺灣간의) 交流가 급속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왔다. 홍콩을 통한 兩岸間的의 公式的인 間接交易 규모는 1992년중 63억달러에 이르렀고 1993년에는 90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다른 경로를 통한 交易을 합할 경우 兩岸間的의 總交易 規模가 이미 1992년에 100억달러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兩岸間 交易上的 相互依存度는 이미 상당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또한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sup>1)</sup>(兩岸間 交易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附錄1]에 수록)

그러나 일회적 상품거래인 交易의 증가보다 더 큰 관심을 끄는 것은 臺灣企業의 大陸에 대한 直接投資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大陸은 臺灣의 제1의 海外投資 對象地로 등장하고 있으며, 臺灣은 中國의 제2위 外國人投資 提供國이 되고 있다. 資本·技術 및 經營資源이 결합되어 해외로 이전되는 동시에 지속적인 성격을 갖는 海外直接投資(direct foreign investment)가 臺灣으로부터 大陸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은 兩 經濟의 相互依存度를 새로운 차원으로 심화시키면서 이른바 經濟統合(economic integration)으로의 진전을 시사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兩岸間的의 經濟交流, 특히 臺灣企業의 大陸에 대한 投資 증대는 韓國에 대하여 여러 측면에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보인다. 첫째

---

1) 1992년 臺灣과 中國의 總交易 規模는 각각 1534억달러와 1655억달러로서 兩岸間 交易의 總交易에 대한 비중은 5% 내외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규모 경제인 臺灣의 입장에서는 大陸市場에의 과도한 의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로 이제 中國과 臺灣은 남북한을 제외하고는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이들간의 경제교류·협력의 증대는 南北韓間의 經濟協力 도모에 참고가 되는 측면을 갖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兩岸間 經濟關係와 南北韓間 經濟關係와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규명하고, 이를 통하여 南北韓 經濟關係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臺灣의 大陸에 대한 直接投資가 대규모로 이루어짐에 따라 나타나는 臺灣經濟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은 臺灣과 비슷한 경제성장 단계에 있는 韓國의 海外直接投資 증대가 갖는 파급효과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臺灣企業 大陸投資의 특징과 최근의 추세를 분석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에 관한 여러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시각에서 臺灣企業의 對中國 直接投資를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먼저 II장에서 兩岸關係에 대한 兩側의 立場과 이에 근거하여 수립된 臺灣의 大陸投資에 관한 兩側의 制度를 살펴보았다. III장에서는 臺灣의 大陸投資의 推移 및 投資動機, 規模, 地域, 業種, 形式 등 여러 측면에서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IV장에서는 보다 미시적인 차원에서 臺灣의 大陸內 投資企業의 운영상황을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살펴보았다. V장에서는 臺灣의 大陸投資가 大陸 및 臺灣經濟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고, 마지막 VI장에서는 앞으로의 進展 展望과 위에서 제기한 여러 측면에서의 韓國에 대한 示唆點을 정리해 보았다.

## II. 兩岸關係의 性格과 兩側의 制度

中國과 臺灣의 관계는 과거의 단순한 적대관계에서 크게 변화하여 현재는 높은 수준의 人的·物的 交流과 政治的 對立 및 相互牽制 關係가 共存하는 매우 복잡한 構造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現狀의 등장 배경에는 兩側이 처한 立場의 相異性, 國內의 政治·經濟 環境의 變化 및 이에 따른 兩側의 상이한 接近方式이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中國·臺灣間의 經濟交流은 일반적인 국가간 경제교류와는 상당히 다른 환경하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양측의 정책적 접근에도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本章에서는 兩岸 經濟交流에 대한 兩側의 接近方式과 이에 근거하여 나타난 臺灣企業의 大陸投資에 관한 兩側의 制度的 裝置에 대하여 논의한다.

### 1. 兩岸關係에 대한 兩側의 基本立場과 經濟交流에 대한 接近方式

#### 1.1 兩岸關係에 대한 兩側의 基本立場

1949년 大陸에서의 中華人民共和國 수립과 國民黨 정부의 臺灣 移轉 이후 간헐적인 무력 충돌을 수반하는 적대관계를 유지해 왔던 兩岸關係 (中國·臺灣간의 관계를 흔히 臺灣海峽 兩岸간의 關係로 묘사함)는 1980년대 중반이래 經濟交流의 급격한 증대로 특징 지워지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1979년부터 中國側이 취한 적극적인 교류 공세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그후 경제적 동기에 근거한 민간 차원의 교류 증대와 이에 대한 臺灣政府의 융통성 있는 대응에 따라 본격화 되고 있다. 또한 양측의 비공식적인 접촉이 빈번해지고 있고, 특히 1993년 4월

에 민간 형식이기는 하지만 최초의 공식적 고위급 회담이 성사된 것은 兩岸關係의 진전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中國은 1979년 改革·開放政策의 실시와 美國과의 수교를 배경으로 새로운 對臺灣 政策을 채택하였다. 이 新政策의 핵심은 종래의 武力統一 戰略에서 兩岸間의 交流擴大와 臺灣의 국제적 고립 유도를 통한 積極吸收 統一의 추구라는 새로운 統一戰略으로의 전환에 있었다.<sup>2)</sup> 이 새로운 政策을 통하여 나타난 中國의 기본 입장은 다음과 같은 세 측면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이른바 ‘三通四流’의 요구로 상징되는 적극적인 교류공세이다. 즉 ‘三通’(通商, 通郵, 通航)과 ‘四流’(친척 방문 및 관광교류, 학술교류, 문화교류, 체육교류)의 달성을 통하여 人的·物的 交流를 확대함으로써 상호간의 신뢰 회복과 互惠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一國兩制’라는 統一方式의 제안이다. 이 統一方式은 ‘하나의 中國’이라는 원칙하에서 臺灣을 포함하는 全 中國의 主權 (sovereignty)은 北京의 中華人民共和國 政府에 귀속·대표되고,<sup>3)</sup> 臺灣은 고도의 自治權(제한적 군사력 보유 포함)을 갖는 ‘特別行政區域’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기존의 政治·經濟·社會制度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中國이 홍콩·마카오 반환협정에 적용한 원칙이기도 하다. 세째는, ‘一國兩制’에 의거한 통일을 달성하는 방법으로서 中國의 共產黨과 臺灣의 國民黨간의 ‘黨對黨 協商’(이른바 제3차 國共合作)의 제안이다. 이는 臺灣 政府를 地方政府 이상의 국제적 실체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臺灣의 집권세력과 실질적인 통일 협상을 갖자는 주장인 것이다.

- 
- 2) 이러한 政策變化는 全人代 常務委員會 명의로 발표된 “告臺灣同胞書”, (1979. 1. 1. 人民日報)에서 처음 공표되었으며, 이후 1981년 5월 鄧小平의 기자회견에 나타난 ‘조국통일 6개 원칙’, 1981년 9월 葉劍英(당시 全人代 常務委 委員長)이 공식 발표한 ‘조국통일 9개 원칙’ 등을 통하여 구체화 되었다.
- 3) 中國은 어떤 형태로든 臺灣의 정치적 독립을 허용하는 ‘두개의 中國’이나 ‘하나의 中國과 하나의 臺灣’ 등의 주장을 이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강력히 배격하고 있다.

그러나 中國은 한편으로 이러한 평화통일 공세를 취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臺灣에 대한 武力 不使用의 천명을 거부하고 있으며, 또한 臺灣의 國際的 孤立化를 추구하여 주요 國家 및 國際機構와 臺灣의 관계 단절을 유도해 왔다. 결국 中國은 臺灣에 대하여 한편으로 민족감정과 물질적 유인 제공을 통한 교류확대를 도모하고, 다른 한편으로 臺灣의 獨立 추구시 무력 행사 가능성의 불배제와 臺灣의 국제적 고립화 유도를 통하여 압력을 가하는 二重의 戰略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反共復國”, “軍事力を 통한 大陸 解放” 등 구호수준의 大陸政策에 머물렀던 臺灣의 國民黨 政府도 점차 國內의 정세의 변화와 대륙의 적극적 평화공세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中國側의 평화공세를 共產黨의 統一戰線戰術의 일환이라고 평가하며 전통적인 三不政策(不接觸, 不協商(불교섭), 不談判(불타협))을 고수하던 臺灣政府도 국제적 고립의 가속화, 國內의 정치·경제적 여건의 악화와 민간으로부터의 大陸과의 經濟交流 요구 증대에 대응하여 점차로 융통성을 보이는 정책 변화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계엄령 해제(1987년 7월), 대륙 친척방문 허용(1987년 10월), 一國兩(政)府(1989년 4월)·一國兩區(域)(1990년 7월) 등 독자적인 통일방식의 제안, 三段階 統一方式을 규정한 國家統一綱領의 채택(1991년 2월), 戰時非常法 폐지(1991년 4월)<sup>4)</sup> 등의 조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對大陸 政策의 변화를 모색해 오고 있다.

이러한 臺灣의 新 大陸政策의 핵심 주장은 中國이 臺灣에 대한 武力行使를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臺灣의 국제적 고립유도를 포기하는 등 현실적·정치적 실체로서의 臺灣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政府 對 政府의 協商’을 통한 民主國家로의 平和의 統一을 달성하자는 것이다.<sup>5)</sup>

4) 臺灣은 國民黨 독재통치의 근거가 되었던 ‘動員戡亂時期 臨時條例’를 폐지하였다.

5) 이러한 臺灣政府의 公式의 입장과는 별도로 제1야당인 民進黨과 기타 일부 세력은 臺灣의 獨立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政府도 UN가입 의사 발표 등 臺灣

臺灣의 '國家統一綱領'은 궁극적 통일에 이르는 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 단계 구분에 따르면 본격적인 '統一協商 段階'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互惠·交流의 段階'와 '相互信賴 및 協力の 段階'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는 '互惠·交流의 段階'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現 段階에서 臺灣은 공식적으로 三不政策을 고수하여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交流는 금지하되, 다양한 부문에 있어서 民間次元의 間接交流는 허용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음 단계인 '相互信賴 및 協力の 段階'에서는 양측 정부간 고위급 대화통로가 구축되고 '三通'의 실현 및 大陸 동남해안의 공동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양측의 입장 차이는 1993년 4월에 성사된 고위급 회담에서도 드러났다. 兩 政府로부터 兩岸關係 접촉의 실무를 위임받은 형식상의 민간기구인 海峽交流基金會(臺灣)와 海峽兩岸關係協會(中國)는 두 기관 대표간의 회담(이른바 汪-辜 회담)을 싱가포르에서 개최하여 4개의 합의안에 서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내용으로는 양국의 公文書 認證 및 認證節次에 관한 합의, 분실된 등기우편 확인 및 보상에 관한 합의, 양기관간 지속적·정기적 대화통로 유지에 관한 합의 등 세 가지의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합의와 밀수 등 범죄문제, 밀입국 문제, 지적재산권 보호, 어업분쟁, 양측의 상이한 법률체계에 대응하는 법률적 협조, 기타 문화·과학·자원개발 등 양안간 교류 확대에 수반하여 나타나는 과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회담에서 臺灣측은 '投資保障協定' 체결을 요구한 반면, 中國側은 이를 거부하는 한편 오히려 交流 活性化를 위한 三通, 특히 直通航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등 양측이 큰 시각 차를 드러내어 핵심적인 문제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결국 이 회담은 최초의 공식적인 고위급 회담의 개최와 지속적 대화통로 개설이라는 의의를 갖는데 그치고 말았다고 할 수 있다.

## 1.2 兩岸 經濟交流에 대한 兩側의 接近方式

앞 절에서 소개한 바와 같은 양측 기본입장의 차이에 따라 兩岸間 經濟交流에 대한 접근방식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즉 兩岸間의 經濟交流은 일반적인 國家間 經濟交流와는 다른 성격의 것이며, 이에 대한 양측의 접근방식도 일반적인 國家間 通商關係에 대한 접근방식과 구별되는 것이다. 결국 양측은 분단 국가의 一方으로서 정치·사회·군사 등 여러 측면을 종합한 전반적인 對相對方 政策과 전반적인 對外經濟政策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경제교류에 대한 정책을 수립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臺灣과의 경제교류에 대한 中國의 접근방식을 살펴보면, 中國은 두 측면의 상위급 정책에 기초하여 臺灣과의 경제교류에 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상위급 정책의 하나는 전반적 對外經濟政策의 기조인 '對外開放政策'이고, 다른 하나는 앞에서 소개한 전반적인 對臺灣 政策이다. 中國의 對外開放政策은 1979년부터 종래의 고립적인 自力更生 정책에서 탈피하여 對外貿易의 확대와 적극적인 外資導入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하려는 정책을 의미한다. 이러한 中國의 對外開放政策은 要素賦存과 經濟發展 段階에 있어서 相互補完性이 높은 臺灣과의 경제교류를 촉진하는 힘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대외개방 초기에 臺灣과 인접한 廈門을 4개 經濟特區중의 하나로 지정한 것은 처음부터 臺灣資本의 유입을 의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6)</sup>

또한 이러한 對外開放의 經濟政策은 臺灣과의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를 유도하려는 對臺灣 政策의 기조와 결합되어 적극적으로 臺灣과의 경제교류를 장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中國은 臺灣과의 경제교류 확대를 통하여 일반적인 경제적 이득, 즉 貿易을 통한 利得(gains from

6) 나머지 廣東省의 經濟特區(深圳, 珠海, 汕頭)도 홍콩 및 마카오·東南亞의 華僑資本의 유입을 의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trade)과 投資誘致를 통한 資本·技術·經營技法의 導入 및 雇用 擴大 등을 취함과 동시에 經濟的 相互依存性의 제고를 통하여 궁극적인 統一에의 진전을 도모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中國은 人口, 全體 經濟力, 국제정치상의 지위, 군사력 등의 면에서의 절대적 우위와 궁극적인 흡수 통일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臺灣에 어느 정도의 특혜도 제공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臺灣과의 경제교류 확대과정에서 貿易赤字가 증대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남에 따라 臺灣과의 經濟交流을 특별히 감독·관리하는 체제도 구축해 놓고 있다.<sup>7)</sup>

한편 臺灣의 경우 大陸과의 經濟交流에 대한 政府와 民間企業間의 입장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즉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1980년대 중반 이후 臺灣내의 급격한 賃金·地價상승, 臺灣通貨의 지속적 평가절상, 先進國들의 경기부진 및 수입규제 강화 등의 국제경제 여건의 악화에 대응하여, 풍부한 저임 노동력, 광대한 低價의 土地 및 각종 천연자원 및 급속히 확대 추세를 보이는 방대한 內需市場을 보유한 大陸과의 經濟交流에 매우 적극적이다. 또한 臺灣政府의 입장에서도 위와 같은 민간기업의 요구나 객관적인 경제 여건에 비추어 볼 때, 大陸과의 經濟交流 확대를 통한 새로운 經濟成長 기회 포착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大陸의 대외개방을 臺灣經濟의 持續的 成長을 위하여 활용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臺灣政府는 臺灣經濟의 大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나 臺灣의 產業空洞化를 방지해야할 필요성도 절실히 느끼고 있다. 또한 大陸과의 정치적 관계에서 수세에 놓인 臺灣으로서는 경제발전의 측면에서 앞서 있다는 점을 大陸과의 協商에 있어서의 지렛대로 사용해야 하는 입장에서 大陸과의 交流를 제한해야할 필요성도 가지고 있다. 결국 臺灣政府는 大陸과의 經濟交流에 대하여 위와 같이 상충하는 두 정책 목표에 직면하고 있으며, 결국 적절한 타협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

---

7) Chiu(1992), p.20

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臺灣政府는 민간의 경제적 요구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제3국을 거치는 間接形式의 經濟交流를 실질적으로 허용하되, 直通航, 直交易, 直接投資 등을 금지하고 또한 과급효과가 큰 일부 품목의 交易 및 일부 업종의 投資를 억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 2. 臺灣의 大陸投資에 대한 兩側의 制度的 裝置

앞 절에서 소개한 바와 같은 兩側의 基本立場 및 兩岸間 經濟交流에 대한 接近方式의 차이에 따라, 臺灣企業의 大陸投資에 대해서도 양측의 接近方式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본·기술·경영이 결합되어 移轉하는 海外直接投資(foreign direct investment)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일단 행해지면 어느정도 지속성을 가지며 타 부문(예: 무역, 인적교류)에 대한 과급효과도 가지는 投資에 대해서는 양측 입장의 차이가 보다 극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의 차이를 배경으로 하여 나타난 양측의 제도적 장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1. 大陸의 臺灣投資 誘致制度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은 大陸側의 對臺灣 교류 확대정책은 臺灣企業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中國은 이미 80년대 초부터 臺灣企業의 투자를 유치하려는 구체적인 정책을 시도하였으나, 당시에는 상징적인 조치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sup>8)</sup>그러

8) 中國 國務院은 1983년 4월 ‘臺灣同胞의 經濟特區 투자에 대한 3개항의 우대조치’를 발표하여 4개 經濟特區(후에 海南島도 포함)에의 臺灣投資에 대하여, 조세우대, 30% 내수 판매 허용, 토지사용료상의 우대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적대적인 兩岸關係가 지속되고 있었고, 臺灣企業의 海外投資도 초

나 지리적으로 臺灣과 마주보고 있고 대부분의 臺灣人의 故鄉이기도한 福建省, 특히 臺灣과 인접한 廈門經濟特區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臺灣企業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하였다.<sup>9)</sup> 이를 위하여 廈門市는 1985년에 臺灣投資企業에 대하여 4년간 소득세 면제 및 내수시장 개방을 발표하기도 하였다.<sup>10)</sup> 그러나 본격적인 臺灣投資의 유치는 臺灣政府가 臺灣人의 대륙방문을 허용하고, 또한 外換統制를 크게 자유화하는 조치를 취한 1987년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즉 中國國務院은 1988년 7월에 22개항의 '臺灣同胞 投資獎勵 規定'을 발표하여 공식적으로 臺灣企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였다 (동 규정은 [附錄2]에 번역·수록하였음).

이 규정은 臺灣企業 투자의 法的인 保護와 몇 가지 원칙적인 측면에서 臺灣投資企業에 제공되는 우대조건을 명시한 것이었다. 同 規定은 먼저 법적인 보호 측면에서 臺灣投資者의 投資資產, 그로부터의 收益 및 기타 합법적 권익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또한 그것의 讓渡 및 相續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을 명시하였고(7조), 國有化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한편(8조), 公共의 필요에 의해 收用하게 될 경우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報償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9조), 合法的 利潤과 清算 후의 資金은 합법적으로 국외반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였다(10조). 한편 臺灣投資企業에 제공되는 우대조건으로서는 먼저 投資 許容業種이나 方法이 一般 外國人 投資者에 비해 더 광범위할 뿐 아니라 융통성이 크고<sup>11)</sup> 제2조, 3조, 4조, 經濟特區내의 投資와 같은 수준에서 각종 설비,

---

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위의 조치는 선전효과를 갖는 것에 그치고 말았다고 할 수 있다.

9) 中國측 자료에 의하면 福建省 지역에 있어서 최초의 臺灣企業 投資는 1983년에 이루어졌다고 보고되고 있다. 顧銘(1993), p.1 참조.

10) Chiu(1992), p.20.

11) 명시적으로 株式, 債券, 不動產 開發 및 經營 등 분야에 대한 投資가 허용하고 있고, 이외에도 臺灣投資者가 어떤 분야든 신청하여 해당지역의 주관부문과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제4조)

차량 및 생활용품의 免稅輸入을 허용하였고(11조), 臺灣側 投資者가 이 시장에 취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14조), 투자허가 신청후 45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다(19조). 또한 投資期限의 제한을 없애 투자자가 자유롭게(혹은 파트너와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며(13조), 명시적으로 각 지역에 이익단체로서의 '臺灣投資企業協會'의 결성을 허용하는(18조) 등 당시에 있어서 一般 外國人投資者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大陸의 中央政府가 위 규정을 발표한 이후, 여러 지방정부 특히 臺灣投資 유치에 유리한 여건을 갖춘 各省·市政府들은 다투어 臺灣投資企業 優待措置를 발표하고 있다. 이들 조치의 주요내용은 대체로 '臺灣企業投資區'를 설치하여 臺灣投資에 대하여 稅制 및 기타 行政上의 優待를 제공하는 것이다.<sup>12)</sup> 稅制面에 있어서는 각종 地方稅의 면제 및 준조세 성격의 土地使用料의 경감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이외에 투자허용 업종, 내수판매 비율 및 기타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中國이 '合資企業法'의 개정 및 기타 여러 조치를 통하여 서비스업, 토지개발 등으로의 투자개방업종의 확대, 투자기한 제한의 완화, 合資企業의 외국측 이사장 허용, 內需市場 개방의 점진적 확대 등을 시행함에 따라, 臺灣投資企業이 다른 외국인 투자기업에 비해 制度的으로 누리는 特惠는 거의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中國의 경우 투자허가 과정으로부터 가동단계에 이르기까지 명시적으로 제도화되지 않고 정부기관과의 '協商'이나 비공식적인 '人脈關係'를 통하여 결정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臺灣投資企業이 실제에 있어서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것은 높은 개연성을 갖는다. 특히 內需市場에 대한 接

12) '臺灣企業投資區'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廈門 經濟特區가 國務院의 비준을 받아 1989년 5월에 설치한 杏林地區(경공업 중심)와 海滄區(중화학공업 중심) 등을 들 수 있다. 이 '臺灣投資區'의 설치는 臺灣으로부터 관련업종 기업의 집단적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동기도 작용하였다.

近과 不動産 開發 등의 서비스 업종에 대한 투자 등에 있어서는 臺灣企業이 보다 융통성있는 대우를 받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sup>13)</sup>

## 2.2 臺灣의 大陸投資에 대한 制度的 裝置

臺灣政府는 1980년대 후반까지 臺灣企業의 對大陸 直接投資를 금지한다는 기본 원칙이외에 특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이후 제3국을 통한 對大陸 投資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특히 1987년 10월의 大陸(親戚)訪問 허용 이후에 大陸投資가 급속히 늘어나는 현상을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臺灣政府는 1989년 10월에 제3국을 경유하여 이루어지는 大陸과의 '間接的인' 交易·投資·技術協力を 허용하는 規定을 발표하여, 처음으로 제3국 경유 大陸投資를 公式許容하였고, 이어서 1990년 10월6일에는 「對大陸地區 投資 및 技術協力에 관한 管理方法」을 공표하여, 大陸投資에 대한 制度的 裝置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 規定은 大陸投資가 허용되는 업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sup>14)</sup> 또한 1991년 4월8일까지 기존 투자업체를 포함하는 모든 대륙투자 사업을 臺灣 經濟部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즉 이 규정은 당시까지 특별한 제도적 장치없이 암묵적으로 인정하던 大陸投資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관리·규제해야하는 현실적 요구에 따라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조치의 제정은 1990년 초 臺灣의 최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Formosa 플라스틱社(회장: 王永慶)가 大陸(廈門지역)에 70억달러 규모

13) 필자가 臺灣企業이 누리는 상대적인 우대조건에 관하여 의견을 나눈 臺灣 中華經濟研究院의 전문가들인 陳麗瑛, 鍾琴, 高長 등도 대체로 이와 같은 견해를 표시하였다.

14) 同 規定의 공표당시에는 주로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해당하는 3319업종(HS 8 단위기준)의 大陸投資를 허용하였다.

의 石油化學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sup>15)</sup>등 臺灣企業의 투자가 본격화하는 것에 크게 자극받아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臺灣政府는 그 후 실효성 있는 大陸投資의 관리·규제를 위하여 規定을 보다 현실화하는 동시에 그 적용을 보다 엄격히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臺灣政府는 투자 허용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동시에 投資許容業種을 점차 확대하면서 무허가 투자기업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投資許可基準에 있어서는 대상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 먼저 명시적인 投資許容業種(positive list)과 投資禁止業種(negative list)을 열거하는 한편, 이 두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은 事案別 審査對象으로 분류하고 있다.(보다 상세한 내용은 [附錄3]을 참조)

먼저 投資許容業種은 원칙적으로 經濟部에 신고함으로써 투자가 허용되는 것으로서, 1993년 3월 현재 농업부문에 130항목(HS 8단위 기준), 제조업부문에 3811항목(HS 8단위 기준), 서비스업 부문에 14항목(臺灣의 產業中分類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投資禁止業種은 전략적·군사적인 중요성을 갖거나 臺灣經濟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업종을 포함하고 있는데, 허용업종과 동일한 기준으로 농업부문에 9항목, 제조업부문에 299항목, 서비스업부문에 4항목(金融, 證券·先物業, 保險業, 教育訓練 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위 두 영역에 속하지 않는 유형의 투자는 사안별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해당사업 허가여부의 기준으로서 臺灣地域內 生産 및 投資의 지속 여부와 大陸投資의 臺灣內 投資規模의 일정 비율 이내로의 제한 등이 제시된 것이 특기할 만하다.

한편 許可를 받지않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300만~1500만 대만달러<sup>16)</sup>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해당 투자사업의 정지를 명령하도록 벌칙을

15) 이 대규모 투자계획은 후에 臺灣政府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16) 이는 약 12~60만 US달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臺灣의 中小企業들에게는 매

구체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까지 臺灣當局의 허가를 받지않은 投資가 상당수에 달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규정의 엄격한 실행여부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證券市場 上場企業의 경우 株主總會의 결의를 통해서만 大陸投資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종래에는 이 사회의 결의로 가능), 또한 明示的으로 大陸投資事業의 자금조달을 위한 株式·轉換社債의 發行을 금지하는 등 大陸投資를 보다 어렵게하는 장치를 새로 도입하였다.

결국 臺灣當局은 民間企業의 大陸投資에 대하여 과거와 같은 소극적 방임과 비공식적이고 자의적인 개입방식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방향 제시와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른 규제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大陸投資 規制의 基準으로서 大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방지와 臺灣內 産業空洞化의 방지를 통한 臺灣經濟의 지속적 성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臺灣企業의 속성과 臺灣의 外換去來 자유화 정도 및 大陸과의 人的交流 증대추세를<sup>17)</sup>고려할 경우 위와 같은 제도가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갖게 될지는 의문을 갖게 된다고 하겠다.

한편 최근에 臺灣이 조만간 大陸投資 許可制度를 대폭 개정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타났다.<sup>18)</sup>이 報道에 따르면 臺灣 經濟部는 조만간 기존의 三元的인 投資許可制度를 전면 개편하여 이른바 ‘限定禁止制(negative list)’ 單一方式, 즉 投資禁止業種만을 명시한 후 그외의 모든 業種의 投資를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政策 轉換은 臺灣政府가 大陸投資에 대한 기존의 태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市場의 작용에 따른 大陸投資 增大라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大陸投資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誘導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내주고 있다.<sup>19)</sup>즉 이는 臺灣經濟의 大陸과의 地域的 分業, 大

우 큰 금액이라 할 수 있다.

17) 臺灣人の 大陸訪問은 1991년 이후 年 100만명 이상에 달하였고, 1993년 상반기까지 延人員 450만명에 달하고 있다.

18) 臺灣 經濟日報 1993. 11. 7

陸內 地域間 重點 投資業種 分化, 臺灣의 產業別 組織을 통한 政府의 指導 強化 등을 추진하기 위한 선결 조치하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經濟論理에 입각한 이러한 방침이 입장이 다른 부처와의 조정을 거쳐 大陸委員會에서 최종 결정되어 시행되기 까지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 19) 또한 이러한 政策變化는 기존의 制度가 의도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 따른 대응이라고도 보여진다. 즉 企業들이 政府의 許可 여부에 관계 없이 第三國을 통하여 원하는 業種의 大陸投資를 실시하고 있는 現實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 Ⅲ. 臺灣企業 大陸投資의 現況과 特徵

#### 1. 臺灣의 海外直接投資 推移

臺灣의 海外直接投資는 1960년대에 시작되었지만, 본격화된 것은 1980년대 중반이후라고 할 수 있다. <表 Ⅲ-1>은 臺灣의 海外直接投資 推移

<表 Ⅲ-1> 臺灣의 海外直接投資 推移

	허 가 기 준 <sup>1)</sup>		국제수지기준 <sup>2)</sup>
	건 수	금액(백만US달러)	금액(백만US달러)
1959 - 84	196	173.6	n/a
1985	17	41.3	80
1986	32	56.9	66
1987	45	102.8	704
1988	109	218.7	4,120
1989	153	931.0	6,751
1990	2,542 <sup>3)</sup>	2,153.8 <sup>3)</sup>	5,243
1991	601	1,830.0	1,854
1992	564	1,134.3	1,691

註 : 1) 臺灣 經濟部 投資審議委員會의 인가기준(1990년부터는 일반 海外投資와 對大陸 投資의 합계)

(자료: 中華民國 華僑及外國人投資 技術合作 對外投資 對外技術合作 統計年報, Dec. 1992)

2) 臺灣 國際收支表(Balance of Payment)상의 海外直接投資 금액

(자료: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1993, pp.183-186)

3) 1990년 통계에는 1990년까지의(1983년 이후) 對大陸 投資 누계가 (2,227건, 6억2백만달러) 새로이 신고되어 포함된 것임.

를 許可 基準과 國際收支 基準으로 나누어 나타내주고 있는데, 양 기준에 의한 통계 모두 1986년 이후 海外直接投資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두 기준의 통계에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한편으로 실제에 있어 상당 수의 海外直接投資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허가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 國際收支表상에서의 海外直接投資 통계가 일부 海外間接投資나 기타형식의 해외 자금유출을 포함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許可 基準에 따른 통계는 실제 海外直接投資 규모를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반면 國際收支基準의 통계는 실제의 규모보다 다소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추정은 投資誘致國(host countries)의 外國人 直接投資 통계를 통하여 역추적하는 경우에도 드러나는데, 東南亞 諸國과 中國의 경우 臺灣의 허가 기준 통계보다 훨씬 많은 투자가 臺灣으로부터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表 Ⅲ-3〉, 〈表 Ⅲ-4〉 참조).

한편 臺灣의 海外直接投資가 1986년 이후 급격하게 증대한 것은 이 시기에 나타난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表 Ⅲ-2〉에 나타난 臺灣의 주요 巨視經濟 指標를 살펴보면, 臺灣은 이 기간중 國際收支 黑字의 누증에 따라 外換保有庫의 급증과 換率의 지속적 하락을 경험하였다. 臺灣通貨의 對美달러 換率은 1 US달러당 1985년말의 39.8元에서 1992년말에는 25.4元으로 40% 가까이 평가절상되어 海外投資의 유인이 크게 증대되었다. 또한 臺灣의 製造業 賃金上昇率은 1985년 이후 연평균 10%를 상회하였고, 換率 변화를 고려한 美달러 평가 賃金上昇率은 1986-89 기간중 年平均 25%에 달하였다. 또한 失業率 통계에서도 나타나듯이 급격한 임금상승이 나타난 1980년대 중반이후에도 거의 완전고용을 유지하고 있어서, 低附加價値 業種의 심각한 인력부족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같은 시기에 나타난 높은 地價 上昇, 빈번한 노사분규, 환경관련 규제의 강화 및 주요 선진국의 수입규제 강화도 臺灣企業의 海外投資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

〈表 Ⅲ-2〉

臺灣의 主要 巨視經濟指標 推移

	GDP성장율 (%)	저축율 (%)	투자율 (%)	임금상승율 (%)	실업율 (%)	환율 NT\$/((US\$)	외환보유고 (억US달러)
1980	7.3	32.3	33.8	-	1.2	37.8	-
1985	5.0	33.6	18.7	4.3	2.9	39.8	225.6
1986	11.6	38.5	17.1	10.1	2.7	35.5	463.1
1987	12.3	38.5	20.1	9.9	2.0	28.5	767.5
1988	7.3	34.5	22.8	10.9	1.7	28.1	739.0
1989	7.6	30.6	22.3	14.6	1.6	26.1	732.2
1990	4.9	29.2	21.9	13.5	1.7	27.1	724.4
1991	7.2	29.5	22.2	11.0	1.5	25.7	824.1
1992	6.6	28.0	23.9	10.3	1.5	25.4	823.1

資料 :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1993.

단 外換保有庫 統計는 江丙坤, 中華民國 經濟發展의 概況和政策, 1993.2

국 이와 같은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1980년대 중반이후 總貯蓄率의 持續的 低下 및 總貯蓄率에 크게 못미치는 國內投資率을 기록하게 되었고, 이것이 곧 海外直接投資의 급증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한편 臺灣企業의 海外直接投資 대상 지역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表 Ⅲ-3〉은 臺灣 經濟部의 허가 기준에 따른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분포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최근까지 美國과 ASEAN국가들에 대한 투자가 대종을 이루어 왔으나, 1980년대 중반이후 유럽지역으로의 多邊化와 1990년 이후 中國 대륙으로의 투자 급증이 새로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90년과 1991년을 정점으로 對 美國 및 對東南亞 투자가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된 반면, 對大陸 投資는 同 시기부터 급증하고 있는 것은 臺灣企業의 海外投資 地域이 전반적으로 大陸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투자대상국 전환 현상은 특히 東南亞 國家와 大陸 사이에 보다 뚜렷하다

〈表 Ⅲ-3〉

臺灣 海外直接投資의 地域別 分布 推移<sup>1)</sup>

(단위 : 件, 백만US달러)

		1959-86	87	88	89	90	91	92	누 계
동남아 <sup>2)</sup>	건수	70	13	34	62	109	100	68	456
	금액	71.6	14.8	52.7	276.9	519.7	708.1	301.8	1,935.5
미 주	건수	99	22	43	59	123	134	91	492
	금액	171.7	70.3	125.3	553.4	669.0	369.2	202.2	2,036.2
유 럽	건수	6	3	16	13	35	49	43	160
	금액	4.5	10.2	17.0	73.3	265.9	350.2	292.8	1,009.7
중 국	건수					2,227 <sup>3)</sup>	237	264	2728
	금액					601.6 <sup>3)</sup>	174	247	1,022.6

註 : 1) 臺灣經濟部 投資審議委員會 許可 基準(Chiu and Huang(1993)에서 재인용)

2)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및 베트남(1991년 이후에만)을 포함.

3) 과거(1983년)로부터 1990년까지의 누계임. 1990년 10월부터 기존 大陸投資의 등록을 의무화한데 따라 신고한 것임.

고 할 수 있는데, 이를 投資誘致國의 통계를 통하여 살펴본 것이 다음의 〈表 Ⅲ-4〉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臺灣의 海外直接投資 통계는 投資誘致國의 통계가 보다 실제에 가깝다는 추정을 하게 되지만, 반면 投資誘致國의 통계는 국가마다 그 기준이 다르다는 단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 어쨌든 이 통계에 의할 경우에도 臺灣企業의 東南亞 國家에 대한 直接投資는 1990년의 684건, 40억3천만달러를 정점으로 하여 그 이후에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對大陸 投資는 同 시기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1992년에는 6430건, 55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결국 위의 여러 통계에 비추어 볼때 1990년 이후 中國이 臺灣의 주요 海外投資地域으로서 東南亞 國家들을 대체하고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다음 절 이하에서는 이와 같이 급증하고 있는 臺灣企業의 大陸投資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表 III-4〉 臺灣의 對中國 및 東南亞 直接投資 推移<sup>1)</sup>

(단위 : 件, 백만달러)

구 분		1959-86	87	88	89	90	91	92	누 계
동 남 아 <sup>2)</sup>	건 수	352	185	522	646	684	445	254	2,777
	금 액	805.7	416.0	2,611.8	2,014.9	4,029.1	3,423.4	1,995.9	14,551.2
	평균규모		2.25	5.00	3.12	5.89	7.69	7.85	5.24
중 국	건 수		80 <sup>3)</sup>	435	552	1,011	1,737	6,430	10,245
	금 액		190 <sup>3)</sup>	520	437	892	1,391	5,540	8,970
	평균규모		2.38 <sup>3)</sup>	1.20	0.79	0.88	0.80	0.86	0.88

註 : 1) 투자유치국의 발표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음. 中國의 경우에는 계약기준의 통계이고, 동남아국가는 허가기준의 통계임.

2)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을 포함.

3) 1983-87년까지의 누계임.

資料 : Chiu and Huang (1993)에서 재인용.

## 2. 臺灣의 對大陸投資 推移

臺灣企業의 對大陸 直接投資(foreign direct investment)는<sup>20)</sup> 1983년에 시작되어 그 후 간헐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본격화된 것은 1988년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주된 요인은 1987년 10월 臺灣政府가 臺灣住民의 大陸內 친척방문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륙방문을 전반적으로 허용한 것과 역시 1987년부터 外換統制를 크게 自由化하여 기업과 개인을 막론하고 1년에 500만달러까지 외환의 반출을 허용

20) 臺灣企業의 對大陸 投資는 제3국을 거쳐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에서 흔히 間接投資(indirect investment)로 묘사되지만, 전문적인 용어에 있어서 海外 間接投資는 흔히 증권투자(portfolio investment)를 뜻하고, 臺灣企業의 大陸投資는 성격상 海外直接投資(foreign direct investment)와 동일하므로 본고에서는 直接投資라는 어휘를 사용하기로 한다.

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中國이 1988년 7월 「臺灣同胞 投資獎勵 規定」을 공표하여 臺灣投資에 대한 법적인 보호와 여러 우대조건을 제공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臺灣當局의 三不政策 실시에 따라 臺灣企業의 大陸投資는 모두 형식적으로는 제3국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고,<sup>21)</sup> 그 구체적인 투자경로는 매우 다양하다. 曹小衡(1993)은 臺灣企業의 大陸投資가 나타내는 경로로서 ① 臺灣 經濟部의 허가를 거쳐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② 臺灣企業이 수출대금중 일부를 大陸投資로 전용하는 것, ③ 觀光 등의 명목으로 여행하면서 자금을 소지하고 출국하여 大陸에 投資하는 것, ④ 일인당 매년 500만달러까지 외화반출이 가능한 것을 이용하여, 먼저 홍콩의 非銀行金融機關 體系의 投資諮問會社에 예치하였다가 적당한 시기에 대륙에 투자하는 것, ⑤ 多重國籍을 가진 臺灣 企業家가 臺灣政府의 규제는 회피하고, 大陸에서는 대만의 명의로 투자하는 것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경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臺灣企業의 大陸投資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다음의 <表 III -5>는 각종 기준에 따른 臺灣企業의 對大陸 投資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中國側의 계약기준 통계에 따르면 臺灣의 투자는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1990년부터는 급속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 1993년 상반기까지의 누계로 15,000여 건, 약 136억달러의 투자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다.<sup>22)</sup> 한편 실

21) 제3국을 거쳐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3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그 현지법인이 中國에 투자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100만달러 미만의 大陸投資는 제3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되고, 다만 투자금액이 제3국을 거쳐 大陸에 반입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되었다.

22) 中國의 경우 계약기준의 外國人直接投資 통계가 가장 상세히 발표되고, 실제 이용 기준의 통계가 총액 등 부분적으로만 발표되고 있는데, 총액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일단 계약된 외국인 투자는 계약이후 2년내에 계약금액의 약

<表 III-5>

臺灣企業의 對中國 投資 推移

(단위 : 件, 백만달러)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상반기	누 계
중국측 통계								
<계약기준> 건 수	80 <sup>1)</sup>	435	552	1,011	1,737	6,430	4,891 <sup>3)</sup>	15,136
금 액	100 <sup>1)</sup>	520	437	892	1,391	5,540	4,637 <sup>3)</sup>	13,607
<실제이용기준>금 액	n/a	n/a	n/a	222	466	1,051	n/a	1,900 <sup>4)</sup>
대만측 통계(신고기준)								
건 수				2,227 <sup>2)</sup>	237	264	1,649	4,437
금 액				601.6 <sup>2)</sup>	174	247	666.9	1,690

註 : 1) 1987년까지의 누계임

2) 1990년까지의 누계임

3) 文匯報 1993. 12.13

4) 1992년말까지의 누계, Financial Times 1993.8.9

資料 : 계약기준 통계는 經濟前瞻(中華經濟研究院刊), July 1993, p.87(中國 對外經濟貿易部 자료에 근거)

실제이용기준 통계는 中國統計年鑑, 1992, 1993년호

臺灣측 통계는 中華民國 華僑及外國人投資 技術合作 對外投資

對外技術合作 統計月報·年報 1991, 1992, 1993.6

제이용 기준의 통계에 의하면 臺灣의 투자는 1990년부터 급속한 증가를 나타내어 1992년 末까지 누계로 19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臺灣 經濟部에 신고·허가를 거친 大陸投資는 1993년 상반기까지의 누계로 4,400여건 17억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결국 臺灣의 對大陸 투자는 위에서 지적한 이유로 인하여 그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1990년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

50% 정도가 실제 투자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1991년 이후에는 부동산 개발투자 등의 계약투자금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그 실현율이 크게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고 있으며, 또한 여러 정황 증거로 미루어 보아 臺灣 經濟部에 등록된 것은 실제 투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臺灣 經濟部 신고기준의 통계가 1993년 들어 급증한 것은 일부 실제투자의 증가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1993년 들어 臺灣政府가 大陸投資에 대한 관리 및 무허가 투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 데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臺灣 經濟部 投資審議委員會가 1993년 1~10월 기간중 8,969건, 28억3천만달러의 大陸投資를 허가하였는데, 이중 8억9천만달러만이 新規投資이고 나머지는 이미 投資가 이루어졌으나 이 기간중 신고된 것이라는 최근 보도가 있었다.<sup>23)</sup>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臺灣企業의 大陸投資는 1993년 중반 현재 실행기준으로 약 30~40억달러에 이른다는 보수적인 추정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臺灣企業의 大陸投資가 대규모로 나타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앞절에서 소개한 바와 같은 여러 국내의 경제여건의 변화가 臺灣의 海外投資를 전반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량의 海外直接投資는 먼저 美國과 ASEAN 국가들로 향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大陸訪問이 허용되고 大陸과의 전반적인 적대관계가 완화되는 등 大陸投資에 대한 經濟外的 장애 요소들이 점차 완화되고, 또한 中國의 對外開放이 가속화되면서 투자지역이 中國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즉 경제외적 여건이 개선되면서 臺灣經濟와 中國經濟가 가지고 있는 보완성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臺灣企業의 大陸投資가 활성화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臺灣企業의 大陸投資를 촉발하고 있는 臺灣經濟와 中國經濟의 相互 補完性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기본적으로 開放된 小國經濟로서 지난 30여년에 걸쳐 輸出主導의 高度成長을

23) Asian Wall Street Journal 1993.11.16.

이러한 新興工業國인 臺灣經濟와 內向型의 大國經濟로서 1970년대 말에 이르러야 開放을 시작한 低開發國으로서의 中國經濟는 여러 측면의 보완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大陸은 풍부한 天然資源과 勞動力 그리고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基礎技術을 보유한 상태에서 輸入代替性의 重工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지만, 國際市場의 흐름이나 商品化를 위한 應用技術 및 大量生産 技術의 측면에 있어서는 크게 뒤떨어진 상태에 있었다. 반면 臺灣은 빈약한 부존자원과 협소한 국내시장에도 불구하고, 國際市場의 요구에 민첩하게 부응하면서 電子·纖維·化學 등의 特化된 業種에서 높은 수준의 生産技術과 國際市場 進出能力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 결과 방대한 外換保有庫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臺灣은 그동안의 高度經濟成長의 결과로 나타난 賃金上昇 및 勞動力 不足, 높은 地價 등에 대응하여 產業構造를 조정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臺灣의 풍부한 資本, 뛰어난 商品 生産技術 및 國際市場 진출 능력과 大陸의 풍부한 勞動力 및 資源, 방대한 市場規模, 높은 수준의 基礎技術이 결합할 경우 兩 經濟에 모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假說이 성립하게 된다.

결국 臺灣企業에 대하여 大陸은 이상과 같은 經濟的 補完성과 더불어 言語·文化상의 同質성과 특별히 臺灣投資에 대하여 여러 실질적인 우대조건을 제공하는 매우 매력있는 투자 대상지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大陸投資가 1992년부터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中國이 1992년초 鄧小平의 이른바 ‘南巡講話’를 계기로 改革·開放의 深化와 經濟成長의 加速化가 이루어지고 또한 각 地方이 경쟁적으로 外國人投資를 유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 바 크다. 특별히 각 地方이 不動産 開發을 포함하는 각종 서비스업에 대하여 새로이 外國人投資를 개방함에 따라 文化的 同質성과 地方政府 관리들과의 人脈을 바탕으로 臺灣企業의 진출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이와 같은 臺灣企業의 大陸投資 증가는 中國의 입장에서 臺灣投資의

〈表 III-6〉

## 主要國의 對中國 直接投資 推移(I) 〈契約基準〉

(단위 : 件, 백만US달러, ( )은 %)

		1988	1989	1990	1991	1992	1979-92 누 계
총외국인 직접투자	건 수	5,945	5,779	7,273	12,978	48,764	90,791
	금 액	5,297	5,600	6,596	11,977	58,124	110,461
홍콩· 마카오 <sup>1)</sup>	건 수	4,771 (80.3)	4,244 (73.4)	5,001 (68.8)	8,879 (68.4)	31,892 (65.4)	63,405 (69.8)
	금 액	3,583 (67.6)	3,244 (57.9)	3,943 (59.8)	7,507 (62.7)	41,531 (71.5)	74,101 (67.1)
대 만	건 수	435 (7.3)	552 (9.6)	1,011 (13.9)	1,737 (13.4)	6,430 (13.2)	10,245 (11.3)
	금 액	520 (9.8)	437 (7.8)	892 (13.5)	1,391 (11.6)	5,540 (9.5)	8,970 (8.1)
미 국	건 수	269 (4.5)	276 (4.8)	357 (4.9)	694 (5.3)	3,265 (6.7)	5,265 (5.8)
	금 액	370 (7.0)	641 (11.4)	358 (5.4)	548 (4.6)	3,121 (5.4)	8,131 (7.4)
일 본	건 수	237 (4.0)	294 (5.1)	341 (4.7)	599 (4.6)	1,805 (3.7)	3,696 (4.1)
	금 액	276 (5.2)	439 (7.8)	457 (6.9)	812 (6.8)	2,172 (3.7)	6,082 (5.5)
한 국	건 수	.	.	.	.	650 (1.3)	943 (1.0)
	금 액	n/a	n/a	n/a	n/a	417 (0.7)	619 (0.6)

1) 이 중 97% 이상이 홍콩의 투자이며, 마카오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

資料 : 對外經濟貿易年鑑(中國) 各年號, 1992년 통계는 China Economic News, May 24, 1993

臺灣의 投資統計는 經濟前瞻 31호 (1993.7), p.87(中國 對外經濟貿易部の 발표에 기초).

韓國의 投資統計는 위 China Economic News 및 孫漢超(1993), p.4

중요성이 크게 증대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의 <表 Ⅲ-6>과 <表 Ⅲ-7>의 中國의 國別 外國人直接投資 統計가 보여주듯이, 臺灣은 1990년부터 계약기준으로 홍콩에 이어 제2위의 위치로 올라섰고, 1992년부터는 실행기준으로도 제2위의 위치에 등장하였다. 또한 1992년말까지의 계약기준 누계로 볼때도, 臺灣은 中國의 전체 外國人直接投資 중 건수로는 11.3%, 투자금액으로는 8.1%를 차지하여 對中國 投資에 있어서 훨씬 긴 역사를 가진 美國과 日本을 제치고 제2위의 위치에 있다. 실행기준 누계로는 아직도 미국과 일본에 뒤져있지만, 1990년 이후 계약기준 투자가 美·日에 훨씬 앞서 있고 이미 1992년부터 실행기준의 투자도 美·日을 앞섰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臺灣이 중국에게 홍콩 다음으

<表 Ⅲ-7> 主要國의 對中國 直接投資 推移(Ⅱ) <實行基準> (단위 : 백만US달러, ( )은 %)

	1988	1989	1990	1991	1992	1984-92 누 계
총외국인 직접투자	3,193.7	3,392.6	3,487.1	4,366.3	11,007.5	33,010.7
홍콩· 마카오*	2,095.2 (65.6)	2,077.6 (61.2)	1,913.4 (54.9)	2,486.9 (57.0)	7,709.1 (70.0)	20,705.7 (62.7)
일 본	514.5 (16.1)	356.3 (10.5)	503.4 (14.4)	532.5 (12.2)	709.8 (6.4)	3,577.2 (10.8)
미 국	236.0 (7.4)	284.3 (8.4)	456.0 (13.1)	323.2 (7.4)	511.1 (4.6)	3,001.8 (9.1)
대 만	n/a	n/a	222.4 (6.4)	466.4 (10.7)	1,050.5 (9.5)	1,900.0 <sup>1)</sup> (5.8)
한 국	n/a	n/a	n/a	n/a	119.5 (1.1)	276.0 <sup>2)</sup> (0.8)

註 : 1) Financial Times, 9 August 1993

2) 孫漢超(1993), p.4

資料 : 中國統計年鑑 各年號

로 중요한 外國人投資 提供國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홍콩이 中國의 전체 외국인투자 중 65~70%를 차지하고, 臺灣의 투자가 전체의 10% 이상에 달하게 되었으며 그외에도 기타 동남아 등 각 지역으로부터 華僑들의 투자가 상당액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中國의 전체 外國人投資중 85% 정도가 넓은 의미의 '華僑圈'의 투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현상은 한편으로 中國이 유치한 外國人投資가 고급기술 도입의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동시에, 다른 한편 中國을 중심으로하는 이른바 '中華經濟圈'의 형성을 시사해 주는 핵심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 臺灣企業 大陸投資의 全般的 特徵

#### 3.1 投資動機

현재까지 大陸에 대한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臺灣 中小企業의 投資動機는 大陸의 풍부한 低賃 勞動力 활용이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言語·血緣·文化上的 同質性과 低價의 土地·工場의 활용이라는 動機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表 III-8〉 참조). 이밖에 외국 고객(OEM 구매선)의 요구, 구식 유희설비의 활용, 현지 내수시장 진출, 대륙측이 제공하는 각종 특혜, 풍부하고 값싼 원자재 활용 등도 투자동기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이다. 결국 최근까지의 臺灣企業 大陸投資는 대부분 값싼 노동력·토지 및 문화적 동질성 등 現地 特有的의 要素(location specific inputs)를 활용하여 生産費 절감을 추구하는 이른바 生産效率追求型(efficiency-seeking) 投資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유형의 投資는 종래 臺灣商品을 수출하던 제3국 시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表 Ⅲ-8〉

臺灣企業의 大陸投資 動機

〈조사 1〉 <sup>1)</sup>		〈조사 2〉 <sup>2)</sup>	
대륙투자환경의 장점	선택비중	투 자 동 기	선택비중
풍부한 저임 노동력	93%	저임 노동력 활용	95.8%
동일언어·혈연에 따른 의사소통의 용이성	75%	언어·문화상의 유사성	82.3%
저가의 토지 및 공장	63%	저가 토지활용의 용이성	58.3%
방대한 대륙내수시장	43%	외국 구매자의 요구	40.6%
구식기계의 충분한 활용	31%	모기업 위험의 분산	33.3%
값싸고 풍부한 원자재	31%	구식·유휴설비의 활용	32.3%
중국측의 각종 특혜제공	31%	투자우대조건	31.3%
		현지시장판매	26.0%
		제3국제공 GSP활용	16.7%
		원자재 확보	4.2%

- 1) 〈조사 1〉은 臺灣의 全國工業總會가 1991년 2500개의 中小企業을 대상으로 실시한 大陸의 投資環境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Hsiao and So(1992), p.30에서 재인용).
- 2) 〈조사 2〉는 臺灣 中華經濟研究院의 研究員 嚴宗大·李惠琴이 대륙에 투자한 96개 신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임.  
(Chiu and Chung (1992), p.7에서 재인용)
- 3) 두 조사 모두 투자동기를 복수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음.

한편 美國·日本·유럽 등 선진국 기업들이 對中國 投資에서 중시하고 있는 現地 內需市場 進出의 動機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企業特有的 資產 혹은 獨占의 競爭要素를 바탕으로한 多國籍企業의 투자행태와 國內 要素價格의 변화에 따라 受動的 立場에서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新興工業國 기업의 투자행태의 차이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大陸投資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大陸投資에 대한 제약이 완화될 경우 투자를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보이는 臺灣의 大企業들은 대륙의 시장잠재성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다.<sup>24)</sup> 실제로 統一(President)<sup>25)</sup>, 味全 등 飲食料品 業種의 大企業을 필두로 하여 電子·通信業種, 自動車部品(타이어 등) 및 오토바이, 化學業種의 大企業들이 이미 大陸 內需市場 진출을 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文化·言語上의 同質性, 經濟發展 段階上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작은 차이, 內需市場 開放에 있어서 臺灣企業에 보다 큰 융통성을 부여하는 大陸의 投資環境 등이 더불어 작용하여, 臺灣의 企業이 大陸의 內需市場 진출을 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대체로 投資 母企業의 規模에 따라 生産效率追求型 投資와 市場追求型(market-seeking) 投資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러나 臺灣企業 大陸投資가 증대되고 兩岸間의 人的交流가 증가하면서 投資動機 자체가 複合化(comprehensive)되고, 母企業 規模에 따른 위와 같은 구분이 점차 약해지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母企業 規模보다는 사업성격에 따라 輸出型和 內需型の 구분이 이루어지고, 또한 여러 投資動機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 3.2 投資規模

앞의 <表 III-4>에 나타난 臺灣企業 大陸投資의 件當 平均規模는(대륙 발표 계약기준) 88만달러로서, 역시 같은 表에 나타난 對東南亞 投資의 平均規模인 520만달러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한편 이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臺灣企業의 大陸投資 件數는 훨씬 긴 역사를 가진 對東南亞 投資

24) Hsiao and So(1992)가 인용하고 있는 (p.30) 臺灣 1000개 대기업의 대륙투자 환경 평가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臺灣의 大企業들은 대륙의 시장 잠재성을 투자환경상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있다.

25) 統一그룹의 경우 大陸에 9개 사업, 7700만달러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Asian Wall Street Journal, 1993.12.6)

(2700여건)의 4배 가까운 10,000여건에 달하고 있다. 결국 臺灣企業의 大陸投資는 小規模의 投資가 다수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投資主體가 대부분 臺灣의 中小企業임을 알 수 있다. 즉 臺灣의 경우 경제전반에 있어 中小企業의 비중이 매우 높지만<sup>26)</sup> 大陸投資에 있어서는 中小企業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臺灣企業의 투자규모에 대한 中國側의 상세한 통계는 제공되어 있지 않다. 다만 臺灣의 투자가 몰리고 있는 廈門의 경우 평균 투자규모는 288만달러로 전체 평균보다 훨씬 크지만 총 투자건수의 약 65%가 100만달러미만의 투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最大 규모의 投資事業은 2억달러(계약기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p>27)</sup> 또한 福建省 전체의 경우에는 1992년말까지 건당 평균투자규모가 130만달러<sup>28)</sup>, 廣東省의 경우에는 118만달러인 것으로<sup>29)</sup> 나타나 있다. 한편 총량 통계의 추이를 분석해 볼 때 시기별로 투자규모상의 뚜렷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최근들어 대규모 투자사업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臺灣의 한 연구기관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종별 평균투자규모에 있어서 우산제조업이 37만달러, 플라스틱 제품이 86만달러, 신발·제조업이 112만달러, 완구제조업이 114만달러, 차량(대부분 자전거) 관련업이 112만달러, 전자공업이 176만달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sup>30)</sup>

한편 위와 같이 小規模 投資가 대중을 이루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로 大陸과의 政治的 關係가 여전히 불확실하고 이에 따라 臺灣政府가 계속 대규모 투자를 억제하고 있는 한편 기

26) 臺灣經濟, 특히 製造業 부문에 있어서 中小企業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높다. 1988년중 臺灣의 中小企業은 전제조업체 수의 98%, 제조업 총생산의 44%, 총수출의 63%를 차지하였다(Chung(1992), p.5).

27) Wei(1993), p.5.

28) 顧銘(1993)

29) 廣東統計年鑑(1993)

30) 高長·嚴宗大 主編(1992), p.90.



업측도 대체로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대규모 투자를 꺼리는 현상을 나타냈다. 둘째로 臺灣企業의 大陸에 대한 投資는 대륙내 血緣관계나 언어·문화상의 동질성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큰 부담없이 소규모 투자를 수행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다른 海外投資에 비해 進入費用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臺灣企業 大陸投資 動機에 있어서 언어·관습상의 동질성이 저임노동력 활용동기에 이어 두번째로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된다(앞의 <表 III-8>참조). 세째로, 많은 臺灣의 大陸投資 企業들이 초기의 성공을 바탕으로 한 現地 投資事業의 擴張이나 이익의 再投資 과정에서 中國側의 稅制上的 優待政策을 활용하는 차원에서<sup>31)</sup> 新規 投資事業을 시작하거나 형식적으로 별개의 사업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실제 臺灣의 投資 母企業은 하나이고, 投資事業 성격상의 차이도 크지 않지만 현지 子會社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 臺灣企業의 大陸投資 건수는 급속도로 늘어나지만 이에 비해 투자액의 증가는 낮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영방법의 활용은 中國의 현지실정에 밝고 발빠른 경영에 능한 臺灣의 中小企業이 大陸投資에서 성공하고 있는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經營方法이 장기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주장은 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31) 中國의 外國人投資 所得稅法에 따르면 대부분의 투자사업의 경우 利益發生 후 2년간 소득세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이 적용되고 있으며, 再投資額에 대해서는 40% 환급혜택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익금을 신규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등록하는 것이 節稅의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 3.3 投資業種

臺灣企業의 大陸投資 業種에 관한 中國側의 統計가 발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흡하더라도 臺灣 經濟部의 통계를 통해서 살펴볼 수 밖에 없다. 다음의 <表 III-9>는 1990년 10월 8일 - 1991년 4월8일의 최초의 의무등록 기간중 등록된 그때까지의 누적된 투자사업의 업종분포 및 같은 기준에 따라 분류된 1991년 투자의 업종별 분포를 나타내주고 있으며, <表 III-10>는 臺灣 經濟部 投資審議委員會가 별개의 업종분류에 따라 정리한 1991년부터 최근까지 대륙투자의 업종별 분포를 나타내주고 있다.

먼저 <表 III-9>를 통해 볼때 臺灣企業의 大陸投資는 전자·전기(부품 및 제품조립), 자전거, 신발, 섬유·의류, 플라스틱제품, 금속제품, 음식료품 및 잡제품(가방, 체육용품, 우산 등) 등의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업종은 기본적으로 勞動集約的 산업이거나 업종 자체는 資本集約的 産業이지만 구체적인 투자사업은 勞動集約的 工程에 해당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업종별 평균 투자규모가 모든 업종에 걸쳐 100만달러 미만인 점에서도 드러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통계에 나타난 투자액수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업종별 평균 투자규모 분석은 시도하지 않기로 한다. 또한 이들 업종은 대부분 1980년대 臺灣의 주종 수출업종에 속한 것으로서, 臺灣의 전통적 수출 주종업종이 大陸으로 이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1991년부터 최근까지의 投資業種 분포를 나타내주고 있는 <表 III-10>을 통해 보면, 투자업종이 점차 技術集約的 業種 및 內需進出型의 業種으로 多樣化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991년 이후에도 纖維·衣類·신발, 電子·電氣, 플라스틱, 피혁 등의 노동집약적 업종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중심을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그 비중이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1992년부터는 정밀기기, 운수장비, 일차금속 및 금

臺灣企業 大陸投資의 業種別 分布(I)

(단위 : 1000달러, 건)

산 업	1991.3까지 누계 <sup>a)</sup>		1991		산 업	1991.3까지 누계		1991	
	액 수	건 수	액 수	건 수		액 수	건 수	액 수	건 수
전자 및 전기부품	102,748	242	1,355	3	가죽	6,680	511	511	3
차량(대부분 자진거)	78,923	202	6,875	6	제지	6,680	693	693	3
신발	58,751	306	8,471	16	위생제품	6,675	100	100	1
서비스업	56,472	62	0	0	지퍼	6,490	0	0	0
플라스틱제품	44,582	129	16,475	31	고무제품	6,478	2,934	2,934	8
섬유	31,995	74	6,251	4	소매업	6,393	200	200	1
금속제품 및 목축업	30,400	85	10,312	12	안경	5,593	0	0	0
농산물	21,378	35	0	0	완구	5,126	404	404	2
체육용품	20,348	59	na	na	원료	4,945	1,365	1,365	1
의복	17,876	106	7,356	16	유리제품	4,920	642	642	2
진공제품	17,566	67	4,762	1	납시기구	4,557	0	0	0
핸드백, 서류가방	16,466	40	152	1	부엌 및 화장용품	3,761	157	157	3
목재가공	15,688	46	7,356	6	의료용품	3,007	0	0	0
식품가공	13,807	39	11,834	11	가구	2,891	1,048	1,048	3
전기기기	13,343	37	25,445	39	그림	2,793	424	424	2
모직섬유	13,012	62	5,952	9	장간	2,247	52,860	52,860	3
수공업	11,062	48	470	3	자동차	2,185	0	0	0
시계 및 시속계	10,989	12	2,739	2	염색	2,030	0	0	0
우산	10,829	62	335	4	비료	1,800	0	0	0
아채 및 과일가공	10,609	36	7,474	8	옷염료액	1,655	501	501	2
도기 및 도자기제조	10,214	54	2,175	3	교육기기	1,518	250	250	1
건축제품	9,461	30	3,02	4	수동식 기계	1,318	700	700	1
기계	9,251	10	3,168	4	선물용품	903	0	0	0
의류기기	8,964	28	282	1	렌즈	751	0	0	0
평문 및 석제제품	7,158	37	1,713	4	진주 및 보석	410	0	0	0
식품화학제품	6,920	15	3,438	6	기타	1,759	3,754	3,754	9
종이제품			818	3	합계	735,915	174,958	174,958	242

註 : 1) 1990년 10월 8일부터 1991년 4월 18일까지의 등록의무기간중 經濟部에 등록된 사업의 업종분류임.  
 따라서 1991년 통계와는 약 3개월간 중복됨.

2) 기타업종에는 미분류 사업도 포함됨.

資料 : 臺灣 經濟部 投資審議委員會, 1991. 5. (Lee-in Chen Chiu (1992)에서 재인용)

〈表 III-10〉 臺灣企業 大陸投資의 業種別 分布 (II) (단위 : 건, 천달러)

업 종	1991		1992		1993.1-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농림업	-	-	-	-	14	1,686
					(0.85)	(0.25)
어업 및 목축업	-	-	-	-	1	220
					(0.06)	(0.03)
광업 및 토석채취업	1	900	-	-	3	1,179
	(0.42)	(0.52)			(0.18)	(0.18)
식품 및 음료제조업	19	19,308	28	46,415	145	114,138
	(8.02)	(11.09)	(10.61)	(18.79)	(8.79)	(17.11)
방직업	5	13,631	13	18,776	65	36,470
	(2.11)	(7.83)	(4.92)	(7.60)	(3.94)	(5.47)
의류 및 신발	26	13,192	22	11,046	95	24,181
	(10.97)	(7.57)	(8.33)	(4.47)	(5.76)	(3.63)
나무·죽제품	15	6,301	12	7,554	88	19,852
	(6.33)	(3.62)	(4.55)	(3.06)	(5.34)	(2.98)
종이·펄프 및 인쇄업	5	1,428	7	6,824	52	16,338
	(2.11)	(0.82)	(2.65)	(2.76)	(3.15)	(2.45)
파혁·모피제품	6	2,198	10	5,032	53	10,953
	(2.53)	(1.26)	(3.79)	(2.04)	(3.21)	(1.64)
고무·플라스틱	58	54,428	48	56,364	248	108,841
	(24.47)	(31.25)	(18.18)	(22.82)	(15.04)	(16.32)
화학제품	9	2,977	17	14,586	77	26,816
	(3.80)	(1.71)	(6.44)	(5.91)	(4.67)	(4.02)
비금속광물제품	12	5,714	14	6,999	60	40,100
	(5.06)	(3.28)	(5.30)	(2.83)	(3.64)	(6.01)
일차금속 및 금속제품	13	9,704	31	17,147	106	40,631
	(5.49)	(5.57)	(11.74)	(6.94)	(6.43)	(6.09)
기계·기기*	6	8,004	5	2,612	38	16,247
	(2.53)	(4.60)	(1.89)	(1.06)	(2.30)	(2.44)
전자·전기제품	42	31,568	35	37,837	227	82,542
	(17.72)	(18.13)	(13.26)	(15.32)	(13.77)	(12.38)
운수장비*	-	-	-	-	76	36,019
					(4.61)	(5.40)
정밀기계*	-	-	-	-	180	56,693
					(10.92)	(8.50)
건축업	-	-	-	-	10	702
					(0.61)	(0.11)
도소매업*	-	-	-	-	9	12,744
					(0.55)	(1.91)
무역업	-	-	-	-	13	5,186
					(0.79)	(0.78)
요식업*	-	-	-	-	12	2,340
					(0.73)	(0.35)
금융보험업	-	-	-	-	2	283
					(0.12)	(0.04)
운수업	-	-	-	-	24	2,250
					(1.46)	(0.34)
서비스업	-	-	-	-	47	10,189
					(2.85)	(1.53)
기타*	19	4,805	22	15,800	.	.
	(8.02)	(2.76)	(8.33)	(6.40)		
총 계	237	174,158	264	246,992	1649	666,919

註 : \* 아래 자료는 1993년부터 업종분류를 변경하였는데, 기계·기기를 기계, 운수장비, 정밀기기로 세분화하였고, 도소매업과 요식업이 추가되었으며, 종래 기타로 분류되었던 것들을 세분화한 것으로 보인다.

資料 : 中華民國 華僑及外國人投資 技術合作 對外投資 對外技術合作 統計年報 및 月報 (1991, 1992, 1993.6)

속제품, 화학제품 등 보다 資本·技術集約的 業種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음식료품, 도·소매업, 운수업, 서비스업 등 기본적으로 內需市場을 대상으로 하는 業種의 투자가 뚜렷히 증가하고 있어서 초기의 주종 투자업종과 구별되고 있다. 또한 체계적인 통계가 제공되지는 않고 있지만 언론매체나 현지 업계에 따르면 호텔, 고급 아파트 및 工團 등 각종 不動產 開發事業에 대한 臺灣投資가 다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臺灣의 大陸投資가 초기의 제3국시장 輸出을 위한 勞動集約 業種의 投資가 대부분을 차지하던 상태에서 점차 業種이 多樣化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4 投資地域

臺灣企業 大陸投資의 地域分布에 관한 中國側의 公式統計가 역시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臺灣 經濟部의 통계와 부분적으로 中國側 地方統計에 기초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의 <表 III-11>는 臺灣 經濟部에 등록된 大陸投資의 地域別 分布를 연도별로 나타내주고 있다.

먼저 1991년 4월8일까지 등록된 투자의 지역별 분포에 있어서는 廣東省과 福建省에 대한 집중이 뚜렷이 나타나 이 두 성을 합할 경우 전체 투자건수의 72%, 투자금액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兩省내에서도 深圳과 廈門의 두 經濟特區 지역에 투자가 가장 집중되고 있다. 廣東省과 福建省외에는 上海 및 江蘇省의 투자가 눈에 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上海의 경우에는 이 기간중 平均 投資規模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크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投資地域 分布상의 특징은 1991년 이후에도 대체로 유지되어 廣東省과 福建省이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投資地域의 多變化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93년 통계가 나타내주고

〈表 III - 11〉 臺灣企業大陸投資의 地域別 分布 (단위 : 건, 천달러)

	1991년 3월까지 누계		1991		1992*		1993.1-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廣東省 深圳特區 廣州市 東莞市 廣州特區 汕頭特區 珠海特區	1208 379 149 188 39 42	327,899 111,682 55,996 15,776 12,040 111,301	116 56 16 6 6 4	78,084 44,295 7,765 3,030 2,457 875	105 43 26 n/a n/a n/a	83,825 40,947 18,130 n/a n/a n/a	515 148 43 114 187 23
福建省 廈門特區 福州市	598 275 119	179,523 92,205 44,903	56 22 15	56,681 35,278 11,594	48 25 16	30,461 20,339 5,428	297 111 47	108,739 69,178 14,529
上海市 江蘇省 北京市 山東省 河南省 浙江省 安徽省 遼寧省 天津市 江西省 湖北省 四川省 河北省 其他	78 76 30 46 49 56 45 13 16 15 13 11 249	87,032 27,657 25,029 18,081 15,023 14,851 10,092 8,793 7,273 5,418 3,725 3,547 19,952	22 9 3 9 3 3 2 3 3 1 2 1 9	17,346 3,259 5,975 2,059 412 192 118 1,120 819 800 1,002 300 5,721	18 n/a 8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85	17,373 n/a 5,612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109,721	239 162 36 63 27 86 57 31 n/a 6 18 24 88	109,746 100,599 14,497 11,335 11,093 13,203 9,042 16,741 n/a 12,918 13,158 11,612 32,743
총 계	2,503	753,915	242	173,958	264	246,992	1,649	666,919

註 : \*1992년 통계는 원 자료의 지역구분이 세부화되어 있지 않다.  
 資料 : 1991년까지의 통계는 臺灣經濟部 投資審議委員會 자료에 근거한 Chiu(1992), p.27의 表 8.  
 1992년과 1993년 상반기 통계는 中華民國 華僑及外國人投資 技術協力 對外投資 對外技術合作 統計年報 및 月報(1992, 1993.6.)

있듯이 금액면에서 上海를 중심으로 하여 江蘇省과 浙江省을 포함하는 楊子江 三角洲 지역에서의 投資 比重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 1993년 상반기 중에는 上海에 대한 투자가 福建省에 대한 투자를 상회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1993년에 들어서 四川省 등 내륙지방에 대한 투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이러한 현상은 中國側 資料에서도 지적되고 있는데, 1991-92기간중 四川省과 山西省에 각각 55건과 21건의 臺灣投資가 이루어졌다고 한다.<sup>32)</sup>

한편 이 표에 나타난 臺灣側 統計에 의하면, 臺灣의 投資가 집중되고 있는 福建省과 廣東省을 비교해 볼 때,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廣東省에 대한 투자가 福建省에 대한 투자를 크게 앞서고 있다. 그러나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中國側 統計에 따르면 臺灣의 投資는 福建省에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있다. 즉 顧銘(1993)에 따르면 1992년말까지 福建省의 臺灣投資(계약기준) 누계가 1927건, 24억9천9백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sup>33)</sup> 廣東省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1988-1992 기간중 廣東省内 臺灣의 投資 累計는 (계약기준) 1164건, 13억7천3백만달러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서,<sup>34)</sup> 이들 통계에 따를 경우 福建省이 廣東省보다 더 많은 臺灣投資를 유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sup>35)</sup> 이 현상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시도될 수 있다. 그 하나는 臺灣企業의 大陸投資가 혈연·문화·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福建省에 집중된다는 관찰은 단지 상대적인 것이라는 주장이다. 즉 廣東省에 비해 福建省은 그 경제적·지리적 규모가 매우 작고 地方政府의 效率성과 開放度도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규모로는 廣東省에 대한 투자가 더 크지만, 다른 外國

32) Li Wuwei(1993), p.7.

33) 顧銘(1993), p.1

34) 廣東統計年鑑(1993), p.365, p.367.

35) 한편 福建省의 공식통계를 수록하고 있는 福建統計年鑑은 1993년까지도 臺灣의 投資를 나타내주지 않고 있다.

人投資에 비해 상대적으로 臺灣投資가 福建省에 집중된다는 것이다. 또한 초기에는 福建省에 대한 投資가 主를 이루었지만 점차 投資가 본격화되면서 廣東省이 더 많은 投資를 유치한다는 관찰도 있다. 두번째 해석은 廣東省 통계의 경우 홍콩을 거쳐 이루어진 일부 臺灣의 투자가 홍콩의 투자로 잡히는 반면, 이들도 臺灣에서는 당국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臺灣側 統計에 廣東省 투자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해석은 모두 廣東省이 福建省보다 더 많은 臺灣投資를 유치한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들이다. 그러나 실제로 어느 地方이 더 많은 臺灣投資를 유치하는 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3.5 投資形態

持分率 측면에서의 投資形態에 있어서 投資 初期段階에는 대체로 合資企業(equity joint venture)이나 合作經營企業(contractual joint venture)의 형태를 취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100% 單獨投資企業을 선호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臺灣 中華經濟研究院의 165개 투자업체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989년 이전의 투자형식은 合資企業, 單獨投資企業 및 委託加工·組立이 각각 30% 정도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으나, 1990년에는 單獨投資企業이 52.2%, 合資企業이 27.4%, 委託加工·組立이 16.1%로 변화하였고, 1991년에는 單獨投資企業이 65.6%, 合資企業이 25%, 기타 형식이 10%미만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나 單獨投資企業의 선호도 증가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sup>36)</sup>

위와 같은 1990년 이전의 초기단계에 臺灣 投資企業이 合資나 合作企業의 형태를 취한 것은 양안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危險(risk)을 분산하

36) 高長·嚴宗大(1992), p.66.



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점차 單獨投資企業을 선호하는 것은 兩岸關係의 점진적 개선과 初期投資의 성공적 경험, 그리고 大陸과의 言語·文化의 同質性을 바탕으로 하여 합작파트너의 이해관계 대립을 회피하고 經營方法과 利潤 활용방법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中國側이 臺灣 投資企業에 대하여 中國企業의 株式·債券 취득, 不動產 구매 및 토지개발 등의 측면에서 일반 外國人投資에 비해 보다 개방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것도 보다 쉽게 單獨投資 형식을 취할 수 있는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臺灣企業의 大陸投資 형태상의 특징으로서 이른바 ‘集團的 投資’의 등장을 들 수 있다. 이 ‘集團的 投資’는 同種業種 혹은 關聯業種의 다수 企業이 특정 지역에 공동으로 투자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이 경우 臺灣企業들을 비교적 넓은 토지를 임대하여, 인프라 개발 및 공단·공장 건설 등 종합적인 개발을 통하여 臺灣企業 投資區의 형성과 부동산 개발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臺灣企業들은 이미 東南亞 국가에서 ‘集團的 投資’를 실현한 경험을 바탕으로 점차 이런 유형의 투자를 시도해 가고 있다.<sup>37)</sup>

이러한 臺灣企業의 集團的 投資는 대체로 福建省, 珠江三角洲 및 揚子江三角洲지역에 나타나고 있다. 이 현상 역시 특히 地方政府 차원에서 臺灣企業에 제공하는 투자업종상의 높은 융통성과 기타 여러 특혜를 활용한 결과로 보여진다.

37) 예를 들자면 統一, 味全 같은 종합식품업체들이 과즙, 음료, 제분, 라면, 분유, 간장, 식용유 등의 각종 식료품의 생산과 관련 용기, 포장 등의 생산공정까지도 일정지역내에서 행하는 투자를 실행해가고 있다(中華工商時報, 1993.3.31호).

### 3.6 홍콩의 役割

臺灣企業의 大陸投資와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것은 홍콩의 역할이 독특한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臺灣의 大陸에 대한 投資는 直接交易·直接通航·直接投資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 3국을 거쳐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投資가 홍콩을 거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홍콩의 역할이 단순히 형식적인 投資 經由地로서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있다. 즉 홍콩은 臺灣企業의 大陸投資와 관련하여 ‘情報 經驗의 提供者’와 ‘仲介者’(demonstrator and middle-man)로서<sup>38)</sup> 그리고 大陸內 投資企業에 대한 ‘각종 서비스 提供者’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홍콩기업은 中國大陸 投資의 선두주자로서 大陸投資에 관한 情報와 經驗을 충분히 갖고 있다. 따라서 홍콩기업은 臺灣을 포함한 다른 外國人 投資者들에게 中國 투자사업에 어떻게 접근해야하고 또한 중국측 상대방과 어떻게 협상을 해나가는 가에 대하여 先例와 情報를 제공해주게 된다. 또한 홍콩 企業들은 구체적으로 臺灣 投資企業들에게 中國側 合資(作) 파트너나 中國側 관련 정부부서와의 연결을 해주는 ‘仲介者’기능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우기 이러한 간접적 지원기능과 더불어 臺灣企業의 大陸的 製造業 投資와 관련한 金融, 外換, 국제 마케팅, 국제운송 등 각종 서비스가 홍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서비스 기능은 홍콩의 기업이 수행하기도 하지만, 臺灣企業이 홍콩에 이러한 서비스업종 투자를 통하여 子會社를 설립하고, 이 회사로 하여금 大陸에 투자한 제조업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臺灣의 홍콩에 대한 直接投資가 1991

---

38) Kwok(1993), p.16.

년에 전년대비 6배 증가하는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데에서도 드러나고 있다.<sup>39)</sup>

---

39) 中華民國 華僑及外國人投資 技術協力 對外投資 對外技術合作 統計年報 1991

## IV. 大陸內 臺灣投資企業의 運營狀況

앞의 III장에서는 臺灣企業 大陸投資의 推移와 現況 그리고 投資動機, 投資規模, 業種別·地域別 分布, 投資形態 등의 측면에서의 특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本章에서는 보다 미시적인 차원에서 臺灣의 大陸內 投資企業 運營상황을 生産, 販賣, 財務管理, 損益, 隘路事項, 向後計劃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本章의 내용은 대체로 中華經濟研究院이 1991년 7월~1992년초에 걸쳐 大陸投資企業에 대하여 실시한 說問調查 결과 분석에 기초하여 기술되었음을 밝혀둔다. 高長·嚴宗大(1992) 第4章에 그 결과가 자세히 분석되어 있는 이 설문조사는 172개 기업에 대하여 실시되어 그중 유효한 응답을 제시한 165개 기업의 운영 상황을 상세하게 조사하고 있다. 이 조사 대상기업들은 그 投資地域·投資形式·投資業種 등의 측면에서 그 대표성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1. 生産活動

#### 1.1 機械·設備의 購入

臺灣企業이 大陸에 투자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데 소요되는 機械와 設備은 어떤 방법으로 조달되고 있는가? 앞에서 소개한 說問調查에 따르면 전체 응답기업중 46%가 臺灣內 投資 母企業으로부터 機械·設備을 구입하였고, 또한 46%가 臺灣의 다른 企業으로부터 輸入한 것으로 나타났다(복수선택 가능). 이외에는 美國·日本·유럽 등 제3국으로부터 수입한 경우가 약 14%, 大陸內 現地業體로부터 구입한 경우가 약 1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臺灣의 大陸 投資企業들이 대부분 자신들

에게 익숙한 臺灣製 機械·設備을 輸入하여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表 IV-1〉 참조).

한편 기계·설비의 등급에 있어서는(복수선택) 전체의 약 45%의 投資企業이 臺灣에서 사용하던 舊式의 遊休設備을 大陸에 이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臺灣企業 大陸投資의 事例分析을 시도하고 있는 Pomfret (1993)가 보고하고 있는 현상과 상통하는데, 이 현상은 臺灣과 大陸의 要素賦存 및 生産要素의 相對價格이 다르기 때문에 臺灣에서는 더 이상 그 사용이 효율적이지 못한 設備이더라도 大陸에서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동일한 설문에 대한 응답으로서 臺灣에서 현재 사용되는 것과 同級의 機械·設備을 사용하는 경우가 약 47%, 最新 機械·設備을 사용하는 경우가 6.8%, 大陸 現地の 企業들이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機械·設備을 사용하는 경우가 1.8%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분석을 投資業種·投資規模·投資形式·投資地域 등의 측면에서 나누어 시도해 볼 경우에도 機械·設備 구매방법상의 뚜렷한 차

〈表 IV-1〉 投資業種別 機械·設備의 購入原 分布(複數選擇)

구입원 업 종	대만의 모기업	대만내 타기업	유럽·미국· 일본	대륙 현지기업	응답기업 계
플라스틱제품	18	20	3	6	41
신 발	13	14	2	0	23
의 복	4	6	8	1	14
우 산	7	1	1	0	11
완 구	3	1	0	1	8
차 량	13	12	4	6	23
전 자	5	5	2	0	9
기 타	5	9	1	4	19
합 계	68	68	21	16	148

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의복제조업의 경우 선진국으로부터 기계·설비를 수입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투자규모가 클 수록 기계·설비의 구입원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내용은 高長·嚴宗大(1993), pp.110- 116의 表 4-26~4-32를 참조)

## 1.2 原料·部品の 購入

大陸에 투자한 臺灣企業들이 생산에 필요한 원료 및 부품 조달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도, 80% 이상이 臺灣으로부터 輸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大陸의 現地企業으로부터 구매하는 비중이 약 15%, 이어서 大陸의 다른 外資系 企業으로부터 구매하는 비중이 약 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臺灣의 投資企業들은 대부분의 原·副資材를 臺灣으로부터 輸入함으로써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輸出을 주로 하는 臺灣의 투자기업들이 品質과 納期면에서 크게 뒤떨어지고 있는 大陸內 現地企業으로부터의 원부자재 조달을 회피하고 자신들에게 익숙한 臺灣으로부터의 원부자재 구매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또한 臺灣의 投資가 福建省, 廣東省 등 聯關産業이 (특히 前方 聯關産業) 미발달되어 있는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中國內 交通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것에도 기인한다.

한편 원료 및 부품의 구입원 분포는 投資業種, 投資規模, 投資地域, 投資形式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業種에 따라서는 신발, 완구, 우산 제조업 등에서 臺灣으로부터의 輸入 比重이 90% 이상에 이르고 있고, 플라스틱, 전자, 차량<sup>40)</sup> 등의 업종에서는 大陸 現地 企業으로부터의 조달비율이 비교적 높아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차량 및 전자업종의 경우에는 大陸內 다른 外資系 企業으로부터의 조달

40) 대부분이 자전거 관련 업종임.

비중이 약 10%에 이르고 있다(〈表 IV-2〉 참조). 投資規模別로는 투자 금액이 제일 낮은 50만달러미만의 업체가 大陸 現地企業으로부터의 購買比重이 31%로 제일 높고, 投資金額 50~90만달러의 업체는 臺灣으로부터의 輸入比重이 86%로 제일 높으며, 投資金額 200만달러 이상의 大規模 投資業體의 경우 대륙내 다른 外資系企業으로부터의 조달 비중이 12.5%로 가장 높은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한편 투자형식별로는 合資·合作經營企業의 경우 現地調達 比率이 높은 편이며(각각 31%와 35%), 單獨投資企業이나 委託加工業體들은 臺灣으로부터의 수입비율이 높게(각각 83%와 93%) 나타났다. 그러나 投資地域에 따른 원료·부품 조달방법의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자세한 내용은 高長·嚴宗大(1992), pp.106- 108의 表 4-23~4-25를 참조)

〈表 IV-2〉 投資業種別 原料·部品の 購買原 分布

(단위 : %)

구매원 업 종	대만에서 수입	대륙현지기업에서 구매	대륙내 다른 외자 기업에서 구매
플라스틱제품	73.86	21.49	4.65
신발	91.10	4.17	4.73
의복	85.81	11.02	3.17
우산	94.33	3.61	2.06
완구	90.22	8.03	1.75
차량	72.93	18.14	8.93
전자	69.85	19.86	10.29
기타	76.98	21.60	1.42

### 1.3 勞動生産性

大陸에 투자한 臺灣企業들은 대부분 현지생산에 있어서의 勞動生産性이 臺灣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위 설문조사 결과에 따

르면 전체 응답기업중 43%가 大陸 現地工場의 勞動生産性이 臺灣의 60~80% 수준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어서 23% 정도의 기업이 現地工場의 勞動生産性이 臺灣의 80% 이상 수준인 것으로, 나머지 각각 17% 정도의 기업이 臺灣의 60% 미만의 수준이거나 臺灣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表 IV-3〉 참조). 결국 80% 이상의 기업들은 大陸內 生産의 勞動生産性이 臺灣에 비해 떨어진다고 보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보면 臺灣의 70~75% 수준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sup>41)</sup>

〈表 IV-3〉 投資業種別 大陸工場의 勞動生産性 評價

업 종	대만의 60% 미만	대만의 60~80%	대만의 80% 이상	대만과 비슷한 수준	계
플라스틱제품	6 (15%)	21 (52.5%)	7 (17.5%)	6 (15%)	40 (100%)
신 발	3 (13.6%)	8 (36.4%)	8 (36.4%)	3 (13.6%)	22 (100%)
의 복	1 (7.1%)	9 (64.3%)	2 (14.3%)	2 (14.3%)	14 (100%)
우 산	2 (20%)	4 (40%)	2 (20%)	2 (20%)	10 (100%)
완 구	1 (11.1%)	3 (33.3%)	3 (33.3%)	2 (22.2%)	9 (100%)
차 량	5 (25%)	7 (35%)	5 (25%)	3 (15%)	20 (100%)
전 자	0 (0%)	3 (37.5%)	2 (25%)	3 (37.5%)	8 (100%)
기 타	6 (31.6%)	6 (31.6%)	4 (21.1%)	3 (15.8%)	19 (100%)
합 계	24 (16.9%)	61 (43.0%)	33 (23.2%)	24 (16.9%)	142 (100%)



한편 業種別로는 전자와 완구업종의 경우 대륙내 공장의 勞動生産性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차량 및 기타업종의 경우 勞動生産性이 상대적으로 더 낮게 평가되고 있었다. 投資規模別로는 투자액 100~200만달러의 기업이 大陸內 勞動生産性을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44%의 기업이 대륙의 노동생산성을 대만의 60% 미만인 것으로 평가), 200만달러 이상의 업체는 비교적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43%의 기업이 대륙의 노동생산성을 대만의 80% 이상 혹은 대만과 비슷한 것으로 평가) 나타났다. 투자규모 100만달러 미만의 투자업체들은 勞動生産性이 대체로 대만보다 낮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50만달러 미만의 영세투자업체들의 경우 더 낮게 평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投資形態에 따라서는 單獨投資企業과 委託加工業體들이 상대적으로 勞動生産性を 높이 평가한 반면, 合資·合作企業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投資地域別로는 深圳지역의 노동생산성이 비교적 높게, 江蘇省 지역이 비교적 낮게 평가되고 있었다.(자세한 내용은 高長·嚴宗大(1992), pp.122-124의 表 4-38~4-40를 참조)

#### 1.4 製品의 品質

臺灣의 大陸投資 企業들은 現地工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1% 정도가 大陸內 投資企業에서 臺灣內 生産 製品과 비슷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한다고 답하였고, 33%가 臺灣製品에 비해 질이 떨어진다고 답하였으며, 5% 정도는 臺灣製品에 비해 질이 높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업종에 따라서는 평가가 상당히 달라서 우산, 플라스틱제품, 신발 등 업종의 경우에는 품질이 臺灣과 비슷하거나 높다는 대답의

41) 한편 韓國의 對中國 투자업체에 대하여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평균적으로 現地工場의 勞動生産性を 한국의 75%로 평가하고 있다. 金時中·閔充基·柳在元(1992), p.101참조.

비중이 높았으며, 반면 차량, 전자, 완구 등의 업종에 있어서는 60% 정도의 응답자가 臺灣보다 품질이 낮다고 평가하였다(〈表 IV-4〉 참조).

〈表 IV-4〉 投資業種別 大陸生產品 品質評價

업 종	대만제품과 비슷하다	대만제품에 비해 낮다	대만제품에 비해 높다	기 타	계
플라스틱제품	29 (70.7%)	8 (19.5%)	2 (4.9%)	2 (4.9%)	41 (100%)
신 발	13 (61.9%)	6 (28.6%)	2 (9.5%)	0 (0%)	21 (100%)
의 복	11 (68.8%)	5 (31.3%)	0 (0%)	0 (0%)	16 (100%)
우 산	10 (90.9%)	1 (9.1%)	0 (0%)	0 (0%)	11 (100%)
완 구	4 (44.4%)	5 (55.6%)	0 (0%)	0 (0%)	9 (100%)
차 량	10 (41.7%)	14 (58.3%)	0 (0%)	0 (0%)	24 (100%)
전 자	4 (44.4%)	5 (55.6%)	0 (0%)	0 (0%)	9 (100%)
기 타	10 (50.0%)	5 (25.0%)	3 (15.0%)	0 (0%)	20 (100%)
합 계	91 (60.7%)	49 (32.7%)	7 (4.7%)	3 (2.0%)	150 (100%)

한편 投資規模에 따라서는 투자금액이 200만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 의 경우 품질이 낮다고 회답한 비율(50%)이 높았고, 100만달러 미만의 소규모투자의 경우에는 품질이 대만과 비슷하거나 높다고 대답한 비율이(약 77%) 높았다. 즉 投資規模가 클수록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 지는 경향을 보였다. 投資形態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單獨投資

企業이 품질이 낮다고 대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36%). 投資地域에 따른 응답의 차이도 크지 않았으나, 廣東省·深圳 투자기업의 경우에 품질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江蘇省·廈門의 투자기업은 품질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자세한 내용은 高長·嚴宗大(1992), pp.118-120의 表 4-34~4-36를 참조)

## 2. 販賣活動

大陸에 투자한 臺灣企業들은 생산된 제품을 대부분 輸出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위 설문조사에 따르면 평균 수출비율은 86%에 달하고 있으며, 현지 내수시장 판매비율은 14%에 불과하다.<sup>42)</sup> 제품 輸出比率은 投資形態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委託加工의 경우 100%, 單獨投資企業은 89.5%에 이르고 있는 반면 合資企業의 경우 73.6%로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投資地域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廣東省, 深圳, 廈門의 경우 수출비율이 90%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江蘇省과 福建省의 경우 80% 수준에, 그리고 기타지역의 경우 70%에 그치고 있다. 또한 허가된 投資期間이 짧을 수록 수출비율이 높고, 投資期間이 길수록 내수판매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投資時點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內需 販賣比率이 1989년이전의 투자기업의 경우 10.6%에서 1990년의 투자기업의 경우 13%, 1991년의 투자기업의 경우 15%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결국 臺灣의 投資企業들이 점차 大陸 內需市場 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投資企業의 輸出經路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복수

42) 한편 韓國의 對中國 투자업체의 경우에 대한 조사에서도 수출비율이 84~8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金時中·閔充基·柳在元(1992), p.100, 安鍾石(1993), p.49 참조.

선택)의 60%가 현지 投資企業 자신이 대외판매권을 행사하여 직접 수출하는 것으로, 또한 60%가 臺灣의 企業이(주로 母企業) 수출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답하였다. 그외에 外國의 輸入商이 판매를 대행해주는 경우가 약 17%, 大陸의 對外貿易部門이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와 大陸內 交易會에 참가하여 수출하는 경우가 각각 3.6%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부분의 臺灣企業들은 외국의 수출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大陸에 投資하여 生産·輸出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業種에 따라서 수출 경로에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플라스틱제품·우산 제조업의 경우 자체 수출의 비중이 높고, 신발·완구·의복·차량업종의 경우 대만내 기업을 통한 수출 비중이 높게 나타나 있으며, 신발과 완구업종의 경우 外國 購買者가 판매를 대행해 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있다. 投資規模, 投資形式, 投資地域에 따른 수출경로의 차이는 그리 현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投資規模가 매우 작은 경우(50만달러 미만)나 單獨投資企業의 경우 外國 購買者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내용은 高長·嚴宗大(1992), pp. 125-128의 表 4-41~4-44를 참조)

한편 現地 內需市場에 판매하는 경우, 自社의 販賣網을 설치하여 직접 판매하는 방법과 다른 販賣全擔會社에 위탁하여 판매하는 방법이 각각 36%와 33%를 차지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외에는 大陸 현지의 대외무역공사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와 大陸政府의 商業部門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가 각각 6.9%와 5.6%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8% 정도가 기타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業種別로는 의류제조업이 委託販賣 방식의 비중이 높은 반면 플라스틱제품과 차량업종은 直接販賣 방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이 특기할 만 하다. 그외 投資地域이나 投資形式에 따른 內需 販賣方式의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자세한 내용은 高長·嚴宗大(1992), pp.129-132의 表 4-45~4-48를 참조)

### 3. 財務管理

#### 3.1 運營資金 調達

大陸에 투자한 臺灣企業들은 운영자금의 대부분을 臺灣으로부터 조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70.1%의 운영자금이 臺灣에서 조달되며, 이어서 大陸内の 현지 은행으로부터 용자받는 것이 17.2%, 제3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받는 것이 7%, 그리고 기타방식의 조달이 약 6%를 차지하고 있다.

業種別로는 우산 제조업이 운영자금의 96.6%를 臺灣에서 조달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신발·차량·전자 및 기타업종이 80% 이상의 비율을 나타내어 비교적 臺灣에의 자금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플라스틱제품·완구·의복 등의 업종은 大陸內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投資規模別로는 소규모 투자업체가(50만 달러 미만) 臺灣에서 가져오는 자금의 비중이 가장 높고(77%), 중규모

〈表 IV-5〉

業種別 運營資金 調達方法

자금조달방법 업종	대만으로부터 조달	대륙내 현지은행용자	제3국 은행의 용자	기 타
플라스틱 제품	54.4%	32.1%	6.5%	7.5%
신 발	80.6%	8.4%	11.0%	0%
의 복	53.6%	27.9%	2.9%	15.7%
우 산	96.6%	2.2%	1.2%	0%
완 구	66.5%	7.4%	0%	26.1%
차 량	81.9%	9.1%	100%	1.2%
전 자	82.9%	0%	14.3%	2.9%
기 타	80.2%	6.3%	8.1%	5.4%
전 체 평 균	70.1%	17.2%	7.0%	6.0%

투자업체의 경우(50~200만달러) 대륙 현지은행으로부터의 융자비중이 25% 정도로 비교적 높으며, 대규모 투자업체는(200만달러 이상) 제3국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조달 비율이 비교적 높게(12%) 나타났다. 投資形式別로는 合資·合作企業의 경우 大陸 現地金融의 比重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單獨投資企業이나 委託加工의 경우 대부분의 자금을 臺灣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投資地域別로는 江蘇省, 廈門 및 其他地域의 경우 대륙내 현지조달 비중이 높은 반면, 廣東, 深圳, 福建의 경우 臺灣에서 조달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2 臺灣資金의 送金方式

전체적으로 大陸에 투자한 臺灣企業의 66%가(복수선택) 홍콩의 은행을 통하여 臺灣資金의 송금을 행하고 있으며, 이어서 약 30%가 홍콩에서 직접 어음거래를 통하여 송금하는 방식을, 또한 22%가 臺灣內 外國人銀行 支店을 통하여 송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모두 臺灣에서 대륙으로 직접 송금하는 것이 금지된 상황에 대응하여 나타난 것이다.

業種別로는 대부분의 業種의 경우 홍콩의 은행을 통한 송금방식이 주종을 차지하고 있으나, 우산 제조업은 홍콩에서의 어음거래를 통한 송금방식의 비중이, 의류·전자업은 대만내 외국인 은행을 통한 송금방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있다. 投資規模別로는 투자규모가 클수록 홍콩의 은행을 통한 송금방식의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投資形式別로는 單獨投資企業이 홍콩에서의 어음거래 방식을 통한 송금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地域別로는 福建省과 江蘇省의 경우 臺灣內 外國人銀行을 통한 방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投資時點別로 볼 때 1991년부터 臺灣內 外國人銀行을 통한 송금방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뚜렷이 나타난다.

#### 4. 經營損益

大陸에 투자한 臺灣企業들의 經營損益에 관한 설문에 대하여는 대체로 중립적인 응답이 얻어졌다. 즉 설문 응답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이윤 발생 여부에 대하여 31.4%의 企業이 黑字를 본 것으로, 32.2%의 企業이 收支均衡을 이룬 것으로, 나머지 36.6%의 企業이 赤字를 본 것으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기업들의 일반적인 성향이나 大陸內 外國人 投資企業 租稅減免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위의 대답은 실제의 經營損益 보다는 다소 부정적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業種別로는 완구, 신발, 우산 등의 업종에 있어서 黑字企業의 비율이 높고, 플라스틱제품의 경우 赤字企業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投資規模·投資形式·投資地域에 따른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投資時點에 따른 차이는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데, 赤字企業의 비율이 1989년 이전에 투자한 기업의 경우 28.5%, 1990년에 투자한 기업의 경우 38.9%, 1991년에 투자한 기업의 경우 42.9%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 설문조사를 실시·분석한 高長·嚴宗大(1992)는 이러한 결과를 大陸投資를 하는 臺灣企業들이 점증하는 경쟁압력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윤획득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위 결과는 단순히 투자실행 이후 이윤이 발생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현실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利潤의 處理方法에 관한 설문에 있어서는(복수선택), 응답기업의 67.4%가 이윤을 臺灣으로 회수하겠다고, 30%가 이윤을 홍콩으로 이전시키겠다고, 그리고 약 25%가 현지에 再投資하겠다고 답하였다. 業種別로는 우산과 신발업의 경우 이윤의 대만회수 의향을 표시한 기업의 비율이 높았고(70% 이상), 전자·의류업종의 경우 대만회수 의향표시 기업의 비율이 낮은 반면 再投資 의향표시 기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投資規模別로는 200만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이

윤의 대만회수의 선호 비중이 낮은 동시에 현지 再投資 선호의 경향이 높았다. 投資形態別로는 合資·合作企業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현지 再投資 선호 비중이 높았고, 投資地域別로는 江蘇省, 深圳 및 其他地區의 경우에 利潤을 현지에 再投資하겠다는 기업의 비율이 높았다.

〈表 IV-6〉

業種別 經營損益 狀況

업종	큰 흑자	다소의 흑자	수지균형	다소의 적자	큰 적자	계
플라스틱제품	0 (0.00%)	3 (9.68%)	10 (32.36%)	16 (51.61%)	2 (6.45%)	31 (100%)
신발	0 (0.00%)	10 (45.45%)	7 (31.82%)	4 (18.18%)	1 (4.55%)	22 (100%)
의복	0 (0.00%)	4 (28.57%)	6 (42.86%)	4 (28.57%)	0 (0.00%)	14 (100%)
우산	0 (0.00%)	4 (40.00%)	3 (30.00%)	3 (30.00%)	0 (0.00%)	10 (100%)
완구	0 (0.00%)	4 (57.14%)	1 (14.29%)	2 (28.57%)	0 (0.00%)	7 (100%)
차량	0 (0.00%)	5 (33.33%)	7 (46.67%)	3 (20.00%)	0 (0.00%)	15 (100%)
전자	0 (0.00%)	2 (33.33%)	1 (16.67%)	2 (33.33%)	0 (0.00%)	6 (100%)
기타	1 (16.67%)	4 (30.77%)	3 (23.08%)	4 (30.77%)	2 (15.38%)	13 (100%)
전체	1 (0.85%)	36 (30.51%)	38 (32.20%)	3 (32.20%)	5 (4.24%)	118 (100%)



## 5. 隘路事項

大陸에 투자한 臺灣企業들이 현지 경영에서 부딪히고 있는 문제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지적되는 것은 전력·통신·운수시설 등 인프라의 부족으로서 응답기업의 71%가 애로점으로 지적하였다(복수선택). 이어서 응답기업의 57%가 원자재 및 재고로 인한 原價上昇의 문제를, 44%가 교제비용 등 직접생산비 이외의 비용 과다를, 37%가 모국 파견인원의 현지적용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현지 종업원의 낮은 노동생산성, 운영자금 조달 및 자금 회전의 문제, 현지 정부기관의 간섭 등도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들은 投資業種·投資規模·投資形式·投資地域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분석은 高長·嚴宗大(1992), PP.155-158의 表 4-71~4-74 참조)

한편 臺灣의 大陸投資 企業에 있어서의 노사분규에 초점을 맞추어보면, 86% 이상의 기업에서 노사분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업종별로는 완구 및 의류업종에서 33%와 27%의 노사분규 발생 비율을 보여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분규 발생의 원인으로는 현격한 임금의 차별, 난폭한 노무관리, 열악한 근로조건, 너무 긴 근로시간 등이 주로 지적되고 있다. 投資規模, 投資形式, 投資地域에 따른 노사분규 발생 비율이나 그 원인의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 6. 展望 및 向後 計劃

위 설문조사에 응한 大陸投資 企業들의 경우 54%가 현재로서는 투자 확대의 계획이 없는 것으로, 31%가 투자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5% 정도의 기업만이 철수나 투자감소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답하였다. 투자확대의 이유로서는 현재 경영성과의 양호 또는 향

후 시장 전망의 양호를 들고 있다. 이 조사와는 별개로 행해진 臺灣 經濟部의 조사에 따르면, 총 3000여개 조사 대상기업중 600여 기업이 해외투자의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 중 44%가 대륙에 투자할 의사를 표명하였다.<sup>43)</sup> 결국 臺灣의 企業들은 大陸內 投資環境을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륙투자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

〈表 IV-7〉

業種別 向後投資 計劃

업종 \ 계획	투자확대 계획	현재투자 확대 계획없음	투자축소 가능	철수가능	기타	계
플라스틱제품	9 (22.0%)	27 (65.9%)	3 (7.3%)	0 (0.0%)	2 (4.9%)	41 (100%)
신발	9 (40.9%)	11 (50.0%)	0 (0.0%)	0 (0.0%)	2 (9.1%)	22 (100%)
의류	6 (40.0%)	6 (40.0%)	0 (0.0%)	1 (0.7%)	2 (13.3%)	15 (100%)
우산	1 (9.1%)	10 (90.9%)	0 (0.0%)	0 (0.0%)	0 (0.0%)	11 (100%)
완구	3 (33.3%)	4 (44.4%)	1 (11.1%)	1 (11.1%)	0 (0.0%)	9 (100%)
차량	6 (27.3%)	16 (72.7%)	0 (0.0%)	0 (0.0%)	0 (0.0%)	22 (100%)
전자	5 (55.6%)	3 (33.3%)	1 (11.1%)	0 (0.0%)	0 (0.0%)	9 (100%)
기타	7 (35.0%)	8 (40.0%)	1 (5.0%)	0 (0.0%)	4 (20.0%)	20 (100%)
전체	46 (30.9%)	80 (53.7%)	6 (4.0%)	2 (1.3%)	10 (6.7%)	149 (100%)

43) Kao (1993), p.25.

라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한편 業種別로는 전자, 신발, 의류업종의 기업들이 투자확대 계획을 가진 비중이 높은 반면, 플라스틱제품·우산·차량업종의 경우 현상유지 선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表 IV-7〉 참조). 投資規模別로는 100~200백만달러의 中規模 投資業體들이 투자확대 의사(56.3%)를 가장 강하게 나타냈다. 投資形式別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投資地域別로는 江蘇省의 투자기업들이 투자확대 의사를 표시한 비율이 높았다.

## 7. 大陸側の 經濟制裁 可能性에 대한 對應

大陸측의 經濟制裁 조치나 武力 사용을 통한 臺灣 封鎖 가능성 및 이에 대한 對處方法에 대해서는 61%의 투자기업이(복수선택) 이미 그러한 사태 발생시 손실을 극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즉각 大陸內 投資活動을 중지하고 臺灣으로 돌아오겠다는 기업이 57%, 이어서 大陸內 投資活動을 중지하고 제3국으로 이민하겠다는 대답이 12%로 나타났으며, 사태를 관망하면서 현지활동을 지속하겠다는 대답과 현지 활동을 계속하면서 大陸에 영구 거주할 생각이 있다는 대답도 각각 9.4%와 1.5%로 나타났다.

業種別로는 의류제조업과 전자업종의 기업이 이미 비상대처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고, 우산·완구업의 경우 즉각 철수해 대륙을 떠나겠다는 응답의 비중이 높았다. 投資規模別로는 규모가 클수록 비상대처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경우가 많았고,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즉시 대륙에서의 투자활동을 정지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投資形態나 投資地域에 따라서는 이 문제에 대한 대답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8. 兩側 政府의 兩岸經濟關係 處理方法에 대한 見解

臺灣과 中國의 兩側 政府가 兩岸間 經濟關係 사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大陸에 投資한 臺灣企業의 대부분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그 중 臺灣政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업은 27.4%에 불과하며, 大陸政府의 정책에 대하여 만족하는 비중은 더욱 낮아 18.2%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은 投資業種, 投資規模, 投資形式 및 投資地域에 따라 큰 차이없이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臺灣政府에 대하여 건의하고 있는 정책 방향으로는(복수선택), 65%의 응답자가 政府는 經濟的 利益에만 집착하지 말고 國家의 安保에 중요성을 두어야한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각각 62%의 응답자들이 政府가 大陸投資企業들과 협조하여 大陸投資 관련 분규 처리에 임해야 한다는 점과, 臺灣의 銀行들의 대륙내 지점 설치를 허용하여 용자 및 외환 송금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반면 응답자의 37%는 政府가 순수히 경제적인 손익의 측면에서, 大陸에 대한 經濟政策을 크게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하였다.



## V. 臺灣·中國 經濟에 대한 波及效果

臺灣企業의 大陸投資가 지난 수년간 급격히 증가하여 이미 상당한 규모에 도달하였고, 또한 급증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투자에 따른 개별기업의 성과 여부를 떠나 臺灣 및 中國의 經濟全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기울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앞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臺灣企業 大陸投資의 業種別·地域別 分布는 물론 總投資額에 관한 정확한 통계도 불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가 얻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兩 經濟에 대한 波及效果를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보고자 한다.

### 1. 臺灣經濟에 대한 波及效果

臺灣企業의 大陸投資가 臺灣經濟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추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즉 어떤 접근방식을 통하여 접근하더라도 매우 자의적인 가정을 전제하지 않고는 계량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臺灣의 大陸投資를 포함하는 海外直接投資 자체가 臺灣經濟가 당면하고 있는 産業構造 전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이에 따라 그 파급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短期的 影響뿐 아니라 構造的·長期的 影響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 복잡성을 전제로 하고 지금까지 시도된 몇 가지 접근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臺灣經濟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는 매우 단순한 접근은 臺灣의 投資財源이 해외 특히 大陸으로 유출됨에 따라 臺灣內의 投資가 위축되고 이는 다시 生産과 雇傭의 위축을 가져온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의 주창자들은 특히 이 과정에서 製造

業 부문의 위축이 두드러져 결국 臺灣의 ‘産業空洞化’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臺灣의 GDP중 製造業의 비중이 1986년의 36.7%를 정점으로 줄곧 하락하여 1992년에는 32.9%에 이르게 되었으며, 總雇傭중 製造業의 비중도 1987년의 35.0%에서 1992년에는 30.2%로 하락한 것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그 주 원인으로서 동 기간중에 나타난 海外直接投資의 급증을 들고 있다. 결국 이들은 1990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大陸投資가 궁극적으로 臺灣의 産業空洞化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면서 이를 억제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臺灣經濟 전반과 製造業의 構造를 자세히 분석해 볼 경우 위와 같은 단순한 논리에 큰 무리가 따름을 알 수 있다. 먼저 臺灣經濟는 계속 연평균 6~7%의 건실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失業率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2년에는 1.5%에 달하였다(〈表 III-2〉 참조). 또한 經濟가 일정 단계 이상으로 성장하여 선진화 됨에 따라 製造業의 비중이 하락하고 3차산업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즉 이러한 현상은 製造業 生産 자체가 複雜化 됨에 따라 R&D, 디자인, 마케팅, 교통·통신, 금융, 보험, 광고 등 연관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필요로 하게 되고, 또한 國民의 所得增加에 따라 각종 서비스업에 대한 需要가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表 V-1〉에 나타난 臺灣 製造業의 構造變化를 분석해 볼 경우 臺灣의 製造業이 나름대로 건실한 성장과 構造調整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나타난다. 먼저 제조업체의 신규창업이 연평균 8.6%씩 감소하고 있고 폐업신고가 연평균 23.5%씩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현상이 대부분의 업종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제조업의 상대적인 위축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또한 製造業의 雇傭이 연평균 2.7%씩 감소하고 있는 점도 같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에도 불구하고 製造業의 生産과 輸出이 각각 연평균 7.0%와 3.9% 성장해 온 것은 주목할 만하며, 이는 純固定資産이 연평균 7.9%씩 증대되어 온

<表 V-1>

臺灣 製造業 部門의 構造變化 (1986-1992)

(단위 : % (연평균))

산업분류	부가가치 생산	수출	순고정 자산 스톡 <sup>1)</sup>	고용	신규 창업	폐업 신고	해외 직접 투자
제조업 전체	7.04	3.87	7.87	-2.70	-8.57	23.52	125.92
식품	2.29	-1.13	4.59	-0.94	-10.13	21.59	64058.01 <sup>2)</sup>
음료 및 담배	6.00	18.58	6.53	4.88	14.31	52.81	-
섬유	2.40	9.54	4.62	-6.69	-10.90	33.44	287.47
의복 및 장신구	-1.19	-6.42	-2.16	-10.48	-11.18	37.02	2859.41
가죽	1.54	-8.50	1.58	-7.88	-13.06	28.01	30.58
목재 및 대나무제품	-1.28	-11.73	5.75	9.12	-17.37	17.11	163.86
종이 및 인쇄	8.90	14.41	8.95	1.63	-4.44	18.10	86.49
화학재료	9.76	14.28	-	0.18	-2.84	18.21	546.73 <sup>3)</sup>
화학제품	12.17	5.80	9.39	1.79	-2.97	28.77	-
석유 및 석탄제품	5.57	-	15.73	2.46	38.06	41.33	-
고무·플라스틱제품	8.00	-2.07	5.02	-5.98	-10.92	22.59	158.24
비금속광물제품	5.11	0.94	3.27	-2.66	-15.47	18.46	1822.37
기초금속	7.41	7.39	4.87	0.50	-1.24	15.67	411.85 <sup>4)</sup>
금속제품	8.69	7.15	12.93	0.99	-6.02	13.28	-
기계	12.39	15.72	9.20	4.02	-2.76	15.12	699.19 <sup>5)</sup>
전기 및 전자제품	13.24	9.23	14.58	-1.26	-3.83	31.13	70.78
운수장비	12.53	7.75	3.14	1.55	-7.43	20.11	-
정밀기기	7.87	9.87	15.64	-0.06	-7.22	22.67	-
기타 공업	4.34	-3.45	1.62	-6.67	-16.24	25.25	-

註 : 1) 순고정자산스톡은 1992년의 데이터가 없기때문에 1986-1991년의 연평균증가율임.

2) 이 데이터에는 식품, 음료 및 담배가 포함되어 있음.

3) 화학재료와 화학제품이 포함되어 있음.

4) 기초금속과 금속제품이 포함되어 있음.

5) 기계 및 정밀기기가 포함되어 있음.

資料 : Chiu and Huang (1993)의 Table 4.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臺灣의 製造業은 보다 資本集約的인 産業으로 변화됨으로써 그 成長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構造變化는 業種別 成長趨勢를 비교할 때에도 뚜렷이 드러난다. 이 기간중 負(-)의 成長 혹은 제조업 전체평균 이하의 成長을 기록한 業種은 식료품, 음료 및 담배, 섬유, 의류, 피혁, 목·죽제품, 석유·석탄제품, 비금속광물, 잡제품으로서 勞動集約的 業種을 망라하고 있다. 반면 제조업 전체평균 이상의 성장을 기록한 업종은 제지·인쇄, 화학, 고무·플라스틱, 일차금속, 기계, 전기·전자제품, 운송기기, 정밀기기 등으로서 대체로 資本集約的인 重化學工業이다. 이러한 현상은 業種別 輸出成長率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관찰결과도 臺灣이 이 기간중 勞動集約的 製造業에서 資本集約的 製造業으로의 전환과정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이와 같은 業種別 成長·萎縮의 指標들을 業種別 海外直接投資 실적과 연계시켜 볼 때 뚜렷한 相關關係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특히 海外直接投資의 증대가 해당업종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입증할만한 뚜렷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예를들어 기계(정밀기기 포함) 업종의 海外直接投資는 전체평균의 5배 이상 빠르게 증가되었지만 해당업종은 생산, 수출, 투자는 물론 고용면에서도 평균이상의 성장을 나타내주고 있다. 나아가 業種別 成長指標와 海外直接投資(특히 開途國에 대한 海外投資)간의 相關關係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 因果關係에 있어서는 海外投資가 해당업종의 成長을 저해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쇠퇴업종에 있어서 海外投資가 증가한다는 것이 보다 설득력 있는 논리가 될 것이다. 결국 海外投資의 증대가 産業空洞化를 가져온다는 假說은 개념의 명료화와 보다 정교한 계량적 연구를 통한 검증을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

이상에서는 大陸投資를 포함하는 海外直接投資의 증대가 産業空洞化를 초래한다는 비교적 단순한 주장에 대하여 논의해 보았다. 이제는 보다 직접적으로 臺灣企業의 大陸投資가 臺灣經濟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논의해 본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臺灣에서 많은 연구가 행해져 왔으며, 그 예로서는 趙文璋(1990), Yen(1991), Chung(1992), Chiu and Chung (1992), Chiu (1992), 高長·嚴宗大(1992, 第六章), Kao(1993), Chiu and Huang(1993)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Chiu and Huang(1993)을 제외한 모든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방법론을 사용하여 그 파급효과를 추정해 본 것들이다. 이들 논의의 핵심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모두 臺灣의 大陸投資가 臺灣經濟에 대하여 갖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영향을 產業聯關 分析을 통하여 추정해 보는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먼저 긍정적인 효과로서 臺灣의 大陸投資 기업이 현지 생산에 필요한 原副資材의 대부분을 대만에서 수입함에 따라 臺灣의 輸出이 증대되고, 이와같이 유발된 수출이 연관산업의 生産과 雇傭을 증가시키는 것을 들고 있다. 이 효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먼저 이들은 다음의 式을 통하여 투자에 의한 수출 유발효과를 추정한다.

$$\Delta T = A \cdot r \cdot [\Delta K_i \cdot (Y_i/K_i)] \quad (1)$$

$\Delta T$  : 臺灣의 大陸投資가 유발시킨 對大陸 輸出

$A$  : 產業聯關表상의 投入係數 行列

$r$  : 臺灣 大陸投資企業의 臺灣으로부터의 中間재 수입비율

$\Delta K_i$  : 臺灣의  $i$  업종에 대한 大陸投資

$Y_i/K_i$  :  $i$  산업의 대륙내 產出資本比率(곧 資本生産性)

이 式은 臺灣의 大陸投資가 大陸內 生産의 증가로 나타나고 이는 관련된 中間財에 대한 臺灣의 對大陸 輸出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모델화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對大陸 輸出의 증가는 產業聯關 效果를 통하여 다시 臺灣內 生産의 증가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효과는 다음과 같은 產業聯關 體系하의 公式에 따라 계산이 가능하다.

$$\Delta Y_1 = [I - (I - M)A]^{-1} \cdot \Delta T \quad (2)$$

$\Delta Y_1$  : 輸出增加로 인한 각 産業의 產出效果

I : 單位行列(Identity Matrix)

M : 輸入係數行列

또한 위 결과로부터 臺灣內 각 産業의 勞動生産性 지표( $Y_1/L_1$ )를 통하면 雇用創出 效果도 계산이 가능하다. 물론 위의 계산과정에는 臺灣의 大陸投資의 업종별 실적( $\Delta K_1$ ), 臺灣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비율( $r$ ), 大陸內 각 産業의 資本生産性( $Y_1/K_1$ ), 및 臺灣의 産業聯關表상의 投入係數行列(A)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Delta K_1$ 에 대하여 어떤 통계를 사용하는가, 업종분류를 어떻게 하는가,  $r$ 과 ( $Y_1/K_1$ )에 대하여 어떤 가정을 하는가에 따라<sup>44)</sup> 연구마다 추정 결과에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臺灣의 大陸投資는 이상과 같은 긍정적 효과뿐 아니라 부정적 영향도 갖게 된다. 부정적 효과의 가장 핵심적 요소로 간주되는 것은 역시 投資代替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즉 大陸에 대한 投資는 臺灣內의 投資財源이 누출된 것으로서, 이 投資가 臺灣內에서 이루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었던 產出效果 만큼 臺灣經濟에 대하여 負(-)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위 연구들은 모두 이 추정에 있어서 大陸에 대한 投資와 동일한 액수만큼의 投資가 臺灣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 이 같은 가정을 따를 경우 臺灣經濟가 生産에 있어서 입게 될 영향은 같은 논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라 계산될 수 있다.

44) 이에 대하여 가장 상세하게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Chung(1992)의 경우  $r=1$ 로 가정하고, 각 産業의 大陸의 資本生産性을 臺灣의 1.2배로 가정하여 추정하고 있다.

$$\Delta Y_2 = -[I-(I-M)A]^{-1} \left( \Delta K_i \cdot \left( \frac{Y_i}{K_i} \right)' \right)$$

단  $\left( \frac{Y_i}{K_i} \right)'$  는 i 산업의 臺灣내 產出資本係數

결국 臺灣企業의 大陸投資가 臺灣의 GNP에 미치게 될 궁극적인 영향은 肯定的(+ )효과인  $\Delta Y_1$ 과 不定的(-) 영향인  $\Delta Y_2$ 를 합한  $\Delta Y = \Delta Y_1 + \Delta Y_2$  로 계산될 수 있다.

Kao(1993)이 제시하고 있는 推定 結果에 따르면(〈表 V-2〉 참조) 臺灣企業의 大陸投資는(7억6천만달러)는<sup>45)</sup> 7억2천만달러의(1990년 臺灣의 對中國 輸出의 22%) 輸出誘發 效果 ( $\Delta T$ )와 이에 따른 14억2천만달러의 生産誘發 效果( $\Delta Y_1$ )를 나타내었다. 반면 7억6천만달러의 資本漏出에 따른 生産減少 效果( $\Delta Y_2$ )는 41억3천만달러로 추정되어, 純효과는 27억천만달러의(1990년 臺灣 GNP의 1.67%) 生産減少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되 업종분류를 보다 세분화한 Chung(1992)의 결과는 輸出誘發 效果( $\Delta T$ ) 11억4천만달러, 이로 인한 生産誘發 效果( $\Delta Y_1$ ) 24억달러, 投資代替로 인한 生産減少 效果가 ( $\Delta Y_2$ ) 46억5천만달러로 나타나 종합적인 효과는 22억5천만달러의 生産減少로 추정되었다.

또한 이들은 臺灣經濟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海外市場에 있어서의 輸出代替로도 나타난다는 것을 지적한다. 즉 臺灣企業이 大陸에 투자하여 생산된 제품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대부분 제 3국시장에 수출됨으로써 臺灣으로부터의 수출을 잠식한다는 것이다. 大陸內 總生産의 70%를 輸出한다는 가정하에서 계산된 輸出代替 效果는

45) 1991년 4월8일까지 臺灣經濟部에 등록된 大陸投資 統計를 이용하였음. 제Ⅲ장에 나타난 통계와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時點 및 定意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추측됨.

〈表 V-2〉 臺灣 大陸投資의 臺灣經濟에 대한 波及效果

(단위 : 만달러)

과급효과 산 업	(1) $\Delta K$	(2) $\Delta T$	(3) $\Delta Y_1$	(4) $\Delta Y_2$	(5) $\Delta Y$ = (3) + (4)	(6) 수출 대체
제조업	67118.4	70310.0	120588.5	-357783.3	-237257.4	-200495.8
식료품 가공	2441.6	1320.3	2571.2	-9155.8	-6674.7	-5972.6
음료 및 담배	0	7.4	15.1	-23.6	-8.6	0
섬유직물	3199.5	8427.1	13125.2	-23551.7	-10426.5	-8367.9
의류	4660.0	1415.1	2398.9	-24003.3	-21604.5	-12187.7
피혁제품	668.0	1081.4	1553.1	-4887.4	-3334.2	-3488.4
목·죽제품	2589.8	1560.7	2125.8	-9144.8	-7019.0	-7186.2
제지·인쇄	1640.3	3096.5	6231.8	-10299.5	-4067.7	-3332.1
고무 및 고무제품	647.8	1007.5	1480.4	-3207.8	-1727.4	-1736.2
화학물질	1119.8	4754.8	12133.3	-18763.1	-6629.8	-3529.6
기타화학제품	925.1	2205.6	4268.2	-7673.7	-3405.5	-2410.6
합성섬유 및 제품	11979.9	17495.9	30137.1	-77421.5	-47284.4	-28833.4
석유제품	0	171.2	2560.8	-5533.2	-2972.4	0
비금속제품	2409.8	1043.8	1565.3	-5048.9	-3483.6	-3306.3
철강	0	2361.1	7725.9	-16028.3	-8302.4	0
기타금속제품	3171.8	4967.3	8838.4	-20570.9	-11732.6	-3696.5
기계	946.1	1182.5	1664.1	-3678.9	-2014.8	-2354.5
전기·전자제품	2433.2	2681.7	3469.7	-12182.0	-8685.3	-11049.9
전기기기	10274.8	8413.8	10131.0	-45386.4	-35255.3	-46660.0
운송기기	8110.8	4213.4	5397.8	-23882.9	-18485.1	-19004.7
기타제조업	9900.1	2902.9	3195.4	-37339.6	-34144.3	-37379.2
비제조업	8898.5	1721.4	21133.2	-55607.8	-34412.0	---
합 계	76016.9	72031.4	141721.7	-413391.1	-271669.4	-200495.8

資料 : Kao (1993), Table 7.

총 18~20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상과 같은 波及效果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 〈表 V-2〉에 제시되어 있다.

이외에도 大陸內 投資企業이 생산한 제품이 臺灣으로 逆輸入되는 것도 부정적 영향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臺灣으로의 逆輸入 比重은 대체로 總生産額의 10~15% 수준에 있다. 이에

따라 大陸內 臺灣投資 企業으로부터의 輸入은 약 2억7천만달러로서 1990년의 大陸으로부터의 總輸入중 35%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위와 같이 정리한 결과에 따르면 臺灣企業의 大陸投資는 臺灣經濟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위와 같은 推定方法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존재하는데, 그 중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이른바 ‘投資代替’ 및 ‘輸出代替’를 계산하는 과정에 도입된 假定에 있다. 즉 위의 계산과정에서는 臺灣의 大陸投資가 동일한 액수만큼 臺灣內의 投資를 감소시켰다는 가정하에서 生産減少 效果를 추정하였다. 그러나 大陸에 대한 投資중 대부분이 臺灣內 生産의 競爭力이 상실된 결과 불가피하게 大陸으로 투자된 것이다. 또한 그 중 상당부분은 臺灣內에서는 더 이상 효율적으로 생산에 활용하기 어려운 遊休設備의 移轉인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大陸投資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해당기업의 臺灣內 生産은 市場競爭의 결과로 자연히 위축 또는 소멸되었을 것이고, 大陸에 대한 投資와 동일한 投資가 臺灣內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극히 작다고 하겠다. 마찬가지로 논리로 大陸生産을 통한 제3국 輸出이 100% 臺灣으로부터의 輸出을 대체한다는 가정도 무리한 것이다.

또한 위의 추정에는 臺灣企業의 大陸投資時 대부분의 機械·設備가 投資資金( $K_1$ )에 포함되어 수출되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中間財 輸出만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 긍정적 효과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VI장 1절에서 소개된 바 있는 이 효과는 <附表 2>에 제시된 臺灣의 對大陸 輸出商品 構造에서 1992년의 10대 輸出品目 중 機械類가 5종(SITC 72, 74, 76, 77, 78류)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大陸投資와 관련된 이러한 機械·設備의 輸出은 該當業種 및 聯關業種의 生産增大를 가져올 뿐 아니라 이들 産業의 中長期的 成長을 촉진하는 효과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大陸投資를 통한 完製品의 大陸內 新市場 擴大 效果도 위의 추정에서는 포함되지 않고 있어서 역시 긍정적 효과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결국 위 추정에 있어서의 문제의 핵심은 위와 같은 比較靜學的 분석

(comparative statics)이 産業構造 調整 및 市場擴大라는 動態的 過程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海外投資가 단기적으로 生産과 雇傭에 負(-)의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長期的으로는 限界産業의 企業들의 退出을 용이하게 하며 高附加價値 産業으로의 構造調整을 원활히 할 뿐 아니라 새로운 市場을 창출하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假說은 앞의 <表 V-1>에 나타난 바와 같이 臺灣의 製造業이 重化學工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成長하고 있는 점에서도 부분적으로 뒷받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海外直接投資가 갖는 中長期的 效果에 대한 더 많은 실증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한편 Chiu and Huang(1993)은 臺灣의 經濟成長, 産業構造 轉換, 海外直接投資간의 因果關係를 분석하면서, 勞動集約的 産業의 경우 資本과 勞動의 限界生産性이 감소하고 있으며, 나아가 해당 産業에서의 企業의 退出(exit)이 오히려 生産增加에 기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현상이 해당 산업의 과도한 競爭狀態를 반영하는 것이며, 이러한 현실이 결국 臺灣企業의 海外投資를 합리화한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이들은 海外投資가 勞動集約的 産業의 경우에는 그 쇠퇴를 가속화하는 반면, 技術集約的 産業의 경우에는 海外投資가 오히려 해당 산업의 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또한 海外直接投資가 提供國(home country)과 誘致國(host country)의 製造業 生産성에 미치는 영향을 臺灣과 中國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결과 이들은 海外直接投資가 兩岸間 資本의 限界生産性的 차이를 줄여 접근시키고, 나아가 양측 모두의 總要素生産性(total factor productivity)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발견을 하였다. 더우기 이들이 추정된 總要素生産性 증가의 크기는 中國보다 臺灣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海外投資가 臺灣産業의 生産성을 높게 된 것은 大陸을 포함한 海外生産과 國內生産의 立地的 특성을 고려한 水平·垂直分業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가능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46)</sup> 결국 이들은 海外直接投資가 國際적으로

生産의 效率性을 높인다는 것을 초보적이거나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 2. 中國經濟에 대한 波及效果

臺灣企業의 大陸投資가 中國經濟에 미치는 영향은 臺灣經濟에 대한 영향에 비해 그 긍정적·부정적 효과에 대한 논란이 훨씬 적다. 그러나 그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는데에는 역시 큰 어려움이 따른다. 먼저 臺灣企業의 大陸投資가 大陸經濟에 미치는 可視的·直接的 波及效果로서는 外貨 投資資本의 증대를 통한 資本形成, 生産 및 雇傭 創出, 輸出 增大을 통한 外換收入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不可視的·間接的 波及效果로서 技術水準 및 勞動生産性 향상, 勞動力 移動의 증가를 통한 資源配分의 效率性 증대, 觀光收入의 증대, 中國의 經濟體制 改革 특히 企業 所有制 改革의 촉진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위와 같은 긍정적 효과이외에 부정적인 영향으로서는 臺灣의 投資企業과 大陸 內 現地企業간의 競爭 특히 輸出市場에서의 경쟁격화를 통한 採算性 악화 및 市場 잠식, 大陸 現地企業으로부터의 기술인력 스카우트 및 나아가 臺灣人과 現地人간의 사회적·문화적 갈등의 발생 등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영향들은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추정이 가능한 몇 측면에서만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本節에서는 中國側의 實際利用 基準에 따른 공식 投資統計를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그러나 제Ⅲ장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이 통계는 實際 投資를 過小評價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하의 추정결과에도 동일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臺灣과 大陸經濟의 규모의 차이 및 臺

46) Tuan(1993)은 홍콩의 중국투자에 관하여 비슷한 결과, 즉 홍콩의 노동집약적 업종들의 경우에도 대륙투자 후에 국내생산의 勞動生産性이 증대된 것을 발견하였다.



灣企業 大陸投資의 地域的 集中性을 고려할 때 위에서 지적한 여러 측면들을 大陸 全體의 입장에서 보다는 臺灣企業의 投資가 집중된 몇 地域에서 뚜렷이 나타난다는 점을 미리 지적해야 할 것이다.

먼저 資本形成의 측면에서 보면 1991년과 1992년의 경우 總 外國人直接投資는 실행기준으로 각각 44억달러와 110억달러로서 中國의 總 固定資產投資額의 4.2%와 7.7%<sup>47)</sup>를 차지하였다.<sup>48)</sup> 그런데 1991년과 1992년에 中國측 統計에 따른 臺灣의 投資實行額은 각각 4억7천만달러와 10억5백만달러로서 全體 外國人投資額의 10.7%와 9.5%를 차지하였으므로, 臺灣投資의 全國 固定資產投資에 대한 비중은 약 0.5~0.7%에 그치는 상황에 있다. 그러나 臺灣企業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 국한해서 본다면 臺灣企業의 資本形成 기여도는 훨씬 높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들어 상대적으로 臺灣의 투자가 가장 집중되고 있는 福建省의 경우, 1991년과 1992년의 外國人直接投資 實行額이 각각 6억4천4백만달러와 14억천6백만달러로서 全省 固定資產投資總額의 25.9%와 39.5%(외환조절시장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할 경우 각각 28.3%와 46.7%)를 차지하였다. 이에 臺灣으로부터의 投資가 福建省내 전체 外國人投資(契約基準)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92 기간중 20%에 달했다는 것을<sup>49)</sup> 적용하면, 臺灣은 이 기간중 福建省의 固定資產投資의 5.2~7.9%(혹은 5.7~9.3%)를 공급하였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둘째로 生産 측면에서 통계자료가 가능한 工業部門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체 外國人投資企業은 1991년과 1992년에 각각 工業生産總額의

47) 外國人直接投資額을 공식환율을 적용하여 元貨로 환산할 경우임. 보다 실제에 가까운 외환조절시장의 환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4.6%, 9.1%에 상당한다.

48) 단 外國人直接投資가 모두 고정자산투자로 활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위에서 계산된 비중은 엄밀한 의미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총고정자산투자에 대한 비중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49) 顧銘 (1993), p.1, 이 기간중 계약기준의 臺灣投資는 1430건, 17억8천만달러로서, 總 外國人直接投資 5296건, 89억6천만달러의 27%와 20%를 차지하였다.

5.7%와 7.1%에 해당하는 1600億元과 2634億元을 생산하였다. 이에 臺灣의 투자가 실행누계기준으로 總 外國人直接投資중 1991년말에 3.9%(9억달러), 1992년말에 5.5%(19억달러)였던 것을 비례적으로 적용하면 臺灣投資企業의 工業生産 기여액은 1991년과 1992년에 각각 62億元(약 11억7천만달러)과 145億元(약 26억3천만달러)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臺灣投資의 工業部門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위 수치는 실제보다 과소평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앞 절에서 소개한 바 있는 產業聯關 분석을 통한 臺灣投資의 파급효과에 관한 한 연구에 따르면(Chung(1992)) 7억5천만달러의 臺灣投資가 大陸內에서 年 26억달러의 생산 기여를 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위의 추정치 중 어느 것을 채택하더라도 臺灣의 투자가 대륙내 생산에서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한 수준(0.5%내외)이내이지만 生産 增加分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즉 1992년의 경우 工業總生産額 증가분 8400億元중에서 臺灣投資의 기여분은 1~2%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우기 臺灣의 投資가 집중되고 있는 地域을 국한해서 본다면 臺灣投資의 生産에 대한 기여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세째로 僱傭創出 측면에서도 통계자료의 불비로 인하여 그 추정이 간접적일 수 밖에 없다. 먼저 中國측 공식통계에 따르면 홍콩·臺灣·華僑를 포함하는 外國人投資企業의 총 종업원은 221만명으로 나타나 있다.<sup>50)</sup> 그러나 다른 통계에 따르면 이미 1989년말에 外國人投資企業의 총 종업원이 235만명에 달했다고 한다.<sup>51)</sup> 이 통계에 기초하여 外國人直接投資 실행누계가 1989년말의 155억달러에서 1992년말에는 344억달러로 120% 증가한 것을 원용한다면 外國人投資企業의 총 종업원수는 1992년말에 519만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1992년말 현재 外國人投資

50) 中國統計年鑑 (1993), p.109.

51) 中國企業管理年鑑 (1990), pp.525~526.

企業의 총고용은 최저 221만에서 최고 519만에 이르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實行 累計基準으로 臺灣이 總 外國人投資중 차지하는 비중이 5.5%인 것을 원용하면 臺灣投資 企業의 고용자 수는 12만~26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臺灣企業의 投資業種이 勞動集約的 製造業에 집중된 것을 고려한다면 投資額上의 比率보다는 雇傭上의 比重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위의 추정은 실제보다 상당히 과소 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 中國學者가 1억달러의 투자가 24,000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추정한 것을<sup>52)</sup> 원용한다면, 臺灣投資企業은 1992년말 현재 약 46만명을 고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1992년 한해 동안 약 24만명을 신규 고용함으로써 中國全體의 勞動力 增加의 약 2.2%를 흡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sup>53)</sup> 또한 臺灣學者의 產業聯關 分析을 통한 추정에 의하면<sup>54)</sup>, 7억5천만달러의 투자가 나타난 1991년초의 시점에 이미 28~42만의 고용창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臺灣投資의 지역적 집중성을 고려한다면 福建省 등 일부 지역에서는 臺灣投資의 雇傭寄與 效果도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臺灣投資 기업의 경우 기존의 都市 勞動者보다는 農村으로부터 유입된 新規 勞動者의 고용을 선호하기 때문에<sup>55)</sup> 勞動移動의 촉진 및 農村의 剩餘 勞動力 吸收라는 효과도 갖는다.

네째로 中國에 있어서 外國人投資企業의 輸出은 1991년에 120억달러, 1992년에 174억달러에 이르렀고, 전체 輸出에의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증대되어 1991년에는 16.7%, 1992년에는 20.4%에까지 이르렀다. 累計基準의 臺灣投資의 比重을 비례적으로 적용하여 臺灣投資企業의 輸出額을

52) Li Wuwei (1993), p.8.

53) 中國에서는 1992년중 1070만명의 새로운 노동력이 등장하였다. 중국통계년감 (1993), p.97.

54) Chung (1992), p.17.

55) Xu and La Croix(1993)의 廈門地域 臺灣投資企業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종업원의 70~80%가 다른 지방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해보면 1991년에는 4억6천만달러, 1992년에는 10억달러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臺灣의 投資企業은 상대적으로 輸出比率이 높기 때문에<sup>56)</sup> 위 추정치보다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 中國學者는 1991년중 臺灣投資企業의 輸出額이 7~8억달러로서 中國 總輸出의 1.2%를 차지하였고, 특히 福建省의 경우에는 臺灣投資企業의 輸出이 총수출액의 10%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였다.<sup>57)</sup> 그러나 앞 장에서 소개하였듯이 臺灣의 투자기업들은 기계·설비 및 원료·부품을 대부분 輸入하고 제품을 輸出하는 유형의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sup>58)</sup> 國際收支 改善效果는 輸出額에 비해서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로 臺灣投資企業의 技術移轉 效果는 쉽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大陸內 中小企業의 技術水準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臺灣의 투자기업들이 도입한 기술은 높은 수준의 신기술은 아니지만, 대부분 實用的인 生産技術로서 단기간내에 흡수되어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臺灣投資企業의 大陸內 合作파트너나 下請生産企業들이 중소규모의 鄉鎮企業들이기 때문에 鄉鎮企業의 기술수준을 향상시켜 都市와 農村의 技術隔差를 줄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59)</sup> 또한 Chiu(1992)는 大陸 電子産業의 地域別 勞動生産性 推移의 분석을 통하여 臺灣投資企業이 보다 효율적인 技術 및 經營方法을 도입하여 勞動生産性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臺灣의 大陸投資企業들이 大陸內的 聯關産業과의 연계를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기여가 확산되는 데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이외에 大陸經濟에 미치는 不定的인 側

56) 中國內 臺灣 投資企業의 수출비율은 80%이상으로서 一般 外國人投資企業의 수출비율인 27%의 세 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陳麗瑛(1993), p. 85)

57) Li Wuwei (1993), p.7.

58) 中國에서는 이를 兩頭在外라고 한다.

59) Li Wuwei (1993), p.8.

面도 지적되고 있다. 대륙학자인 Li Wuwei(1993)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臺灣 및 다른 外國人投資 企業의 증가와 이에 따른 大陸 現地企業과의 경쟁격화로 인하여 특히 輸出採算性의 악화가 나타나고 있다. 中國 對外經濟貿易部의 조사에 따르면 臺灣의 大陸投資 企業이 대륙의 현지 기업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품목의 수가 美國市場의 경우 295종, 日本市場의 경우 88종, 홍콩시장의 경우 246종에 달하였다. 이와 같은 경쟁이 궁극적으로 生産性 向上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측면도 있지만, 臺灣投資의 주업종이 섬유, 신발, 우산 등 수입쿼타에 묶여 있거나 이미 경쟁이 심한 勞動集約的 業種들이기 때문에 價格引下로 인한 採算性 악화 및 나아가 美國 등의 주요 輸入國의 輸入規制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다른 형태의 부작용으로서 기업들간의 技術者 및 熟練勞動者에 대한 확보 경쟁을 들고 있다. 이러한 경쟁도 궁극적으로 자원의 效率的 配分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大陸의 現地企業들이 경영상의 자율권에 여러 제약을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폐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非經濟的인 側面에서 臺灣의 富裕한 投資者와 大陸現地の 從業員 및 一般 住民과의 관계에서 문화적 갈등이 나타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위에서 제시된 각종 肯定的 영향들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擴大·深化될 것이 예상된다. 즉 臺灣의 投資(실행기준)가 1992년에 전년대비 2배 이상인 10억달러에 이르렀고 이후에도 그 확대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資本形成, 生産, 雇傭, 輸出 등의 직접적 효과들은 계속 눈에 띄게 확대될 것이다. 다만 中國側으로서는 앞으로 현지 原副資材 購入比率 제고를 통한 大陸內 附加價値의 증대, 수반하는 技術의 高級化 등을 더욱 희망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위에서 지적한 부작용은 당분간 그 정도가 심화될 것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완화되거나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로 전환될 성질의 것으로 판단된다.

## VI. 展望과 示唆點

### 1. 展望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臺灣企業의 大陸投資는 지난 4~5년간 급증 추세를 보여왔으며, 그 경제적 과급효과가 이미 팔목할만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관심사는 臺灣의 大陸投資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臺灣의 大陸投資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여, 본격적인 臺灣企業의 大陸投資가 실현될 것인가? 앞으로의 臺灣企業 大陸投資는 기존의 투자와 어떻게 다른 성격을 띠 것일까? 이른바 ‘三通’의 문제가 해결되어 제3국을 경유하지 않은 直接通航, 直接交易, 直接投資가 조만간 가능해질 것인가? 이 과정에서 臺灣經濟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인가? (南部)中國·홍콩·臺灣을 포괄하는 이른바 ‘華南經濟圈’ 혹은 ‘中華經濟圈’이 어떤 모습으로 가시화될 것인가?

本節에서는 간략하나마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먼저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변수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핵심 변수로서는 國際政治·經濟環境, 臺灣의 政治·經濟環境 및 中國의 政治·經濟環境의 變化를 들 수 있다. 즉 이러한 變數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면서 兩岸간의 經濟關係, 특히 臺灣企業 大陸投資의 여건을 조성하는가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하겠다.

첫째로 國際環境의 측면에서는 먼저 先進國의 輸入規制 강화와 地域主義의 확산을 주요한 변수로 꼽을 수 있다. 최근에는 EC, NAFTA 등 經濟的 地域主義가 현시화되고, 주요 先進國들의 輸入規制가 강화되면서 臺灣의 經濟成長을 선도하던 輸出이 타격을 입고 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수록 生産基地로서의 또한 新市場으로서의 大陸의 중요성

은 증대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大陸投資가 증대될 소지가 있다. 이 밖에 다른 國際的 環境 變數로서는 美·中關係의 變化를 들 수 있다. 특히 美·中關係의 악화가 지속되어 美國의 中國에 대한 最惠國待遇가 철회될 경우 臺灣의 투자는 상당부분 大陸으로부터 東南亞 등 다른 지역으로 다시 전환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美·中關係가 앞으로는 호전될 것이고, 最惠國待遇도 결국에는 계속 부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 있다. 결국 이러한 國際的 政治·經濟 變數들은 臺灣企業의 中國投資가 지속적으로 증대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로 臺灣의 국내적 여건에 있어서 經濟的 側面과 政治的 側面을 구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經濟的 側面에서는 현재 臺灣經濟가 당면하고 있는 勞動力 및 土地 供給의 不足, 勞動集約業種 製品의 國際競爭力 弱화, 과도한 外換保有庫, 國內投資率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貯蓄率 등의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臺灣企業들은 海外投資의 대상지역으로서 여러 장점을 가진 大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려고 할 것이며,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臺灣政府에 대하여 기존의 억제정책을 완화하도록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다.

한편 政治的인 側面에서는 臺灣 사회 일각에서 '臺灣獨立'의 주장이 강하게 등장하겠지만 이 주장이 대세를 이루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즉 臺灣에서는 國民黨의 '臺灣化'가 진행되면서, 한편으로 大陸과의 급속한 統一도 부정하고 다른 한편 中國側의 무력행사 혹은 경제적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臺灣獨立'도 부정하는 現狀維持 정책이 主調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망의 근거는 臺灣의 경제성장 결과로 중산층의 폭이 두터워짐에 따라 社會의 安定과 國民의 經濟的 利益 보호가 政治의 最優先 要素로 등장하는 것에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臺灣當局은 政治的으로는 現狀維持를 기조로 하고, 經濟的인 側面에서는 大陸과의 經濟關係에 대한 기존의 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臺灣의 국내적 요인의 측면에서도, 大陸投資를 확대시키

는 방향으로 條件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세째로 中國의 정치·경제여건에 있어서도 기존의 改革·開放政策이 持續·深化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臺灣投資 誘致의 條件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中國이 ‘社會主義 市場經濟’라는 명목하에서 經濟成長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움에 따라 對外開放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中國이 GATT 가입을 추진하면서, 換率 單一化를 통한 人民幣의 兌換性 획득, 外國人投資 許容業種의 확대,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內需市場 개방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여 外國人投資의 誘致를 위한 條件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와는 달리 外國人投資를 보다 技術集約的 業種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나타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여러 핵심변수들을 고려할 때 臺灣企業의 大陸投資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중기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投資擴大 과정에서 나타날 주요한 성격 변화로서는 投資業種의 多樣化와 技術集約的 業種의 비중 증대 및 投資地域의 多邊化 등이 예상된다. 특히 投資業種上의 변화에 있어서는 최근의 大陸投資에서 이미 나타나듯이<sup>60)</sup> 臺灣은 大陸이 보유하고 있는 基礎技術과 풍부한 科學技術 人力을 활용하는 유형의 投資를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는 現 段階 臺灣經濟의 중심과제인 技術開發 및 產業構造 高度화와 궤를 같이할 뿐 아니라, 臺灣이 보유하고 있지 못한 大陸 現地の 特有資產(location specific asset)이라고 할 수 있는 大陸 토착의 값싼 技術·技術人力의 활용이라는 海外投資의 기본 동기도 충족시키는 것이다. 즉 臺灣은 言語·文化의 同質性에 기초하여 이러한 大陸內 科學技術(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이미 이를 위한 情報蓄積과 戰略開發이 진행되고 있다.<sup>61)</sup> 이와 같은 성격의 유망 투자업종으로는 통신기기, 계측기기, 컴퓨터, 의약업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投資地域에 있어서는 기존 廣東省,

60) Chiu and Huang (1993), p.7.

61) 于宗先·陳麗瑛 (1992) 참조.



福建省 지역에 대한 집중에서 탈피하고, 위에서 지적한 投資業種 變化와 연계하여 上海지역(넓게는 揚子江 델타지역)으로의 多邊化가 눈에 띄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단기간내에 兩岸間의 政治的 關係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이른바 ‘三通’(通商, 通郵, 通航)에 의한 直接的인 經濟交流의 조기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大陸에 대한 臺灣企業의 投資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제3국을 경유하여 이루어지는 형식을 유지할 것이다. 다만 外換 送金上의 편의 증진 및 기타 비용을 절감시킨다는 차원에서 臺灣 金融機關의 홍콩진출 확대 및 기타 행정규제의 완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交易·投資가 홍콩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홍콩의 中國 歸屬이 1997년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三通的 문제도 그때까지는 어떤 형식으로든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sup>62)</sup>

또한 臺灣의 大陸投資가 증대됨에 따라 이미 홍콩과 廣東省 珠江델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經濟統合 현상이 확대되면서 이른바 ‘華南經濟圈’ 혹은 ‘中華經濟圈’의 형성이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홍콩의 경우 이미 서비스업에 特化하면서 製造業 생산을 접경한 대륙의 深圳 및 珠江델타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형태의 地域的 分業이 진전되어 왔는데, 이러한 현상은 홍콩과 이들 지역과의 실질적인 經濟統合의 진전으로 해석되고 있다.<sup>63)</sup> 앞으로 臺灣의 對中國(특히 福建省과 廣東省)

62) 臺灣의 총 수출중 홍콩이(대륙수출 포함)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에 이미 19%에 달했기 때문에 臺灣이 홍콩과의 直接交易關係를 단절할 가능성은 없다. 다만 홍콩이 中國에 귀속된 후에도 ‘特別行政區域’으로 지정될 것이기 때문에 홍콩과의 직접접촉이 三不政策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융통성 높은 해석을 할 가능성은 있다.

63) 홍콩의 GDP중 製造業의 비중은 1970년의 30.9%에서 1990년에는 16.7%로, 총고용중 제조업의 비중은 1980년의 46.0%에서 1990년에는 29.5%로 각각 하락하였다. 또한 홍콩내의 제조업 고용은 65만에 불과한데, 홍콩기업의 直接投資 및 委託加工 生産을 통하여 廣東省에서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 고용은 3백

투자가 증대되면서, 臺灣(자본, 제조업 기술)-홍콩(금융, 마케팅, 운송, A/S 등 서비스)-廣東省·福建省(토지, 노동력)간의 상호보완적인 결합 관계가 보다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합은 위 세 지역의 賦存資源과 經濟發展 段階의 相異性에 기인한 補完關係에 기초한 것으로서, 세 지역 경제에 모두 이득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經濟的 補完性에 기초한 이 地域의 經濟統合은 自由貿易協定과 같은 制度的인 經濟統合으로 나타나기 보다 機能的·實質的인 統合의 進展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독립된 國民經濟로서의 臺灣經濟는 몇 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크다. 臺灣企業의 大陸投資가 臺灣經濟의 構造調整을 원활히 할 뿐 아니라, 投資 母企業이 臺灣內에서의 생산활동을 지속하는 현 상황에서는<sup>64)</sup> 臺灣의 産業空洞化 현상이 그리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大陸에 대한 投資가 급속한 속도로 증가할 경우에는 臺灣産業의 構造調整 속도가 이를 따르지 못할 수 있으며, 이 경우 臺灣도 어느 정도 홍콩과 비슷한 脫工業化 과정을 거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臺灣은 홍콩과는 달리 大陸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어서 홍콩과 같은 地域的 擴張이 훨씬 어려우며, 兩岸間의 정치적 대립관계도 간단하게 해소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脫工業化의 정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大陸에 대한 經濟的 依存度가 과도한 수준에까지 이를 것이라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小規模 經濟인 臺灣으로서는 大陸에 대한 交易·投資 依存度가 크게 높아지면서 大陸의 정치·경제적 변화에 민감해질 것이고, 결국 그 영향을 크게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

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홍콩내에서의 제조업도 R&D, 소규모 샘플생산, 포장 등 3차산업에 가까운 성격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대량생산은 대부분 中國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Tuan(1993) 참조

64) 大陸에 투자한 臺灣企業 중 약 90%는 臺灣內 生産活動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Kao (1993), p.28.

이러한 점도 넓은 의미의 ‘中華經濟圈’ 혹은 ‘統一中國’의 등장이라는 長期的인 時角에 따른다면, 中華經濟圈내의 보다 효율적인 産業 再配置와 이를 통한 經濟大國의 등장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 2. 示唆點

이상에서 살펴본 臺灣企業 大陸投資의 現況과 波及效果는 여러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本節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南北韓 經濟關係, 韓國의 海外投資 增大의 國內經濟에 대한 영향, 그리고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進出 등의 세 측면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中國-臺灣의 關係는 南北韓 關係와 類似性和 相異性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兩岸關係로부터 南北韓 關係에 대한 직접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가 따른다. 먼저 臺灣은 經濟體制 및 經濟成長 段階에 있어 韓國과 비슷한 위치에 있으며, 體制가 다르고 經濟成長에 뒤쳐진 분단된 동일민족 국가를 상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韓國과 유사한 상황에 있다. 그러나 南北韓 關係와 비교할 때 臺灣이 大陸에 비해 전체적인 國力에 있어(인구, GDP규모, 군사력, 국제정치적 위치 등) 압도적인 劣位에 있다는 점과 中國이 北韓과는 달리 改革·開放을 상당히 진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이를 經濟的인 側面에서 해석해 본다면, 中國은 臺灣에 대하여 土地·勞動力 및 각종 資源의 공급원, 방대한 新市場, 科學技術의 제공원으로서 臺灣經濟에 기여할 여지가 큰 상황이고, 經濟規模의 큰 격차로 인하여 臺灣이 中國의 經濟問題 해결에 열쇠가 되지는 않는 상황이다. 반면 北韓은 南韓에 대하여 勞動力 및 일부 資源 측면의 기여가 있겠지만 市場 및 技術 측면에서의 기여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고, 統음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南韓經濟에 커다란 부담을 야기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또한 中國의 경우 臺灣과의

경제교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반면, 北韓은 南韓과의 經濟交流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점에도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相異性을 고려할 경우 南北韓 經濟關係는 臺灣-中國 經濟關係와는 다르게 진전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南北 經濟關係의 진전을 도모하는 데에 있어서, 兩岸經濟關係로부터 시사점을 얻을 수는 있을 것이다. 즉 臺灣-中國간에 여러 政治的·制度的 障礙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非公式的 民間 經濟交流의 확대를 통하여 互惠的인 經濟關係를 형성한 것은 南北韓 關係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성과를 얻는 데 있어, 中國과 臺灣政府가(특히 臺灣政府가) 形式과 名分에 덜 얽매이면서 互惠的인 經濟交流를 용납하는 융통성 있는 정책을 실시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南北韓 經濟交流에 대한 우리 政府의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향의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 정부의 北韓과의 經濟關係 형성을 위한 기존의 정책 추진 방향은<sup>65)</sup> 基本合意書 및 部門別 合意書의 체결을 통하여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그 틀 안에서 南北間의 經濟交流를 확대시켜나간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의 추진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中國-臺灣 式의 非公式的 經濟交流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현재 韓國은 과거에 보유하였던 勞動集約的 製造業의 경쟁력 있는 生産技術과 輸出市場을 상실해 가는 과정에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빠른 속도로 生産기지를 東南亞·中國으로 이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 비하여 北韓은 언어·문화, 거리 등의 측면에서 韓國企業의 勞動集約業種 投資 誘致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勞動集約的 製造業의 直接投資 및 賃加工은 南北韓에 모두 이득을 줄 수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韓國政府는 北韓과의 公式的·制度的 經濟協力 기반 구축에 앞

65) 핵 문제가 핵심이 되는 정치적 문제 자체에 대한 논의나, 政治的 問題와 經濟問題간의 선후관계에 대한 논의는 本 研究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서, 國內企業의 제3국 현지법인 등을 통한 非公式的인 對北韓 經濟進出을 허용·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유망지로서는 中國(특히 東北지역)과 홍콩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 기업의 勞動集約業種 海外投資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방향으로의 政府의 조치는 가능한 빨리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韓國에서도 1980년대말 이후 海外直接投資가 크게 증대되면서 産業空洞化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최근까지는 海外投資를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정책을 실시해 왔다.<sup>66)</sup> 그러나 우리보다 經濟規模는 작지만 海外直接投資는 훨씬 많은 臺灣의 경우에 나타난 결과는 國內 製造業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또한 産業構造의 高度化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臺灣의 예는 海外直接投資가 국제적인 垂直·水平 分業體系의 구축을 통하여 國內産業의 生産性 향상과 國際的 相對優位에 기초한 産業構造 再編을 원활히 한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韓國의 경우 臺灣과 비교하여 구체적인 經濟狀況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兩國의 주요 巨視經濟指標 및 産業構造의 推移가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sup>67)</sup> 기초해 볼 때, 비슷한 추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韓國의 구체적인 자료를 통하여 海外直接投資, 産業構造 變化, 業種別 生産性 推移간의 關係에 대한 체계적인 실증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

66) 예를 들면 1992년까지 신발업종의 海外投資를 국가당 5개 업체로 제한하였던 것이나, 유통·서비스업의 투자를 엄격하게 제한해 온 것 등을 들 수 있다.

67) 韓國과 臺灣의 주요 巨視經濟指標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貯蓄率과 國內投資率이 더 높은 수준에 있고 臺灣의 外換保有庫가 더 높기는 하지만, 賃金, 失業率, 換率 등의 변화 방향의 측면에서는 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韓國의 國內投資率이 臺灣보다 크게 높다는 것은 産業空洞化의 가능성이 더 낫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다만 韓國의 경우 外환보유고가 작고, 國內投資率(1992년 36.1%)이 總貯蓄率(1992년 34.9%)을 상회하는 것이 海外投資의 급속한 증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만, 臺灣의 예를 통해 볼 때 産業空洞化에 대한 과도한 우려나 海外直接投資의 制限의 주장은 그 근거가 미약하다고 보인다.

끝으로 韓國企業의 中國投資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측면에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臺灣企業 大陸投資에 있어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적인 변화로부터 우리 企業의 투자진출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臺灣企業들은 종래의 福建·廣東地域에 대한 勞動集約的·輸出指向型的 投資로부터 점차 새로운 성격의 투자로 전환시키고 있다. 投資業種에 있어서는 기술집약적 업종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大陸의 과학기술 인력을 경제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投資地域에 있어서는 上海를 중심으로 하는 揚子江 델타지역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위에서 지적한 技術集約的 業種으로의 전환 및 中國 內需市場 진출 확대라는 投資動機상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론 臺灣企業이 보유하고 있는 言語·文化·人脈上的 優位와 中國側의 실질적인 우대를 고려할 때 臺灣企業의 투자방향을 우리 기업들이 평면적으로 추종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도 그들처럼 中國經濟의 여건 및 中國側의 政策變化에 대응하여 中國投資의 성격을 전환시켜야 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 즉 中國內 地域別 特性의 차이, 臺灣 등 다른 外國人投資企業과의 競爭, 中國 現地企業의 競爭力 향상, 中國의 內需市場 開放速度 및 換率政策의 전환, 投資獎勵業種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中國 內需市場 진출노력의 확대, 이와 관련한 投資業種(특히 技術集約業種 및 流通業種으로) 및 投資地域(특히 揚子江 델타지역으로)의 多邊化, 中國 科學·技術의 활용을 위한 投資 등은 우리 기업들도 추진해야 할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臺灣企業의 中國投資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臺灣-홍콩간의 協業關係를 시사점으로 제기하고자 한다. 현재 中國에 대한 外國人投資에 있어 선두주자는 홍콩으로서 中國 投資事業의 핵심적인 요소인 情報와 人脈構築에 있어서 가장 많은 축적이 이루어져 있다. 최근 臺灣의 기업도 中國에 대한 투자를 크게 증대시키고 있지만 아직도 여러 제도적인 제

약화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문에서도 지적하였듯이 臺灣企業들은 大陸에 대한 투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홍콩을 ‘情報·經驗의 提供者’, ‘仲介者’ 및 ‘각종 서비스 제공자’로서 활용하고 있다. 이는 홍콩이 製造業 技術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다른 외국의 제조업체와 공동으로 中國에 투자하거나, 外國人投資企業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誘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韓國企業들도 中國에 투자할 때 華僑圈의 기업과 연합하여 진출할 필요가 있는데, 이 때 가장 적합한 대상이 홍콩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臺灣企業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기업과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동진출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홍콩의 기업이 적절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中國側이 강력히 희망하는 技術集約型 投資에 있어서 韓國의 製造業 生産 技術과 홍콩의 자금·정보 및 서비스 기능이 결합하는 것의 실현 가능성은 특히 홍콩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揚子江 이북지역에 대한 진출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參 考 文 獻

### 〈東洋語 文獻〉

- 經濟部 臺灣投資審議委員會 編, 在大陸地區從事投資或 技術合作准許類 · 禁止類項目表, 1993. 3
- 高孔廉, 大陸經貿政策 : 現況與未來, 1992. 3, 行政院 大陸委員會
- 顧銘, “福建省 吸收臺資的 研究”, 1993, University of Hawaii, East-West Center, 上海會社科學院 공동주최 국제세미나(1993. 5. 17-18, 中國 上海)
- 高長 · 嚴宗大 (主編), 兩岸 經濟交流之現況及發展趨勢研究, 1992. 6, 中華經濟研究院
- 金樹基, “臺灣海協 兩岸關係 現況과 未來” 동아시아연구회, 中華民國 大使 招請 간담회 발표, 1992. 6
- 金時中, “中國 · 臺灣 經濟關係의 進展과 示唆點”, 1993, 韓國開發研究院 · 韓國經濟 新聞社 공동주최 국제세미나(1993. 9. 13, 서울) 발표 논문
- 金時中 · 閔充基 · 柳在元, 海外直接投資의 現況과 政策課題,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2
- 范錦明, “兩岸經濟關係之 經濟面”, 月刊會計研究(臺灣), Vol. 88, 1992. 12
- 安鍾石, 韓國企業 對中 投資 實態와 向後課題, 對外經濟政策研究院 地域 情報센터, 1993
- 嚴宗大, “臺商大陸投資型態의 演變”, 經濟前瞻, Vol. 27, 1992. 7, pp.31-33
- 于宗先 · 陳麗瑛 (主編), 兩岸 產業科技交流與合作之評估, 1992. 12, 中華經濟研究院
- 劉映仙, “兩岸經貿關係의 現狀, 問題和思考”, 周叔蓮 · 閔建蜀 編, 九十年代 海協兩岸及香港 經濟合作前經(1991) 中 pp. 157-170



- 孫漢超, “中韓經貿現狀及存在的問題”, 第3次 韓中經濟知識交流 세미나 (1993. 10. 17-19, 中國 北海) 發表 論文
- 李玟炯, 中國·臺灣間 統一政策 與 經濟協力 展望, 1991. 5, 產業研究院
- 趙文璋, 我國 製造業 對外投資與總體經濟結構調整 關聯的 初步觀察, 經濟部 經濟研究室, 1990
- 曹小衡, “臺商對大陸 投資的 原因與前景,” 1993, 中國社會科學院 臺灣研究所
- 周添城·吳惠林, “臺灣產業空洞化問題的省思與檢討”, 經濟前瞻, Vol. 20, 1989. 10
- 曾道先, “海協兩岸和香港科技合作向題”, 周叔蓮·閔建蜀 編, 九十年代 海協兩岸及香港 經濟合作前經(1991) 中 pp. 171-181
- 陳麗瑛, “由東南亞及大陸投資模式異國談兩岸產業互動”, 經濟前瞻, Vol. 27, 1992.7 pp.26-30
- 陳麗瑛, “港, 韓, 臺商大陸投資之比較”, 經濟前瞻, Vol. 31, 1993. 7
- 陳維鸚, “兩岸經濟關係之 會計稅務面”, 月刊會計研究(臺灣), Vol. 88, 1992. 12
- 丸山伸郎 (編), 華南經濟圈, 1992, アシア經濟研究所

〈英語文獻〉

- Ash, Robert F. and Y. Y. Kueh, “Economic Integration within Greater China: Internatinal Trade and Foreign Investment Flows Between China, Hong Kong and Taiwan,” *China Quarterly*, Dec. 1993, pp. 169-203
- Chang, Maria Hsia, “Taiwan’s Mainland Policy and the Reanification of China,” 1990, The Clearemont Institute
- Chiu, Lee-in Chen, “Economic Reunion of Taiwan and the Mainland China - The Impact on Industrial Development,” Discussion Paper 92-03,

- May 1992, Chung-hua Institution for Economic Research
- Chiu, Lee-in Chen and Chin Chung, "An Assessment of Taiwan's Indirect Investment in Mainland China," *Asian Economic Journal*, 1993
- Chiu, Lee-in Chen and Chi-tsung Huang, "The shift of Factor Productivity and Technological Efficiency via DFI : Evidence from the Industrial Interaction between Taiwan and Mainland," 1993. 6, presented at the seminar o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aiwan Industry
- Chung, Chin, "Impacts on Domestic and Host Economies of Taiwan's DFI toward Mainland China," Jan. 1992, Chung-hua Institution for Economic Research
- Hsiao, Michael H. H. and Alvin Y. So, "Taiwan-Mainland Economic Nexus: Socio-Political Origins, State-Society Impacts, and Future Prospects," pap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workshop on Emerging Patterns of Foreign Investment in East Asia (Honolulu, 1-2 May, 1992)
- Kao, Charng, "A Greater China Economic Sphere: "Reality and Prospects," November 1992, *Issues and Studies*
- Kao, Charng, "Economic Interaction between the Two Sides of the Taiwan Strait," mimeo, May 1993, Chung-hua Institution for Economic Research
- Kwok, Reginald Y. W., "Hong Kong Investment in South China," pap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merging Patterns of Foreign Investment in East Asia (Shanghai, 16-18 May, 1993)
- Lin, Yuh-jiun and Chin-shu Huang, "Development of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the two Sides of Taiwan Strait," paper presented at conference on Global Interdependence and Asia-Pacific Cooperation (Hong Kong, 8-10 June, 1992)
- Metzger, T. A., "The Unification of China and the Problem of Public

- Opinion in the ROC in Taiwan,” 1992, Hoover Institution
- Pomfret, Richard, “Taiwanese Economic Involvement in Jiangsu Province: Some Evidence from Joint Venture Case Studies,” pap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merging Patterns of Foreign Investment in East Asia (Shanghai, 16-18 May, 1993)
- Tuan, Chyau, “Cross-Border Operations and Structural Adjustment of Hong Kong Manufacturing Sector,” paper presented at the First Seoul Journal of Economics Symposium (Seoul, 27 Nov. 1993)
- Xu, Yibo and Sumner J. LaCroix, “Political Uncertainty and the Impact on Taiwan’s Investment in Mainland China,” pap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merging Patterns of Foreign Investment in East Asia (Shanghai, 16-18 May, 1993)
- Yen, Tzung-ta, “Taiwan Investment in Mainland China and Its Impact on Taiwan’s Industries,” *Issues and Studies*, May 1991, pp. 10-42

#### 그외

- Beijing Review
- China News Analysis
- FBIS Daily Report, China
- 기타 日刊新聞

# 附 録



## 【附錄 1】

## 中國·臺灣의 交易關係

兩岸間의 적대관계 유지에 따라 1970년대 말까지 유지한 수준에 머물렀던 兩岸間의 交易은<sup>1)</sup> 1979년 이후 대체로 매우 빠른 증가를 보여왔다. 그러나 臺灣側의 三不政策 유지에 따라 아직도 대부분의 交易이 제3국을 거쳐 이루어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중 대종을 차지하는 동시에 가장 체계적인 통계가 제공되는 것이 홍콩을 경유한 間接交易(entrepot trade)으로서, 兩岸間 總交易의 70~7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sup>2)</sup> 이외에도 日本, 싱가포르 등을 경유한 間接交易과 ‘海上小額貿易’이라고 불리는 直接交易 및 密貿易이 존재한다. ‘海上小額貿易’이라는 것은 中國이 동남해안 곳곳에 설치한 ‘臺灣漁民接待所’를 통하여 臺灣의 漁民·商人과 행하는 直接交易으로서 臺灣政府 입장에서는 密貿易이지만, 大陸政府 입장에서는 密貿易이 아니다.

兩岸交易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홍콩경유 交易 통계에 기초하여 兩岸交易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兩岸交易은 1979년 이후 전반적인 급증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附表 1] 참조). 1992년의 交易規模는 1979년의 규모에 비해 97배에 달했으며, 이 기간중(연평균 43% 증가) 특히 輸出의 경우에는 위 13년 기간동안 300배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중에 세차례의 循環現狀(cycle), 즉 교역규모 급증과 증가속도의 큰 위축(또는 交易規模의 축소)이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즉 兩岸交易은 1979~83 기간의 1차 순환(확대에 이은 위축), 1984~86 기간의 2차순환, 1987~1990의 3차 순환을 거쳐 현재는 제4차 확대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循環現狀의 주요인은 中國측의 거시경제 여건

1) 1978년에 兩岸間의 홍콩 경유 交易은 4,700만달러에 불과했으며, 이 중 95% 이상이 臺灣이 한약재 등의 中國 특산물을 수입한 것이었다.

2) 高長·嚴宗大 (1992), p.14, Kao(1993), p.3 참조.

【附表 1】 中國·臺灣의 홍콩경유 間接交易의 推移

(단위 : 백만US달러, %)

년 도	대만 → 대륙				대륙 → 대만			
	금 액	전년비 증가율	대 만 총수출중 비중	대 륙 총수입중 비중	금 액	전년비 증가율	대 륙 총수출중 비중	대 만 총수입중 비중
1979	21	41393.2	0.13	0.14	55	19.4	0.41	0.38
1980	242	1037.8	1.22	1.24	78	40.7	0.43	0.40
1981	390	61.1	1.73	1.77	76	-2.8	0.35	0.36
1982	208	-46.7	0.94	1.08	89	17.9	0.40	0.48
1983	168	-19.0	0.67	0.79	96	6.8	0.43	0.47
1984	425	152.4	1.40	1.55	127	33.0	0.49	0.58
1985	987	132.1	3.21	2.34	116	-9.2	0.42	0.58
1986	811	-16.9	2.04	1.89	144	24.3	0.47	0.60
1987	1,226	51.3	2.30	2.84	289	100.5	0.73	0.83
1988	2,242	82.8	3.65	4.26	478	65.7	0.98	0.95
1989	2,896	29.2	4.38	4.90	586	22.6	1.12	1.12
1990	3,278	13.2	4.88	6.14	765	30.4	1.23	1.40
1991	4,679	42.7	6.14	7.34	1,129	47.6	1.57	1.80
1992	6,288	34.4	7.72	7.80	1,119	-0.9	1.32	1.55
1993	5,030	26.4	8.90	8.70	710	-5.4	1.40	1.20
1~8								

資料 : Hong Kong External Trade,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中國統計年鑑, 各號

변화에 따른 잦은 정책변화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7년 이후에는 輸出入 변동폭이 크게 줄어들어 보다 안정적인 증가추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둘째로 貿易收支에 있어서는 臺灣이 지속적으로 큰 폭의 黑字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黑字幅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1993년에 들어서 누적 흑자규모는 200억달러를 넘었으며, 연간 흑자규모도 1992년의 52억

달러에 이어 1993년에는 7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貿易不均衡은 臺灣이 수입허용 품목을 극히 제한하는 등 수입을 규제하는 것에 기인한 바 크지만, 실제에 있어서 공식 허용품목 이외의 상품도 상당량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sup>3)</sup>, 臺灣의 輸入規制만으로 이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보다 핵심적인 요인은 대륙의 경제성장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한 단계 앞서 있는 臺灣(주로 輸出用 原副資材)에 대한 輸入需要가 크게 증대되고 있는 반면, 大陸의 주종 輸出商品에 대한 臺灣의 시장은 아직 충분히 성숙·개방되어 있지 않은 것에 있다고 보인다. 특히 1988년 이후 臺灣企業의 大陸投資(賃加工 포함)가 급증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각종 설비·원부자재의 수출이 급증한 것이 臺灣의 무역흑자 증대를 설명하는 한 요인이 된다.

세째로, 交易商品 構造를 분석해 보면 臺灣이 주로 산업용 원부자재 및 설비를 수출하고, 농수산물과 일부 원자재를 수입하는 수직분업형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나, 점차 교역품목이 다양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臺灣의 輸出品目を 보면([附表 2]참조), 섬유사·직물류(SITC 65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92년 34.4%), 이어서 특수산업용 전문기계(SITC 72류), 기타의 전력기기 및 그 부품(SITC 77류), 원료형태의 플라스틱(SITC 57류), 원료형태가 아닌 플라스틱(SITC 58류)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0대 수출상품(SITC 2단위 기준)의 비중이 1979년대 97.6%에서 1992년의 76%로 하락한 것에서 나타나듯이, 수출품목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臺灣의 輸入品目에 있어서는([附表 3] 참조) 기타의 동·식물성 원료(SITC 29류; 한약초, 깃털 중심)의 비중이 가장 높고(92년 13.7%) 기타의 전력기계 및 그 부품(SITC 77류), 섬유사·직물류(SITC 65류), 연초 및 연초제품(SITC 12류), 기타 잡항제품(SITC 89류) 등이 높은 비중을 차

3) 1991년의 경우 대만의 대륙으로부터의 20대 輸入品目(SITC 5단위 기준)중 16개 품목이 간접수입이 공식 허용되지 않은 것이었다. 高長·嚴宗大(1992), p. 32.



지하고 있다. 역시 10대 수입상품의 비중이 1979년의 98.5%에서 1992년에 64.8%로 하락한 것에서 나타나듯이 輸入品目이 다양화되고 있는데, 특히 과거 輸入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1차산품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다.

네째로 兩岸間의 交易增大로 말미암아 상호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附表 1]에서 나타나듯이 中國市場은 1992년에 臺灣 總輸出의 7.72%를 차지하였으며, 또한 계속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한편 臺灣의 總輸入中 대륙이 차지하는 비중은 1.55%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中國의 입장에서 보면 1992년에 總輸入의 7.8%를 臺灣에 의존하였으며, 總輸出중 1.4%를 臺灣으로 수출하였다. 더우기 몇몇 주종교역상품의 경우에는 상대방 시장의 비중이 總交易의 30% 이상에 도달하고 있다. 또한 홍콩경유 間接交易 이외의 형태로 나타나는 交易을 고려할 경우 양국의 교역상의 상호의존성은 이미 더욱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규모 經濟인 臺灣의 경우 大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우려하는 견해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中國이 臺灣商品의 輸入을 금지했을 경우 1987년~91기간중 臺灣의 GDP와 總雇用이 각각 1.46%, 3.42% 감소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타났다.<sup>4)</sup>

---

4) Lin and Huang (1992)

【附表 2】 臺灣의 對中國 輸出品目 構造의 推移

臺灣의 對中國 輸出								
순 위	1979년		1984년		1990년		1992년	
	SITC 코드	총수출 (%)	SITC 코드	총수출 (%)	SITC 코드	총수출 (%)	SITC 코드	총수출 (%)
1	65	81.4	65	54.8	65	39.7	65	34.4
2	76	3.2	77	11.0	58	9.8	72	8.1
3	72	3.0	89	6.6	77	6.8	77	6.7
4	63	2.2	76	5.2	72	6.2	57	6.1
5	51	2.2	75	4.5	89	5.2	58	5.2
6	73	1.6	72	3.7	61	5.1	89	4.7
7	67	1.2	26	2.9	76	4.7	76	3.6
8	58	1.1	58	1.8	64	2.3	78	2.9
9	77	1.0	78	1.1	78	1.8	74	2.5
10	61	0.7	68	1.0	74	1.8	64	1.8
10대 상품 의 비중		97.6		92.5		83.4		76.0

資料 : Chang Kao, Economic Interaction Between the Two Side of the Taiwan Strait.

- SITC 26 섬유 및 그 웨이스트
- SITC 51 유기화합물
- SITC 57 플라스틱(원료형태의 것)
- SITC 58 원료형태가 아닌 플라스틱
- SITC 61 가죽,달리분류되지 않은 가죽제품 및 손질모피
- SITC 63 코르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 SITC 64 종이, 판지 및 펄프, 종이 또는 판지제품
- SITC 65 달리 명시되지 않은 섬유사,직물, 직물제품 및 관련제품
- SITC 67 철 및 강
- SITC 68 비철금속
- SITC 72 특수산업용 기계
- SITC 73 금속공작용 기계
- SITC 74 산업용 일반기계 및 장비
- SITC 75 사무용 기계 및 자동차료 처리장치
- SITC 76 통신 및 녹음과 재생기기
- SITC 78 도로주행 차량
- SITC 77 달리 명시되지 않은 전기기계장치 및 기기와 동전기부속품
- SITC 8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잡제품

【附表 3】

## 臺灣의 對中國 輸入品目 構造의 推移

臺灣의 對中國輸入								
순 위	1979년		1984년		1990년		1992년	
	SITC 코드	총수입 (%)	SITC 코드	총수입 (%)	SITC 코드	총수입 (%)	SITC 코드	총수입 (%)
1	29	82.5	29	42.5	29	16.0	29	13.7
2	05	4.9	03	12.0	84	9.9	77	9.7
3	27	3.2	26	10.9	65	9.1	65	8.9
4	54	2.0	65	10.6	03	7.2	12	6.6
5	26	1.5	27	4.7	77	6.0	89	6.5
6	51	1.4	05	3.7	89	5.5	85	4.5
7	28	1.0	54	2.5	68	3.9	84	4.3
8	82	1.0	68	2.1	05	3.4	05	3.7
9	65	0.6	52	2.0	61	3.4	88	3.4
10	61	0.4	51	1.9	52	3.1	76	3.4
10대상품의 비중		98.5		92.9		67.5		64.8

資料 : Chang Kao, Economic Interaction Between the Two Side of the Taiwan Strait.

- SITC 03 물고기, 갑각류, 연체동물 및 수생무척추동물과 동조제품
- SITC 05 채소 및 과일
- SITC 12 담배 및 담배제품
- SITC 26 금속성 광석 및 금속 부스러기
- SITC 27 미가공비료(56항의것제외) 및 미가공 광물(석탄, 석유, 귀석제외)
- SITC 28 금속성 광석 및 금속 부스러기
- SITC 29 달리 명시되지 않은 미가공 동식물성 물질
- SITC 51 유기화학물
- SITC 52 무기화학물
- SITC 54 의약품 및 약제제품
- SITC 58 원료형태가 아닌 플라스틱
- SITC 61 가죽, 달리분류되지 않은 가죽제품 및 손질모피
- SITC 65 달리 명시되지 않은 섬유사, 직물제품 및 관련제품
- SITC 68 비철 명시되지 않은 전기기계장치 및 기기와 동전기부속품
- SITC 82 가구 및 부분품
- SITC 84 의복제품 및 의복부속품
- SITC 85 신발
- SITC 88 달리 명시되지 않은 사진장치, 장비, 비품 및 광학용품
- SITC 8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잡제품

【附錄 2】

臺灣同胞 投資獎勵에 관한 國務院 規定

1988년 6월 25일 國務院 제 10차 상무회의 통과  
1988년 7월 3일 國務院令 제 7호 공포

- 제 1 조 大陸과 臺灣地區의 經濟·技術交流를 촉진하여 海協兩岸의 공동번영에 기여하도록 臺灣의 기업 및 개인(이하 臺灣投資者로 통칭)의 大陸投資를 장려하는 본 규정을 제정한다.
- 제 2 조 臺灣投資者は 大陸의 각 省,自治區,直轄市 및 經濟特區에 투자할 수 있다.  
臺灣投資者の 海南, 福建, 廣東, 浙江 등 沿海地帶에 지정된 도시나 구역에서의 土地開發 및 經營을 장려한다.
- 제 3 조 臺灣投資者は 大륙에서 아래와 같은 형식의 투자가 가능하다.
- (1) 臺灣投資者が 전액투자한 기업
  - (2) 合資·合作 경영기업
  - (3) 補償貿易·委託加工組立·合作生產의 전개
  - (4) 기업의 株式과 債券 買入
  - (5) 不動產 매입
  - (6) 土地使用權을 취득한 개발경영
  - (7) 법률·법규가 허락하는 기타 투자형식
- 제 4 조 臺灣投資者は 大陸의 工業·農業·서비스업 및 기타 사회와 경제발전에 부합하는 투자를 할 수 있다. 臺灣投資者は 각 지방 인민정부의 相關부서가 공식 발표한 허용 항목중 투자항목을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 투자항목에 대한 의향을 대외경제무역 부문 또는 지방인민정부가 지정하는 심의기구에 신청할 수 있다.  
國家는 臺灣 投資者가 商品輸出企業과 先進技術企業을 운영하

는 것을 장려하고 이에 상응하는 우대조치를 부여한다.

제 5 조 臺灣投資者의 대륙 투자시 單獨投資, 合資, 合作經營 기업 모두 (이하 臺灣同胞 投資企業으로 통칭) 본 규정외에 국가의 관련 대외경제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外國人投資企業의 대우를 받는다.

大陸에 기타 다른 형식으로 투자하려는 臺灣投資者는 대륙에 경영기구가 설립 되어 있지 않더라도 대륙의 주식이나, 세금, 특허권사용료와 기타 소득에 대하여 본 규정 이외에 국가의 관련 대외경제법률·법규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 6 조 臺灣投資者는 兌換性通貨·機械設備 및 其他實物·工業財產權·專門技術 등으로 투자할 수 있다.

제 7 조 大陸에 투자한 投資金額, 구입한 資產, 工業財產權·投資 利潤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고 법에 의해 이전 및 승계가 가능하다.

大陸에서 활동하는 臺灣投資者는 응당 국가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 8 조 國家는 臺灣投資者의 투자 및 기타 자산에 대하여 國有化 하지 않는다.

제 9 조 社會의 공공 이익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臺灣同胞投資企業에 대하여 收容을 실시할 때에는 법률규정에 의거 진행하며 동시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제 10 조 臺灣投資者가 합법적인 이윤 및 기타 합법적인 收益과 정산후의 資金을 합법적으로 국외로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

제 11 조 臺灣同胞投資企業은 그 투자총액내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시설비와 생산용 차량, 사무설비의 수입이 가능하다. 臺灣同胞 개인이 기업경영기간중 사용하는 합리적 수량의 생활용품과 교통수단의 수출입은 관세·공상통일세를 면제받고 수입허가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臺灣同胞投資企業이 수출용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수입한 원재료·연료·부품·부속품·설비 등은 수입 관세와 공상통일세를 면제해 주고 수입허가증의 수령의무를 면하여 주지만,세관은 이 실행을 감독한다.

위에 말한 수입물건들이 만일 대륙에서 판매되는 제품생산에 이용되면 응당 국가가 규정하는 수속에 따라 관세를 징수한다. 臺灣同胞投資企業이 생산하는 수출상품은 국가가 수출을 제한하는 상품이외에는 수출관세와 공상통일세를 면제하여 준다.

제 12 조 臺灣同胞投資企業은 대륙내 금융기구로부터의 貸出이 가능하고 해외금융기관의 貸出 역시 가능하다. 또한 대출받으려는 기업의 자산과 권익의 저당,담보설정이 가능하다.

제 13 조 臺灣投資者가 단독 투자한 기업의 經營期間은 투자자가 스스로 결정한다. 合資企業과 合作企業의 經營期間은 합자 또는 합작 상대방과 협상하여 정하고 경영 기간을 규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 14 조 合資經營企業의 理事會의 조직과 理事張의 선임 및 合作經營企業 理事會 또는 연합관리기구의 조직과 이사장 또는 연합관리기구 대표의 선임은 出資比率 또는 합작조건에 따라 合資 또는 合作의 각 상대방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 15 조 臺灣同胞投資企業은 비준을 받은 계약 내용 및 정관에 의하여 경영관리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企業의 經營管理上의 自主權은 간섭받지 아니한다.

제 16 조 大陸에 투자한 臺灣同胞 또는 臺灣同胞投資企業은 외국으로부터 기술자 또는 관리인을 초빙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비자의 신청이 가능하다.

제 17 조 臺灣投資者의 大陸投資時 대륙의 친지나 기타 대리인에게 위탁이 가능하다. 대리인은 반드시 법률효력을 지닌 위탁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 18 조 臺灣同胞投資企業이 집중된 지역에서 臺灣投資者는 해당지역의

인민정부에 ‘臺灣投資企業協會’의 결성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9 조 臺灣投資者가 대륙에 투자하여 合資·合作企業을 경영할 경우에는, 대륙의 合資·合作 파트너를 통하여 신청한다. 單獨投資企業을 경영하는 臺灣投資者는 投資者가 직접 혹은 대륙내의 친지·자문서비스기구 등의 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투자를 하려는 臺灣投資者의 신청은 해당지역에 대외경제무역부문 또는 해당지역의 인민정부가 지정하는 심의기구에 단일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臺灣同胞投資企業에 대한 심의·비준은 國務院 規定에 따라 처리한다. 각급 대외경제무역부문 혹은 해당지역 인민정부가 지정하는 심의기구는 응당 신청서류에 접수 후 45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도 비준증서를 받은지 30일 내에 관련 등기관법에 따라 工商行政管理機構에 등기를 신청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제 20 조 大陸에 투자하려는 臺灣投資者는 계약이행 여부 및 기타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간의 협상에 진력하여 조정해결해야 한다.

당사자가 협상을 통한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을 통하여 해결이 안될 경우, 계약에 규정된 중재조건 또는 사후 달성된 서면중재협의를 따라 大陸 또는 홍콩에 仲裁機構에 중재를 제의한다. 당사자간의 계약에 중재내용이 없고 사후에도 서면으로 중재협의를 도달되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 21 조 본 규정은 對外經濟貿易部가 해석의 책임을 가진다.

제 22 조 본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 【附錄 3】

## 大陸地域 投資·技術合作 項目의 審査原則 <臺灣 經濟部 投資審議委員會>

臺灣 經濟部는 “對大陸地區 投資·技術合作 許可方法” 제7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심사원칙에 따라 大陸投資를 허가하고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심사 대상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져 허용업종, 금  
지업종, 사안별 심사항목으로 분류되며, 그 분류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  
음과 같다.

### 1. 許可業種

大陸投資가 허용되는 업종을 다음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열거  
(positive list)하고 있다.

#### (1) 農業 (1993년 3월현재 HS 8단위 기준 130항목)

- ① 대만지역에서 생산이 안되는 것이나, 자급률이 낮고 대체가 어  
려운 농산품.
- ② 대만지역에서 생산할 경우, 비교적 국제경쟁력이 약한 농산품.
- ③ 대만지역에서 생산하기에 그 원가가 보편적으로 비싼 농산품.
- ④ 대만과 대륙지역의 농업발전에 균등하게 유리한 농산품.

#### (2) 製造業 (1993년 3월현재 HS 8단위 기준 3811항목)

- ① 대륙지역의 풍부한 생산원료와 대만지역의 공업발전을 위해 필  
요한 것
- ② 노동집약적 상품.
- ③ 산업관련성이 낮은 것.
- ④ 대만지역에서 생산할 경우 비교적 국제경쟁력이 약한 것.



(3) 서비스업 (1993년 3월현재 대만산업 중분류 기준 14항목)

- ① 소규모 경영의 업종.
- ② 전통적인 사업업종.
- ③ 대만지역 경제발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 2. 禁止業種

大陸投資가 금지되는 業種을 다음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열거 (negative list)하여 해당업종의 投資를 금지하고 있음.

(1) 農業 (1993년 3월현재 HS 8단위 기준 9항목)

- ① 관련 국제법규가 금지하거나 대륙지역과 수출입이 제한된 농산품 및 그 생산관련의 과학기술.
- ② 대만지역의 안전 또는 경제발전에 부정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농산품 및 그 생산관련의 과학기술.
- ③ 정부투자 연구개발 혹은 적극적으로 육성된 농산품 및 그 생산관련의 과학기술.
- ④ 대만지구의 어선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 연근해 어장에서의 전통적 성격의 어업.

(2) 製造業 (1993년 3월현재 HS 8단위 기준 299항목)

- ① 국제협의를 통하여 대륙지역의 수출입을 승인하지 않는 상품이나 기술.
- ② 국방과학기술 및 그 관련 상품.
- ③ 정부투자 연구개발의 상품·기술 또는 정부가 지도·육성하는 관건산업.
- ④ 관건성 기술이나 그 부속품.

(3) 서비스업 (1993년 3월현재 대만 산업 중분류 기준 4항목)

① 金融業 :

- (이유) ㉠ 대만지역의 경제·금융의 안정과 국가안전에 불리한 영향이 있다고 염려됨.
- ㉡ 대륙지역의 금융시장은 아직 자유시장 기능을 결여함.
- ㉢ 대륙지역에는 금융업무에 대해 아직 불합리한 제한이 허다하기 때문에, 자유화·국제화의 발전요구에 부합하지 못함.
- ㉣ 대륙지역에는 건전한 금융법제 및 투자 보호법령이 결여되어 있음.

② 證券·先物業

- (이유) ㉠ 대륙지역의 증권·선물시장은 아직 자유시장 기능을 구비하지 못했음.
- ㉡ 대륙지역은 아직 투자를 보호할 법제를 충분히 구비하지 못했음.
- ㉢ 대륙지역에는 증권·선물업의 업무경영에 대해 아직 불합리한 제약이 있음.
- ㉣ 대만지역의 증권·선물업 경영의 위험 증가.

③ 保險業

- (이유) ㉠ 국가 안전 및 대만지역의 보험업의 안정에 영향을 줌.
- ㉡ 대륙지역의 보험시장은 아직 자유시장의 기능을 구비 못했음.
- ㉢ 대륙지역은 투자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법령이 아직 없음.
- ㉣ 대륙지역의 보험업무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

④ 教育訓練 서비스업

- (이유) 대륙지역의 교육방침과 대만지역의 교육宗旨는 서로 어긋난

다.

### 3. 事案別 審査項目

허가업종과 금지업종에 모두 속하지 않으면, 위 원칙의 적용이 안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규정에 부합되면, 사안별로 심사하여 허가한다.

- (1) 국가안전 및 경제발전에 불리한 영향이 없다.
- (2) 대만지역에서의 생산은 반드시 정상운동을 유지하거나, 대만지역에서 투자계획을 지속한다.
- (3) 대륙지역에서의 투자 계획규모가 대만지역 현재 규모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 (4) 증권시장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다.
- (5) 사업 주관기관은 개별산업의 특수상황이 인정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

## KIEP 發刊資料 案内

### ■ 政策研究

90-01	GATT 11條國 移行에 따른 政策課題와 對應方案 ('90.03)	金學洙
90-02	EC 經濟統合과 對外貿易政策의 變化 ('90.03)	閔充基
90-03	換率制度와 外換危險管理 ('90.05)	金宗萬
90-04	우루과이라운드 知的所有權 協商課題와  우리의 對應方案('90.05)	孫讚鉉
90-05	韓國經濟의 自由化 現況과 OECD 加入戰略 ('90.06)	金泰俊
90-06	ASEAN 主要國의 貿易·産業政策과 投資環境變化 ('90.09)	柳在元
90-07	우리나라의 對開途國 中長期 經濟協力 方案 ('90.10)	金學洙
90-08	美國通商政策의 中長期方向 ('90.10)	金南斗
90-09	多者間서비스 協商과 우리나라 建設産業의 國際化 ('90.10)	張義泰
90-10	日本企業의 海外直接投資와 國際化戰略 ('90.12)	徐相祿
91-01	美日經濟摩擦과  우리의 政策課題 ('91.01)	姜興求
91-02	主要換率變動의 特性和 政策示唆點 ('91.03)	金宗萬
91-03	EC 貿易構造의 變化 ('91.04)	金廷洙
91-04	美國金融市場의 構造와 規制制度 ('91.03)	李長榮
91-05	中國 經濟特區戰略의 評價와 韓國企業의 對應 ('91.04)	吳勇錫
91-06	蘇聯의 對外貿易 및 金融制度의 改革 ('91.04)	朴濟勳
91-07	中國의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와 韓國의 進出展望 ('91.04)	金時中
91-08	우리나라 서비스交易의 構造와 推移 ('91.04)	李相學
91-09	韓國·臺灣·日本의 換率變動과 輸出競爭 關係分析 ('91.05)	曹琮和
91-10	EC의 直接投資 環境變化와 對應方案 ('91.05)	閔充基

91-11	韓國의 對外經濟協力에 관한 政策課題와 方向 ('91.07)	金學洙
91-12	우리나라 세이프가드制度的 改善과 活用方案 ('91.08)	蔡 旭
91-13	우리나라 서비스産業의 生産性變化와 生産性的 國際比較 ('91.08)	俞鎮守
91-14	舊東獨의 價格體系와 市場經濟體制로의 轉換 ('91.08)	裴眞永
91-15	우루과이라운드 金融서비스協商과 證券産業의 競爭力 제고방안 ('91.08)	金泰俊
91-16	폴란드 企業制度 改革과 直接投資與件 ('91.09)	洪裕洙
91-17	韓·美間 直接投資의 구조와 投資環境의 變化 ('91.09)	金南斗
91-18	한국·臺灣·日本의 産業政策과 産業構造調整 ('91.09)	柳在元
91-19	우리나라 株式市場 開放의 效果分析 ('91.10)	金宗萬
91-20	東北亞 經濟協力の 與件과 展望 ('91.12)	共 同
92-01	東北亞 地域 貿易構造와 域內 輸出競爭力 比較 ('92.01)	鄭永祿
92-02	貿易관련 政策 및 制度의  현황과 改善方向 ('92.02)	共 同
92-03	統獨 1年の 경제적 評價와 展望 ('92.03)	裴眞永
92-04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① 日本의 貿易障壁 ('92.03)	俞鎮守
92-05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① 保險産業의 國際化戰略 ('92.03)	蔡 旭
92-06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② 原產地規程 ('92.03)	韓弘烈
92-07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③ 日本의 輸入品流通과 流通障壁 ('92.03)	趙炳澤 李永俊
92-08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② 會計서비스産業 國際化 推進方案 ('92.04)	金宗萬

92-09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3] 우리나라 海運産業의 國際化 戰略 ('92.06)	張義泰
92-10	러시아에서의 사유화 進展과 外國人 投資 與件 ('92.06)	朴濟勳
92-11	先進國의 對中 經濟交流 分析 ('92.06)	鄭永祿
92-12	中國의 企業集團 育成現況과 展望 ('92.06)	金益洙
92-13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4] 標準 및 檢査制度 ('92.07)	成克濟
92-14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5] EC의 貿易障壁 ('92.07)	閔充基
92-15	汎유럽經濟圈 形成의 展望과 影響 ('92.07)	金博洙
92-16	OECD 經常貿易外去來 및 資本移動 自由化規約과 韓國의 自由化 現況 ('92.07)	金泰俊
92-17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6] 金融서비스 關聯 障壁 ('92.07)	李長榮
92-18	유럽金融統合과 EC金融市場 進出方案 ('92.07)	李在雄
92-19	東歐 經濟改革의 類型과 成果 ('92.07)	洪裕洙
92-20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4] 流通産業의 開放效果와 對應戰略 ('92.07)	申世敦
92-21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5] 廣告産業의 國際競爭力 提高方案 ('92.07)	李相學
92-22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7] 政府調達 關聯 障壁 ('92.08)	崔仁範
92-23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8] 美國의 貿易障壁 ('92.08)	金南斗
92-24	輸入先多邊化制度의 經濟的 效果 ('92.09)	共 同
92-25	東北亞經濟協力圈 形成을 위한 線形自由貿易地帶 構想과 그 期待效果 ('92.09)	孫炳海
92-26	UR 총점검 ('92.10)	共 同
92-27	換率, 金利 및 賃金變動이 우리나라 輸出에 미치는 영향 ('92.10)	金宗萬
92-28	國內先物去來所 設立·運營에 관한 研究('92.10)	共 同

92-29	日本の産業 및 貿易構造의 變化와 展望 ('92.10)	金昌男
92-30	Korea's Recent Foreign Exchange Rate Systems: ('92.12)	김진천
93-01	GATT 및 主要先進國의 反덤핑制度和 우리나라 制度의 改善方案 ('93.01)	蔡旭
93-02	우리나라 市場開放政策의 特徵과 效果 ('93.01)	韓弘烈
93-03	中國 國營企業 改革의 展開와 展望 ('93.02)	金時中
93-04	日本の技術貿易 ('93.02)	俞鎭守
93-05	豆滿江地域 開發構想到 대한 論議와 展望	金學洙
93-06	블럭化時代의 亞·太經濟協力	共同
93-07	中國의 技術導入 政策과 中日技術協力	吳勇錫
93-08	러시아의 軍需産業 民需轉換에 관한 研究 ('93.03)	朴濟勳
93-09	日本市場에서 韓國의 競爭力 分析 ('93.03)	康仁洙
93-10	日本 換率政策의 方向과 우리나라 輸出入에 미치는 影響 ('93.03)	金宗萬
93-11	日本 自動車産業의 競爭力 強化와 下請分業生産의 役割 ('93.04)	任千錫
93-12	先物去來 上場品目 選定에 관한 研究 ('93.04)	曹正錄
93-13	우리의 對舊蘇聯 經濟協力 基本戰略 ('93.04)	李昌在
93-14	外換市場介入政策의 效果分析과 換率政策에 대한 政策示唆點 ('93.05)	金泰俊
93-15	中國의 工業發展戰略과 産業政策 ('93.05)	金益洙
93-16	中國 輸入構造變化와 우리의 對應方向 ('93.05)	鄭永祿
93-17	EC 經濟統合과 우리나라의 輸出構造 變化 ('93.05)	閔充基
93-18	韓美日 産業構造的 特性이 輸出入에 미치는 影響 ('93.08)	成克濟
93-19	NAFTA의 出帆과 美國 輸入市場에서의 韓國과 멕시코의 競爭力 比較 ('93.08)	金尙謙
93-20	EC市場에서의 韓國의 競爭力 分析 ('93.08)	金博洙
93-21	韓·中 環境協力에 관한 研究 ('93.09)	共同

93-22	知的財産權 國際化의 方向과 課題 ('93.11)	王允鍾
93-23	日本の 對아시아 技術移轉과 韓國의 對應 ('93.11)	洪裕洙
93-24	러시아 極東地域의 經濟와 우리의 經濟協力方案 ('93.12)	李昌在
93-25	UR 총점검(增補版) ('93.12)	共同
93-26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6] 엔지니어링서비스 産業의 現況과 國際化 方向('93.12)	孫讚鉉
93-27	南·北韓의 統一에 비추어 본 獨逸 信託管理公社의 役割과 意義 ('93.12)	朴成勳

### ■ 政策資料

90-01	蘇聯·中國 및 東歐의 變化와 對應 ('90.01)	共同
90-02	1990年代 國際經濟 環境 變化와 對應戰略 ('90.06)	共同
90-03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協商的 進展狀況과 우리의 對應方案 ('90.08)	朴泰鎬
90-04	中國의 經濟改革에 있어서 分權化 및 市場經濟化의 展開 ('90.10)	蘇併燮
90-05	美國·日本の 金融自由化와 政策示唆點 ('90.11)	李長榮
91-01	北韓의 에너지 需要와 供給 ('91.03)	張榮植
91-02	北韓의 貿易 및 對外經濟 ('91.03)	姜正模
91-03	蘇聯 經濟改革政策과 우리의 對應 ('91.05)	李善煥 方燦榮
91-04	臺灣·日本の 金融自由化와 政策示唆點 ('91.09)	李長榮
91-05	外國人 直接投資의 生産性 效果分析 ('91.10)	崔仁範 玄定澤
91-06	韓國의 對베트남 經濟協力 基本戰略 ('91.11)	金學洙
91-07	蘇聯建設市場과 韓國建設業體의 進出 可能性 分析 ('91.12)	朴康植
91-08	技術障壁에 대한 國際的 論議와 對應方案 ('92.12)	孫讚鉉
92-01	中國工業經濟效率과 工業體制改革에 관한 研究 ('92.01)	共同
92-02	獨立國家聯合의 出帆과 韓·蘇 經濟協力 ('92.01)	朴濟勳
92-03	外國人直接投資의 不振要因과 活性化方案 ( '92.03)	金南斗 柳在元



92-04	EEA 創設의 問題點과 域外國들에 대한 影響 ('92.04)	閔充基
92-05	아시아 主要 開發途上國의 非關稅障壁 ('92.07)	魯在峯
92-06	EC 海運産業의 變化와 示唆點 ('92.08)	閔充基
92-07	海外直接投資의 現況과 政策課題 ('92.09)	共同
92-08	클린턴 次期 美國大統領의 經濟政策 ('92.11)	共同
92-09	對內外與件 變化와 韓中經濟協力の 新構圖 ('92.12)	金益洙
92-10	1993年度 國際經濟環境變化展望과 對應戰略 ('92.12)	共同
93-01	南北韓 物資交流와 原產地規程 ('93.05)	韓弘烈
93-02	GATT 最惠國待遇 原則과 南北韓 物資交流 ('93.07)	韓弘烈
93-03	韓國의 無償援助와 有償援助의 連繫方案 ('93.07)	金學洙
93-04	EC 競爭政策 變化와  우리의 對應方案 ('93.08)	閔充基
93-05	최근 世界經濟의 沈滯와  우리經濟에의 示唆點 ('93.09)	共同
93-06	西方의 對러시아 經協 전략과 示唆點 ('93.10)	朴濟勳
93-07	主要國의 先物市場 規制政策 ('93.10)	曹正鉉
93-08	國際貿易紛爭의 現況과 GATT의 役割 ('93.11)	蔡旭
93-09	主要國의 輸出支援制度 現況과  우리制度의 改善方案 ('93.12)	金準東
93-10	貿易과 競爭政策: OECD의 論議 ('93.12)	金廷洙
93-11	러시아 經濟改革의 進行狀況과 評價 ('93.12)	李昌在

## ■ 세미나資料

- EC 統合과 政策對應 ('90.1) 共同
- 우루과이라운드 協商과 우리의 對應方案 ('90.4) 朴泰鎬 編
- 韓國과 社會主義圈의 關係發展 및 南北韓 關係變化의 展望 ('90.6) 吳勇錫 編
- Jang-Won Suh and Jae-Bong Ro (eds.),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The Way Ahead ('90.11)
- EC統合과 우리의 대응방안 ('91.2) 閔充基 編
- Taeho Bark and Wook Chae (eds.), Uruguay Round: Unresolved Issues and Prospects ('91.9)
- Jang-Won Suh (eds.),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Perspectives and Challenges ('91.12)

- Chung Ki Min (e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EC and Korea: Problems and Prospects* ('92.6)
- Jehoon Park, *Russia's Reform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92.9)
- Jin Young Bae (ed.), *Two Years Since German Unification* ('93.2)

### ■ Working Paper

---

- Chungsoo Kim,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Bodies in the Asia-Pacific: Working Mechanism and Linkages* ('90.8)
- Lynn Krieger Mytelka, *Strategic Partnering Activity by European Firms through the ESPRIT Program* ('90.8)
- Sung Yeung Kwack, *Models of Exchange Rate Behavior: Application to the Yen and the Mark* ('91.1)
- Taeho Bark, *Anti-dumping Restrictions against Korean Exports: Major Focus on Consumer Electronic Products* ('91.5)
- Yoo Soo Hong, *Implications of Economic Reforms in CEECs for DAEs: with Emphasis on the Korean Case* ('91.7)
- Jang Hee Yoo, *The ANIEs-an Intermediate Absorber of Intraregional Exports?* ('91.7)
- Taeho Bark,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and the Korean Economy* ('91.10)
- Janghee Yoo, *Changing World Trade Environment and New Political Economics* ('92.9)
- In-Soo Kang, *Economic Effects of Import Source Diversification Policy(ISDP)* ('93.1)
- Jai-Won Ryou and Byung-Nak Song,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outheast Asia* ('93.3)
- Sung-Hoon Park, *German Economy after Unification-Facts, Prospects and Implications for Korea* ('93.6)
- Wook Chae, *A Note on Korea's Anti-dumping System and Practices* ('93.6)
- Chung-Ki Min, *Structural Changes in Korea's Exports and the Role of the EC Market* ('93.10)
- Joo-Sung Jun, *Tax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Capital Mobility* ('93.12)

---

## 著者略歷

---

### 金時中

- 1980 서울대학교 社會科學大學 經濟學科 卒業  
1982 서울대학교 대학원 經濟學 碩士  
1990 미국 Brown University 經濟學 博士  
(經濟體制論, 中國經濟)  
1990~ 對外經濟政策研究院(현 研究委員)

政策研究 93-28

### 臺灣企業 中國投資의 現況과 波及效果

---

1993年 12月 28日 印刷

1993年 12月 30日 發行

發行人 柳 莊 熙  
發行處 對外經濟政策研究院  
서울市江南區大峙3洞942-1番地君子빌딩 14層-18層  
電話：528-5555 FAX：528-5511, 5522  
登錄：1990年 11月 7日 第 16-375號  
印刷 오름시스템(주) 전화：273-7011

---

\* 本報告書 內容의 無斷 轉載·譯載·複寫를 禁함.

값 5,000원